

총회참석자

명예의장	김만우 목사 유효명 장로	중동지역선교사협회 고문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선교사	권종승 선교사 김종국 선교사 박명하 선교사 송상천 선교사 황상호 선교사	물한그릇선교회 KWMF 대표회장/인도네시아 KWMF 공동회장/온두라스 KWMF 회계/러시아 러시아(원로)	
증경의장	고인호 목사	PCA교단총무	일반	고화순 사모 김미자 사모 김병숙 사모 김영숙 선교사 나희정 사모 박삼순 사모 서옥자 사모 유동선 권사 전수은 사모 제사라 사모 정명선 사모 정봉금 사모 조성은 사모 채해진 사모 최영순 사모 황미란 전도사 Johnny Kim 전도사	지구촌선교회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JSTV 큰무리교회 MIM 멕시코내륙선교회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중동지역선교사협회 국제공동체교회 PCA교단 발도스타제일한인장로교회 컬럼버스장로교회 드림교회 아가페장로교회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공동의장	김남수 목사 김혜택 목사 나광삼 목사 배현찬 목사 서삼정 목사 이상진 장로	프라이스교회 뉴욕총신교회 큰무리교회 주예수교회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총회스텝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계한나 집사 김봉성 전도사 서미숙 전도사 손은경 집사 양승길 목사 윤영희 권사 이분숙 권사 이석주 장로 임헌순 장로 천경태 집사 최영규 목사 함혜란 집사		
사무총장	고석희 목사	지구촌선교회		한은준 간사	KWMC	
부의장	김동선 목사 김정한 선교사 김정호 목사 김충직 선교사 남궁전 목사 명든의 목사 박은우 목사 송성자 목사 서준석 목사 신용 이사 오재호 목사 장인관 목사 정인수 목사 제석호 목사 최낙신 목사 현종각 목사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SON Ministry 아틀란타한인교회 JSTV 예수위성방송 아틀란타베다니교회 예루살렘장로교회 MIM 멕시코내륙선교회 순복음사랑교회 드림교회 CTS 이사 참좋은교회 Friends of Missionaries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국제공동체교회 잔스크릭한인교회 매릴랜드안디옥교회				
중앙위원	김성훈 목사 김유신 목사 김철수 목사 서대웅 목사 이승훈 목사 임낙길 목사 조영팔 목사 조용수 목사 최병주 목사	아가페장로교회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매릴랜드순복음교회 에버딘순복음교회 잔스크릭한인교회 발도스타제일한인장로교회 컬럼버스장로교회 사바나한인침례교회 한마음교회				

차례

KWMC 헌장	05
KWMC 조직표	15
년차총회 일정표	16
예배순서	18
년차총회 회순	20
전회의록	21
2014 회계년도 감사보고	23
2014 회계년도 결산서	24
2014 회계년도 후원현황	26
2015 회계년도 예산안	27

KWMC 협력선교운동 아젠다

한국선교사 파송현황	31
복음주의 기독교의 전세계 현황	37
GKYM Toronto '14 (지킴토론토대회)	43
KWMA 2014 세계선교대회	57
· NCOWE VI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의)	58
· RCOWE I (제1차 권역별전략회의)	66
· 제1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75
KWMF - 제7차 지도력개발회의	77
WMK 세계선교사자녀협의회	85
4/14 윈도우 운동	89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107
LAWW 평신도운동 / 유효명	115
평신도선교운동본부 선교장학금	121
인도선교(1986-2014) / 이상진	125
인도네시아에서의 30년을 돌아보며 / 김종국	135

기타 선교운동/대회 자료

선교한국 2014	141
제2회 햇빛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155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	165
로잔 비즈니스선교 글로벌 콩그레스	181
한국자신학과자선교학정립을위한리서처 / 조명순	185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헌장

북미주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 28:19-20)인 세계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 까지 Billy Graham Center(Wheaton, Illinois)제 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 한인교회 선교사상 새로운 장을 기록하였다. 1,500여명의 참가자들이 '88 한인세계선교대회 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북미주 한인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의 뜻과 힘을 집결하여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라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회의 위치는 북미주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매 4년마다 개최하여 선교운동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회원 및 의무	제 1항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및 선교단체의 대표 각 1인으로 한다. 신규회원 가입은 의장단에서 심의한다. 제 2항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헌장과 규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 5조 총회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항 구성	제 4조 1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항 임무	전형 위원 선출, 의장단 인준, 부의장단, 고문, 지도 위원 및 감사에 대한 인준, 예결산 심의, 헌장 개정안 심의

제 6조 중앙의회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1항 구성	제 14조의 임원, 제 8조의 상설 기구의 대표 및 총무, 제 9조의 지역 선교 협의회 회장단, 제 10조와 제 11조의 선교 협력 기구의 대표 및 총무, 기타 의장단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항 임무	본 회의의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결의하며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제 7조 실행위원회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항 구성	의장단, 사무총장, 서기, 회계와 상설 기구 및 협력기구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 2항 임무	총회 및 중앙의회의 결의 사항과 위임 사항을 집행하며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의회 심의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 제 8조 상설기구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미주 각 지역에 선교 협의회를 둔다.
- 제 9조 지역선교협의회 본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미주 각 지역에 선교협의회를 둔다. 각 지역 선교는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 및 지역선교활성화본부장과 협력한다.
- 제 10조 전문선교협력기구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선교협력기구를 두어 상호 협력하게 한다.
- 제 11조 지역별선교협력기구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선교협력기구를 두어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과 북미주 한인교회들간에 상호 협력하게 한다.
- 제 12조 사무국 사무총장, 상임 간사와 사무 직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 제 13조 전형 위원회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항 구성 전형위원은 전직 및 현직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제 2항 임무 의장단을 전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 제 14조 임원과 임무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제 1항 중경의장 : 본회의 선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후원과 자문에 응한다.
제 2항 고문 : 본회를 후원하며 자문에 응한다.
제 3항 지도 위원 :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며 지도한다.
제 4항 의장단 : 의장단은 적절한 수효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연차적으로 1인이 대표 의장이 되어 본회를 대표한다.
2. 연차적으로 1인이 중앙의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의장단은 차기대회의 공동대회장이 되며 대표대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4. 한국 세계 선교 기관과 선교운동 및 사업과 공동 관심사를 협력한다.
제 5항 부의장단 : 의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력한다.
제 6항 중앙의회의장 : 중앙의회 및 실행위원회를 통괄하고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궐위된 때에 보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항 실행위원회 의장 : 실행위원회를 통괄하고 사무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제 8항 사무총장 : 총회, 중앙의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과 위임사항 및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상설기구와 선교협력기구 및 지역선교협의회 업무를 협력 조정, 지도하며 본 조 제 4항 3의 협의에 참여한다.
제 9항 서기 및 부서기 : 서기는 총회, 중앙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를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며, 부서기는 서기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항 회계 및 부회계 :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며 부회계는 회계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항 감사 : 2인의 감사는 본 회 재정을 감사하여 년 1회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제 15조 당연직위원 의장단과 사무총장은 각 상설기구와 각 선교협력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 제 16조 회의
- 본 회에는 총회, 년차총회, 중앙의회, 실행위원회를 둔다.
- 제 1항 총회: 매 4년마다 개최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이후 첫 10월 혹은 11월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제 2항 년차총회: 매년 10월 혹은 11월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제 3항 중앙의회: 총회 혹은 년차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 4항 실행위원회: 정기실행위원회는 년 2회 10월 내지 11월(중앙의회 전)과 4월에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실행위원회는 필요시 실행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 제 17조 정족수
- 총회와 년차총회 및 중앙의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최하며, 기타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 18조 선거
- 제 1항 의장단: 전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 2항 부의장단,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는 의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 3항 기타임원: 고문, 지도위원, 감사는 의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 4항 지역선교협의 회장: 각 지역 선교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은 각 지역선교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제 19조 보궐선거
- 모든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동일하다. 단 감사와 서기, 부서기, 및 회계, 부회계가 꺾어진 때에는 의장단과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 제 20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재정

- 제 21조 비영리단체
- 본회는 미연방정부사세청(IRS) 면세법 Section 501(c)(3) 에 준하여 비영리단체로 운영한다.
- 제 22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의장단의 헌금과, 중앙의원의 헌금, 총회원의 회비 및 헌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 제 23조 재정운영
- 총회에서 인준한 예산 가운데 일반경상운영비는 실행위원회 의장의 관할 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그 외의 예산 집행에는 실행위원의 승인을 요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실행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 추후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제 24조 사례
- 사무총장, 상임간사 및 고용된 사무직원 이외의 어떤 임원에게도 실제 경비 이외의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특별 임무를 맡아 연구 및 근무하는 자에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사례를 지불할 수 있다.
- 제 25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개정 및 세칙

- 제 26조 헌장개정 본 헌장의 개정은 중앙의회의 발의로 제안하여 총회 혹은 연차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 제 27조 세칙제정 본 헌장의 시행에 요한 세칙은 중앙의회에서 제정한다.

부칙

- 제 1조 통상관 본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회의의 통상관에 준한다.
- 제 2조 발효 본 헌장은 총회 혹은 년차 총회의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988년 10월 10일 제정
1992년 10월 13일 개정
1996년 11월 5일 개정

중앙의회는 헌장 제 27조에 의거하여 본 회 헌장 시행에 요한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상설 기구

중앙의회는 헌장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 제 1조 상설 부서 각 부서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한 대표와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항 세계선교기도운동본부 : 선교현지의 기도정보를 교회에 제공하고 기도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장, 촉진 확산하여 선교에 활력을 준다.
- 제2항 선교사후원운동본부 :
- 제3항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 선교능력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선교운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 제4항 지역선교활성화본부 : 북미주내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선교집회를 통한 선교운동활성화를 도모한다.
- 제5항 대학생청년선교운동본부 : 청소년 및 대학생선교운동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새세대지도자 양성과 선교지망자 발굴, 동원, 훈련을 도모한다.
- 제6항 신학생세계선교운동본부 :
- 제7항 여성목회자세계선교운동본부 :
- 제8항 단기선교운동본부 :
- 제9항 북한식량의료지원운동본부 :
- 제10항 북한교회재건개척운동본부 :
- 제11항 방송선교운동본부 :
- 제12항 기독교신문선교운동본부 :

제13항 의료선교운동본부 :

제14항 세계선교훈련원 : 교회지도자, 선교사, 선교소명자 등에 대한 선교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 2조 상설위원회

각 상설위원회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하는 위원장과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항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 청소년, 대학생 선교운동을 통하여 차세대 지도자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사역을 관장한다.

제2항 여성선교위원회 : 여성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역을 관장한다.

제3항 교회선교교육개발위원회 :

제4항 선교사협력위원회 : 한인선교사들간의 동반자적 선교사역을 도모하며 이를 후원한다.

제5항 선교단체협력위원회 : 한인선교단체간에 동반자적 협력사역을 도모한다.

제6항 교단선교협력위원회 : 교단과의 선교정보교환, 선교협력을 위한 협력사역을 도모한다.

제7항 선교역사기록보존위원회 :

제2장 선교협력기구

중앙의회는 헌장 제 10조와 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선교협력기구를 설치한다.

각 선교협력기구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하는 대표와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전문선교협력기구

제1항 기독교의료인간기선교협력기구

제2항 기독교실업인선교협력기구

제3항 직장기독교인선교협력기구

제4항 한족선교협력기구

제5항 학원선교협력기구

제6항 군. 경. 형. 선교협력기구

제7항 시청각선교협력기구

제8항 이중문화선교협력기구

제9항 선교사치유선교사협력기구

제10항 스포츠선교협력기구

제11항 음악선교협력기구

제12항 장애인선교협력기구

제13항 영상선교협력기구

제14항 외향선교협력기구

제15항 항공선교협력기구

제16항 유학생선교협력기구

제4조 지역별선교협력기구	아시아	제1항 네팔선교협력기구
		제2항 대만선교협력기구
		제3항 라오스선교협력기구
		제4항 말레이시아선교협력기구
		제5항 몰디브선교협력기구
		제6항 몽고선교협력기구
		제7항 미얀마선교협력기구
		제8항 방글라데시선교협력기구
		제9항 베트남선교협력기구
		제10항 부르나이선교협력기구
		제11항 부탄선교협력기구
		제12항 북한선교협력기구
		제13항 스리랑카선교협력기구
		제14항 싱가포르선교협력기구
		제15항 아프카니스탄선교협력기구
		제16항 인도선교협력기구
		제17항 인도네시아선교협력기구
		제18항 일본선교협력기구
		제19항 중국선교협력기구
		제20항 캄보디아선교협력기구
		제21항 태국선교협력기구
		제22항 티벳선교협력기구
		제23항 파키스탄선교협력기구
		제24항 리핀선교협력기구
		제25항 홍콩선교협력기구
	중앙아시아	제26항 우즈베키스탄선교협력기구
		제27항 우크라이나선교협력기구
		제28항 카자흐스탄선교협력기구
		제29항 키르기즈스탄선교협력기구
	중동	제30항 중동선교협력기구
		제31항 이스라엘선교협력기구
	아프리카	제32항 가나선교협력기구
		제33항 가봉선교협력기구
		제34항 감비아선교협력기구
		제35항 기니선교협력기구
		제36항 기니비사우선교협력기구
		제37항 나미비아선교협력기구
		제38항 나이지리아선교협력기구
		제39항 남아공선교협력기구
		제40항 니제르선교협력기구
		제41항 라이베리아선교협력기구
		제42항 레소토선교협력기구

- 제43항 르완다선교협력기구
- 제44항 리비아선교협력기구
- 제45항 마다가스카르선교협력기구
- 제46항 말라위선교협력기구
- 제47항 말리선교협력기구
- 제48항 모로코선교협력기구
- 제49항 모리타니아선교협력기구
- 제50항 모잠비크선교협력기구
- 제51항 베닌선교협력기구
- 제52항 보츠와나선교협력기구
- 제53항 부르키나파소선교협력기구
- 제54항 부룬디선교협력기구
- 제55항 세네갈선교협력기구
- 제56항 소말리아선교협력기구
- 제57항 수단선교협력기구
- 제58항 스와질랜드선교협력기구
- 제59항 시에라레온선교협력기구
- 제60항 앙골라선교협력기구
- 제61항 에리트리아선교협력기구
- 제62항 에티오피아선교협력기구
- 제63항 우간다선교협력기구
- 제64항 이집트선교협력기구
- 제65항 자이레선교협력기구
- 제66항 잠비아선교협력기구
- 제67항 짐바브웨선교협력기구
- 제68항 차드선교협력기구
- 제69항 카메룬선교협력기구
- 제70항 케냐선교협력기구
- 제71항 코디디브와르선교협력기구
- 제72항 콩고선교협력기구
- 제73항 탄자니아선교협력기구
- 제74항 토고선교협력기구
- 제75항 튀니지선교협력기구

- 중앙아메리카
- 제76항 과테말라선교협력기구
 - 제77항 니카라과선교협력기구
 - 제78항 도미니카선교협력기구
 - 제79항 멕시코선교협력기구
 - 제80항 유카탄선교협력기구
 - 제81항 온두라스선교협력기구
 - 제82항 자마이카선교협력기구
 - 제83항 코스타리카선교협력기구
 - 제84항 파나마선교협력기구

- 남아메리카 제85항 볼리비아선교협력기구
제86항 브라질선교협력기구
제87항 수리남선교협력기구
제88항 아르헨티나선교협력기구
제89항 에콰도르선교협력기구
제90항 우르과이선교협력기구
제91항 칠레선교협력기구
제92항 콜롬비아선교협력기구
제93항 트리니다드선교협력기구
제94항 파라과이선교협력기구
제95항 페루선교협력기구
- 유럽 제96항 그리스선교협력기구
제97항 네덜란드선교협력기구
제98항 덴마크선교협력기구
제99항 독일선교협력기구
제100항 러시아선교협력기구
제111항 루마니아선교협력기구
제112항 몰도바선교협력기구
제113항 벨기에선교협력기구
제114항 불가리아선교협력기구
제115항 사이프러스선교협력기구
제116항 스웨덴선교협력기구
제117항 스위스선교협력기구
제118항 스코트랜드선교협력기구
제119항 스페인선교협력기구
제120항 슬로바키아선교협력기구
제121항 슬로베니아선교협력기구
제122항 아일랜드선교협력기구
제123항 알바니아선교협력기구
제124항 에스토니아선교협력기구
제125항 영국선교협력기구
제126항 오스트리아선교협력기구
제127항 이탈리아선교협력기구
제128항 체코 공화국선교협력기구
제129항 포르투갈선교협력기구
제130항 폴란드선교협력기구
제131항 프랑스선교협력기구
제132항 핀란드선교협력기구
제133항 헝가리선교협력기구
- 오세아니아 제134항 괌선교협력기구
제135항 뉴질랜드선교협력기구
제136항 마이크로네시아선교협력기구
제137항 사모아선교협력기구

제138항 이판선교협력기구
제139항 솔로몬제도선교협력기구
제140항 파푸아뉴기니선교협력기구
제141항 팔라우선교협력기구
제142항 피지선교협력기구
제143항 호주선교협력기구

북아메리카 제144항 아메리칸인디언선교협력기구
제145항 에스키모선교협력기구

제5조 특수연구기구

제 1항 한인세계신학교육협의회
제 2항 세계선교신학연구실 :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음적인 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선교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 3항 세계선교정보전략연구실 :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교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고 선교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건의한다.

고문										
강인덕	계화삼	김영철	김해중	박근서	박재영	안수훈	윤영봉	윤영준	이승만	
조동진	주선영	최찬영	최창덕	함성국	허경삼					

자문의원										
계동춘	김명도	김선배	김용주	김찬희	김창제	김형훈	김화일	문대연	박이섭	
박희소	송천호	이상현	이정근	전종락	홍춘만	황보연준				

증경의장										
고인호	김득렬	김상모	김영진	김택규	김택용	나윤태	림택권	서준택	송용걸	
안병국	안성기	이상남	이승제	이원상	정남식	조천일	한진관			

명예의장										
김만우	류효명	박희민	임동선	차현희	최일식					

의장단	대표의장	중앙의장	실행위원장
2013년도	이승중	임현수	이상진
2014년도	김남수	배현찬	김혜택
2015년도	서삼정	나광삼	호성기
2016년도	장영춘	한기홍	

부의장단									
강세대	강재구	강준민	강주원	강학구	고승희	고홍석	권 준	김경진	김동선
김만풍	김봉희	김선훈	김성국	김성민	김성찬	김성택	김세웅	김수태	김영길
김영호	김원기	김윤철	김재성	김재열	김정복	김정우	김정하	김정환	김진환
김충직	김풍운	김현준	김형균	김희원	김희창	남궁전	남재신	노정각	노창수
림형찬	명도의	명치호	문석호	문태주	문형준	박광자	박대우	박성향	박신욱
박신일	박원철	박은우	박현성	박형은	방지각	배상호	백상만	백승학	백한영
변인복	서준석	서창권	송규식	송금섭	송민호	송성엽	송성자	송영일	송영재
송제임	신 용	안강희	안근성	안영섭	안창섭	안창의	안국주	양태철	여병현
오병재	오성철	오재호	유성원	유재승	윤규현	윤덕근	윤사무엘	윤상돈	윤영복
윤요한	윤정용	윤철환	이광훈	이길준	이동열	이문연	이상철	이순욱	이승호
이승훈	이영섭	이영식	이용걸	이용봉	이익화	이재호	이정남	이종민	이종형
이지용	이현석	이형석	이훈경	임영규	임용락	임찬혁	임철성	장남용	장동일
장동찬	장석진	장애즈라	장인관	장진용	장춘원	장현식	전덕영	전익삼	전희근
정인수	제석호	조일구	조종화	지용주	최계순	최광언	최낙신	최문섭	최병수
최순자	최영철	최용걸	최용식	최용섭	최은중	한중수	한 훈	허상희	현종각
황성주	황이춘								

사무총장 고석희

서기 조일구 부서기 김동선
회계 이상진 부회계 지용주
감사 박은우 부감사 유승원

중앙위원 중앙의장 : 배현찬									
강인호	강조난	강주현	고재동	권영교	김기형	김대섭	김대성	김동승	김란이
김성주	김성훈	김신일	김영진	김유신	김종엽	김종욱	김창근	김철수	김철민
김태완	김파울	노하덕	박대위	박미라	박봉근	박성진	박영국	박영덕	박인호
박재신	박종민	박형무	배성호	배에스터	백승철	백신중	변해성	서대웅	서경재
서영주	석동기	성백은	성현경	손계환	손영남	송관빈	송만호	송원석	송인규
송창현	안병환	양재서	영희섭	위계현	유민용	유광훈	유민용	유정훈	윤병호
윤선경	윤영광	윤철형	은희출	이광길	이반석	이상조	이선준	이성일	이숙자
이승훈	이영대	이영희	이요한	이윤석	이응도	이정우	이종필	이찬우	이후석
임나길	임성기	임승환	임요한	임종희	장동훈	정동호	정승호	정원석	정진구
정태권	정학재	정현범	조영팔	조용수	조재석	조진모	좌영진	최근임	최병주
최병환	최복규	최봉수	최영현	최종대	최현숙	한기영	한상우	한정민	한홍열
허동현	홍성우	홍원기	홍계득	홍창우	황성수				

실행위원회 위원장 : 김혜택	
의장단, 사무총장, 상설부서장, 상설위원장, 전문선교협력기구장, 지역별선교협력기구장	

차세대위원	
강민호 강찬기 데이빗 기븐스 김인기 김의승 김정원 김정한 김제아은 김중현 김현인 나준 노진산 박신욱 박형은 송민호 심수영 폴양양조섭 양춘호 오석환 이브라이언 이원기 전우창 정민용 조상대 차피터	

상설부서	
세계선교기도운동본부	본부장 한기홍
선교사역후원운동본부	본부장 박은우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류효명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송성자
차세대선교동원운동본부	본부장 이동열
신학생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송제임스
미완성과업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안강희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본부장 김혜택
단기선교운동본부	본부장 김정환
비즈니스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최홍섭
북한및탈북자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임현수
북한교회재건개척운동본부	본부장 장영춘
교육선교운동본부	본부장 김남수
방송선교운동본부	본부장 박신욱
의료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전희근
구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박준서
어린이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여병현
한국교회선교화산운동본부	본부장 박삼삼
한인디아스포라선교동력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승중
해외한인교회선교화산운동본부	본부장 안영섭
세계선교훈련원	본부장 고석희
IT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이승훈

상설위원회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인호
여성선교위원회	위원장 최순자
교회선교교육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선교사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일구
선교단체협력위원회	위원장 박희민
교단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삼정
선교역사기록보존위원회	위원장 김택용
한인디아스포라선교정보위원회	위원장 오상철

전문선교협력기구	
기독교의료인단기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류효명
기독교실업인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김세웅
직장기독교인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박성향
기독교신문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장영춘
한족/다인종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배현찬
탈북자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이순욱
학원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전덕영
군.경.형.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고홍석
시청각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박성진
이중문화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강준원
선교사치유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전희근
체육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이광훈
장애인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임선숙
영상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안영섭
외향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박계로
항공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김영욱
기독교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김경복
선교사자녀학교설립협력기구	기구장 지용주

● 제27차 2014년도 년차총회 일정표

2014년 11월 3일(월) - 5일(수)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11월 3일 (월)

오후 4:00-5:00	등록 및 방배정
5:00-6:30	개회예배 사회 : 박은우 목사 (부의장/MIM선교회) 기도 : 유효명 장로 (명예의장/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설교 (30분) : 김남수 목사 (대표의장/프라미스교회) 선교도전 (25분) : 김중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KWMF 대표회장) 성찬집례 : 김만우 목사 (명예의장) 수찬 : 이상진 장로, 유효명 장로, 임헌순 장로, 이석주 장로 축도 : 고인호 목사 (증경의장)
6:30-8:00	환영만찬 대접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목사) 사회 : 고석희 목사 (사무총장) 환영사 : 서삼정 목사 (공동의장/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답례사 : 배현찬 목사 (중앙의장/주예수교회) 식사기도 : 이상진 장로 (공동의장/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	호텔로 이동
9:00-10:00	의장단회의 (공동의장, 명예의장 / 호텔)

11월 4일 (화)

7:30-8:30	아침식사 및 교제 (호텔) 대접 : 최낙신 목사 (잔스크릭한인교회 원로) / 기도 : 김유신 목사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8:30-9:00	교회로 이동
9:00-10:30	경건회 사회 : 제석호 목사 (부의장/국제공동체교회) 기도 : 현종각 목사 (부의장/매릴랜드안디옥교회) 설교 (30분) : 나광삼 목사 (공동의장/큰무리교회) 선교도전 (25분) : 박명하 선교사 (온두라스, KWMF 공동회장) 선교도전 (25분) : 신용 이사 "CTS 선교활동" (부의장, CTS 이사) 축도 : 명돈의 목사 (부의장/예루살렘장로교회)
10:30-10:45	휴식
10:45-11:45	년차총회 ❶ 사회 : 김남수 목사 (대표의장/프라미스교회) / 기도 : 김성훈 목사 (중앙위원/아가페장로교회)
11:45-12:00	휴식
오후 12:00-12:20	"4/14원도우 운동" - 김남수 목사 (대표의장/프라미스교회)
12:20-12:40	"미전도종족선교 / GKYM 디아스포라청년선교운동" - 김혜택 목사 (공동의장/뉴욕총신교회)

12:40-2:00	점심식사 대접 :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 부의장) 기도 : 최병주 목사 (한마음교회)
2:00-2:20	"KWMF와 KWMC의 동반사역" - 김종국 선교사 (KWMF 대표회장)
2:20-2:40	"이슬람 이해의 도우미" - 김만우 목사 (명예의장)
2:40-3:00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 배현찬 목사 (공동의장/주예수교회)
3:00-3:20	"LAWW 평신도선교운동" - 유효명 장로 (명예의장/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3:20-3:40	휴식
3:40-4:00	"인도선교" 이상진 장로 (공동의장)
4:00-4:20	"2세들을 통한 세계선교의 비전" - 고인호 목사 (증경의장)
4:20-4:40	"평신도전문인선교동원을 위한 선교방송의 활용" - 김정환 선교사 (부의장/SON미니스트리)
4:40-5:00	"MIM, Mexico Inland Mission" - 박은우 목사 (부의장/MIM)
5:00-5:20	휴식
5:20-5:40	"아이티 선교사역" - 서준석 목사 (부의장/드림교회)
5:40-6:00	"물 한 그릇 선교사역" 권중승 선교사 (물한그릇선교회)
6:00-6:20	"JSTV 사역" 김충직 선교사 (부의장/JSTV)
6:20-6:40	"Friends of Missionaries 사역" - 장인관 목사 (중앙위원/Friends of Missionaries)
6:40-8:00	저녁식사 대접 : 잔스크리칸인교회 (이승훈 목사) 기도 : 서대웅 목사 (중앙위원/에버딘순복음교회)
8:00	호텔로 이동

11월 5일 (수)

7:30-8:30	아침식사 및 교제 (호텔) 대접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서삼정 목사) 기도 : 김철수 목사 (중앙위원/매릴랜드순복음교회)
8:30-9:00	교회로 이동
9:00-10:30	경건회 사회 : 오재호 목사 (부의장/참좋은교회) 기도 : 서준석 목사 (부의장/드림교회) 설교 (30분) : 김혜택 목사 (공동의장/뉴욕총신교회) 선교도전 (25분) : 송상천 선교사 (러시아, KWMF 회계) 선교도전 (25분) : 송성자 목사 "북한선교" (부의장/순복음사랑교회) 축도 : 김만우 목사 (명예의장)
10:30-11:00	년차총회 ② 사회 : 김남수 목사 (대표의장/프라미스) 기도 : 조영팔 목사 (중앙위원/컬럼버스장로교회)
11:00-12:00	폐회예배 사회 : 김동선 목사 (부의장/템플제일한인침례교회) 기도 : 남궁전 목사 (부의장/아틀란타베다니교회) 설교 (30분) : 배현찬 목사 (공동의장/주예수교회) 선교도전 (25분) : 황상호 선교사 (러시아 원로선교사) 축도 : 최낙신 목사 (부의장/잔스크리칸인교회)
12:00-1:30	점심식사 대접 : 이종희 장로 (서라벌식당, 제일장로교회) 기도 : 임낙길 목사 (중앙위원/발도스타제일한인장로교회)
1:30	폐회

● 개회예배

2014년 11월 3일 (월) 오후 5시

사회 : 박은우 목사 (부의장/MIM선교회)

찬 송	다같이
기도 유효명 장로 (명예의장/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성경봉독	사회자
말씀증거 (30분) 김남수 목사 (대표의장/프라미스교회)	
선교도전 (25분)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KWMF 대표회장)	
성찬집례 김만우 목사 (명예의장)	
수찬위원 이상진 장로, 유효명 장로, 임현순 장로, 이석주 장로	
찬 송	다같이
광고 고석희 목사 (사무총장)	
축 도 고인호 목사 (증경의장)	

● 아침경건회 ①

2014년 11월 4일 (화) 오전 9시

사회 : 제석호 목사 (부의장/국제공동체교회)

목 도	다같이
찬 송	다같이
기도 현종각 목사 (부의장/매릴랜안디옥교회)	
성경봉독	사회자
말씀증거 (30분) 나광삼 목사 (공동의장/큰무리교회)	
선교도전 (25분) 박명하 선교사 (온두라스/KWMF 공동회장)	
선교도전 (25분) "CTS 선교활동" 신용 이사 (부의장/CTS 이사)	
찬 송	다같이
광고 고석희 목사 (사무총장)	
축 도 명돈의 목사 (부의장/예루살렘장로교회)	

● 아침경건회 ②

2014년 11월 5일 (수) 오전 9시

사회 : 오재호 목사 (부의장/참좋은교회)

목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서준석 목사 (부의장/드림교회)
성경봉독	사회자
말씀증거 (30분)	김혜택 목사 (공동의장/뉴욕총신교회)
선교도전 (25분)	송상천 선교사 (러시아/KWMF 회계)
선교도전 (25분) "북한선교"	송성자 목사 (부의장/순복음사랑교회)
찬송	다같이
광고	고석희 목사 (사무총장)
축도	김만우 목사 (명예의장)

● 폐회예배

2014년 11월 5일 (수) 오전 11시

사회 : 김동선 목사 (부의장/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목도	다같이
찬송	다같이
기도	남궁전 목사 (부의장/아틀란타베다니교회)
성경봉독	사회자
말씀증거 (30분)	배현찬 목사 (공동의장/주예수교회)
선교도전 (25분)	황상호 선교사 (러시아 원로)
찬송	다같이
감사패증정	서삼정 목사 (공동의장/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신임대표의장취임사	서삼정 목사 (공동의장/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광고	고석희 목사 (사무총장)
축도	최낙신 목사 (부의장/잔스크릭한인교회)

● 제27차 년차총회

2014년 11월 4일(화) - 5일(수) / 사회 : 대표의장 김남수 목사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사..... 사회자 2. 개회기도임성기 목사 3. 회원점명 서기 4. 회순통과 사회자 5. 전회의록낭독..... 서기 6. 감사보고 감사 7. 회계결산보고..... 회계
 8. 선교운동본부 및 선교협력기구 보고
(특강으로 대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인호 목사) ② 교회선교교육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목사) ③ 중동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김만우 목사) ④ 교단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삼정 목사) ⑤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본부장 김혜택 목사) ⑥ 한국교회선교확산운동본부 (본부장 나광삼 목사) ⑦ 선교사역후원운동본부 (본부장 박은우 목사) ⑧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류효명 장로) ⑨ 다민족/다문화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배현찬 목사) ⑩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송성자 목사)
 9. 년차총회 안건검토 및 결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관한 건 ② KWMF 지도력개발회의 및 중앙회의에 관한 건 ③ GKYM 청년선교축제에 관한 건 ④ 원탁회의(KWMC, KWMA, KWMF)에 관한 건 ⑤ KWMC 인터넷선교와 Bible25를 통한 한인선교사 영적 지원에 관한 건 ⑥ 북미주선교총람 발행에 관한 건 ⑦ KWMC 30년사 책자발행에 관한 건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신구의장단 교체..... 사회자 11. 각부 건의 및 의결 신임대표의장 12. 예산안 심의 및 통과..... 신임대표의장 13. 폐회 |
|---|---|

● **전회의록 제26차 2013년도 년차총회**

2013년 11월 5일(화) - 6일(수) / 프라미스교회

개회: 2013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30분

1. 사회 / 대표의장 이승중 목사
2. 개회기도 / 임성기 목사
3. 회원점명 / 서기 안영섭 목사 (공식등록 76명 중 45명 참석)
4. 회순통과 / 유인물 그대로 받다
5. 전회의록 낭독 /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6. 감사보고 / 감사 박은우 목사
7. 회계결산보고 / 회계 이상진 장로

8. 각부보고

- ①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인호 목사)
- ② 교회선교교육개발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목사)
- ③ 북한교회재건개척운동본부 (본부장 장영춘 목사)
- ④ 중동선교협력기구 (기구장 김만우 목사)
- ⑤ 교단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서삼정 목사)
- ⑥ 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 (본부장 김혜택 목사)
- ⑦ 한국교회선교확산운동본부 (본부장 나광삼 목사)
- ⑧ 한인디아스포라선교동력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승중 목사)
- ⑨ 선교사역후원운동본부 (본부장 박은우 목사)
- ⑩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류효명 장로)
- ⑪ 다민족/다문화선교협력기구 (기구장 배현찬 목사)
- ⑫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송성자 목사)
- ⑬ 북한및탈북자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임현수 목사)
- ⑭ 차세대선교동원운동본부 (본부장 이동열 선교사)
- ⑮ 선교사자녀학교설립협력기구 (기구장 지용주 목사)
- ⑯ 영상선교협력기구 (기구장 안영섭 목사)
- ⑰ 신학생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송제임스 목사)
- ⑱ IT선교운동본부 (총무 이길준 목사)

9. 년차총회 안건 검토 및 결의

- ① KWMC조직보강에 관한 건
- ② GKYM 청년선교축제 후원에 관한 건
- ③ NCOWE2014 선교대회 참여에 관한 건
- ④ KWMF 선교포럼 참여에 관한 건
- ⑤ WMK 선교집회 참여에 관한 건

- ⑥ KWMC 선교운동본부 지역별 포럼에 관한 건
- ⑦ KWMC 인터넷선교와 Bible25를 통한 한인선교사 영적 지원에 관한 건
- ⑧ 원탁회의(KWMC, KWMA, KWMF)에 관한 건
- ⑨ 선교지 방문프로젝트에 관한 건
- ⑩ 북미주선교총람 발행에 관한 건
- ⑪ KWMC 30년사 책자발행에 관한 건

10. 정회 - 12시 30분에 정회

11. 속회 - 11/6일(수) 10:30분, 최종대 목사의 기도로 속회

- ① 임원교체 : 이승중 전임대표회장, 김남수 신임대표회장
- ② 심의안건 : 2014년 회계연도 예산안 (이상진 장로)
 - (1) 수입 : 유인물 대로 통과
 - (2) 지출 : 유인물 대로 통과
- ③ 잔무는 의장단에 일임하기로 하다.

12. 폐회 - 김남수 신임 대표회장의 선포로 11:00에 폐회하다.

서기: 안영섭 목사

감 사 보 고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가 집행한 수입 및 지출 장부를 감사한 결과 예산에 준하여 착오없이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회계업무가 규정에 준하여 수행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감사 박은우

부감사 유승원

● 2014 회계년도 결산서

2013년 11월 - 2014년 10월

I. 개요

1. 수입현황	① 2014 회계년도 일반선교비	101,934. ⁰⁰
	② 2013 회계년도 이월금	47,287. ⁹⁰
	총액	149,221.⁹⁰
<hr/>		
2. 지출현황	① 2014 회계년도 선교비	110,734. ³⁶
<hr/>		
3. 잔고현황	① KWMC 구좌	38,487. ⁵⁴

II. 지출

		예산	지출
1. 인건비	① 사례비	70,000.00	36,000.00
	② 세금 (미납금)	7,000.00	6,539.58
	총액		42,539.58
2. 사무행정비	① 전기세	4,000.00	4,275.00
	② 사무용품비	7,000.00	5,317.91
	③ 비품비	4,000.00	2,560.00
	④ 전문수수료	2,000.00	0.00
	총액		12,152.91
3. 선교활동비	① 전화/인터넷비	6,000.00	4,756.00
	② 우송비	5,000.00	2,179.00
	③ 회의준비비	2,000.00	756.00
	④ 여행비	4,000.00	4,237.00
	⑤ 기타선교사역비	5,000.00	780.00
	총액		12,708.00
4. 선교운동비	① 선교통신 문서선교비 (인쇄, 발송)		7,981.46
	②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미납금 완납)		35,352.41
	총액		43,333.87
총액			110,734.36

● 2014 회계년도 일반후원현황

2013년 11월 - 2014년 10월

목사/개인	교회/기관	작성액(월)	현금액	목사/개인	교회/기관	작성액(월)	현금액
고석희 목사	지구촌선교교회	500	6,000	이문연 목사	내쉬빌한인성신교회		100
고인호 목사	PCA교단	100	1,200	이상진 장로	타코마중앙장로교회	200	2,400
김남수 목사	프라미스교회	500	6,000	이용걸 목사	필라영생교회	100	1,200
김동선 목사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200	2,400	이지용 목사	뉴욕갯세마네교회		150
김만우 목사	중동지역선교사협의회	100	1,200	임철성 목사	맥클린한인장로교회	100	1,200
김수태 목사	어린양교회	100	1,200	임현수 목사	토론토큰빛교회	500	5,609
김충직 목사	생명수세계선교회	50	600	장동찬 목사	뉴저지베다니교회	300	3,600
김혜택 목사	뉴욕총신장로교회	500	6,000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500	6,000
나광삼 목사	큰무리교회	500	6,000	장춘원 목사	뉴라이프교회	100	1,200
남궁전 목사	아틀란타베다니감리교회	100	600	제석호 목사	국제공동체교회	50	600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100	1,200	조진모 목사	필라한인연합교회	125	1,875
류효명 장로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150	1,800	지용주 목사	시라큐스한인교회	200	2,400
명치호 목사	달라스영락교회	100	1,200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500	6,000
배현찬 목사	주예수교회	500	6,000	호성기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500	6,000
백상만 목사	밴쿠버두란노한인교회		300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500	6,000				
성현경 목사	가스펠헬로우십교회		600				
송성자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500				
송제임스 목사	헬로우십교회	100	1,200				
안영섭 목사	한인크리스천교회		1,000				
오벤자민 목사	사랑과진리교회		300				
유승원 목사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300	3,600				
유재송 장로	휴스턴한인장로교회		900				
윤규형 목사	등대교회	50	600				
윤정용 목사	아리조나템피장로교회	150	1,800				
윤사무엘 목사	감람산교회	100	300				
				총액		101,934	

● 2015 회계년도 예산안

2014년 11월 - 2015년 10월

I. 수입			
	①	2015 회계년도 일반선교비	150,000.00
	②	2014 회계년도 이월금	38,487.54
			<u>188,487.54</u>
II. 지출			
1. 인건비	①	사례비	70,000.00
	②	세금	7,000.00
			<u>77,000.00</u>
2. 사무행정비	①	전기세	4,000.00
	②	사무용품비	7,000.00
	③	비품비	4,400.00
	④	전문수수료	2,000.00
			<u>17,000.00</u>
3. 선교활동비	①	전화비	6,000.00
	②	우송비	5,000.00
	③	회의준비비	2,000.00
	④	여행비	4,000.00
	⑤	행정비	5,000.00
			<u>26,000.00</u>
4. 선교운동비			40,000.00
총계			<u>1,600,000.00</u>

KWMMC

협력선교운동아젠다



한국선교사 파송현황

2013년 12월말 통계 - KWMA

- 169개국 25,745명



KWMA 연구개발실 KWMA

한국 선교의 수치조사를 통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2013년 한국 선교사 현황 조사'가 회원 및 비회원 단체들의 협력 하에 실시되었다. 선교사 현황 조사에서 정리되는 수치들은 선교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제 몫을 하고 있는 '한국 선교'를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선교의 모판인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태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송 선교사 수는 약 1,000명 대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말까지의 조사 결과는 169개국 25,745명(이중 소족 제외된 실 선교사 수)으로 2012년에 비해 1,003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조사는 KWMA의 회원 교단과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통계 조사에 협조해 준 비회원까지 포함된 결과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단체들이 있으며, 한국 선교사 파송의 독특한 면으로도 볼 수 있는 개 교회 또는 노회(지방회) 단위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는 조사 범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 수는 언제나 조사된 수보다는 상회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 응답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수

교단 및 선교단체 선교사 파송

구분	조사대상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소속(명)
교단(선교부)	39	11,482	43.11%	358
선교단체	216	15,191	56.89%	1,558
합계	255	26,703	100.00%	1,916

대형 교단의 파송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가 교단 선교사 수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2.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13년의 전체 실 선교사 수는 25,74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이중소속 선교사 수의 절반을 뺀 숫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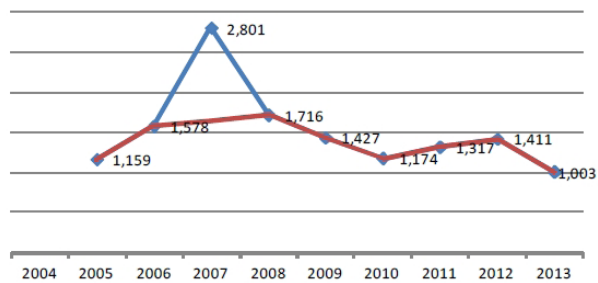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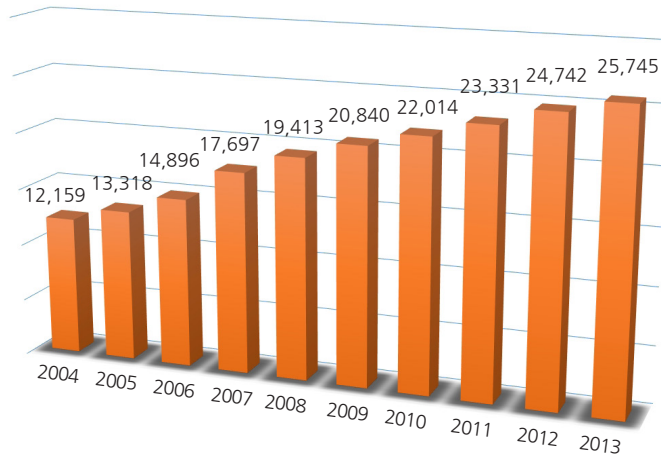
1) 연도별 선교사 현황

연도별 선교사 현황 (2004년-2012년) (단위/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파송선교사	12,159	14,086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26,703
이중소속	-	1,536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1,916
실제 파송선교사	12,159	13,318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5,745

2)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

연도	증가수(명)
2004	-
2005	1,159
2006	1,578
2007	2,801
2008	1,716
2009	1,427
2010	1,174
2011	1,317
2012	1,411
2013	1,003



*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폭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2007년부터 조사 대상에 비회원을 포함하여 확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3.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파송 현황

선교단체의 수가 교단 선교부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선교사 파송 수도 단체 파송 합계가 교단 선교부보다 많다. 교단 전체적으로는 선교사 파송이 크게 늘지 않았는데, 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는 GMS(합동), 통합, 그리고 감리회 선교국이 2012년에 비해 평균 50명 정도의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파송 선교사 수가 많은 단체들 역시 예년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두란노해외선교회 56명(2012년 380명에서 2013년 436명), 인터콥이 34명(2012년 762명에서 2013년 796명), 바울선교회가 13명(2012년 398명에서 2013년 41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타겟 2030비전으로 본 개척지수별 선교사 현황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 선교사 수에 비추어 본 2013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선교지역인 G2, G1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26,703명) 가운데 11,102명(42%)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방개척 지역인 F1, F2, F3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15,601명(58%)으로 나타나서 일반 선교 지역보다 전방개척 지역의 선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선교사 측면에서 본다면 G2 지역은 벌써 과잉 상태로 선교사의 중복투자 점검, 그리고 그에 따른 선교사 재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한국 선교는 일반선교(G) 지역인 G2, G1 지역보다는 전방개척선교가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국가 수	2013년 파송국가 수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 선교사	2013년 파송선교사	2030년까지 더 필요한 한국 선교사	2030년 대비 2012년 파송율	2030년까지 필요한 세계 선교사
F1	11	10	22,316	4,424	17,892	19.80%	102,840
F2	41	40	9,911	5,834	4,077	58.90%	45,694
F3	43	38	58,890	4,737	54,153	8.00%	271,433
G1	74	43	4,733	3,354	1,379	70.90%	21,811
G2	53	38	4,150	7,316	-3,166	176.30%	19,124
계	222	169	100,000	25,665	74,335	25.70%	460,902

* 참고: G는 General Missions 그리고 F는 Frontier Missions의 약자이다. G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이상인 경우, G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10%-15.5%미만이며 이중 기독교인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 한국의 것보다 더 큰 경우, F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5%이상에서 10%미만인 경우이며, F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F3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5. 가장 많이 활동하는 선교지

한국 선교사들의 상위 활동지역은 몇 년 동안 거의 변동 없이 동북아X국, 미국, 필리핀, 일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캄보디아,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교사들의 전체 활동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에 전체 선교사의 50% 이상이 활동하고 있어 10대 선교국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주력 부대가 활약하고 있는 지역이며, 그중 동북아X국, 일본,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전략 선교지역임을 한국 선교계가 인식하고 있다. 미국, 필리핀, 러시아, 독일에서의 전통적 선교는 자생하는 미전도종족이나 해외에서 이주한 소수 미전도종족 선교로 목표가 이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대 파송국가

번호	국가명	개척지수	권역	사역단체 수(개)	전체 선교사 수(명)
1	동북아X국	F1	동북아시아	150	4,169
2	미국	G2	북아메리카	76	2,614
3	필리핀	G2	동남아시아	89	1,602
4	일본	F2	동북아시아	88	1,480
5	인도	F3	남아시아	77	897
6	태국	F2	동남아시아	61	781
7	인도네시아	F3	동남아시아	52	682
8	러시아/연해주	F2	동유럽	59	618
9	캄보디아	F2	동남아시아	74	603
10	독일	G1	서유럽	28	558
합계/비율					14,084 / 52.74%
전체 선교사 수					26,703

6.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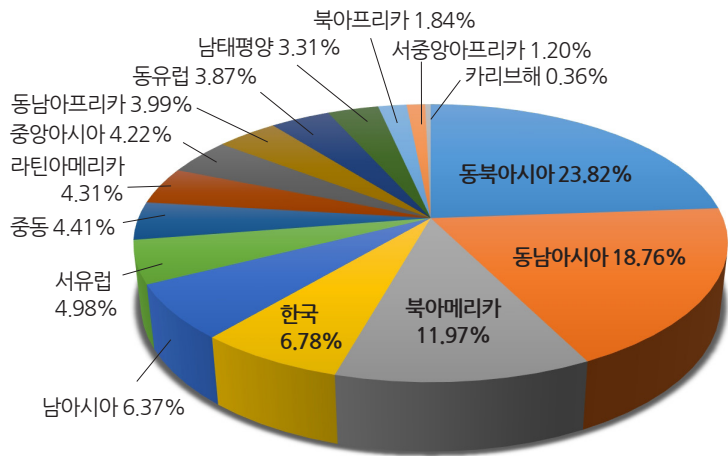
응답한 것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사역은 예년과 동일하게 교회개척, 제자훈련, 캠퍼스사역, 교육사역 순으로 이어진다. 500명 이상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척	136	10,693
제자훈련	140	8,612
캠퍼스	73	2,499
교육	75	1,361
복지/개발	70	819
의료	50	515
총계		24,499

7. 지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그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6,360명)와 동남아시아(5,009명)에 만 명 이상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는 전체 선교사가 25,745명이라고 할 때 거의 1/2 정도가 이곳에 있는 셈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 되지 않은 지역인 아시아에 한국 선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북미주이며, 네 번째인 한국 본부 사역자 수도 높는데, 그 이유는 선교행정 및 동원 선교사 그리고 비거주 순회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역	선교사 수
동북아시아	6,360
동남아시아	5,009
북아메리카	3,149
한국	1,810
남아시아	1,700
서유럽	1,329
중동	1,177
라틴아메리카	1,152
중앙아시아	1,127
동남아프리카	1,066
동유럽	1,003
남태평양	884
북아프리카	491
서중앙아프리카	320
카리브해	96
합계	26,703



8. 선교사 자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녀 수(명)	5,961	7,380	10,433	11,885	12,674	13,868	14,200	15,913	16,586	17,618

9.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1) 전방개척 지역으로의 파송의 확대

2006년 NCOWE IV에서 제시된 전방개척지별 필요한 선교사 예측 수는 한국 선교사들의 활동 선교지에 대한 균형 감각을 점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틀이다. 지난 해 통계 조사 발표 되었던 2009년과 2012년의 '개척지수별 추이 현상 비교'에 2013년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전방개척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일반 선교 지역으로의 파송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G2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가장 많은 증가(전년 대비 331명)를 보이고 있다.

개척지수별 추이 현상에 대한 비교

(단위/명)	2009년	2012년	2013년	증가	증가율
F1	4,062	4,424	4,564	362	10.20%
F2	5,075	5,834	6,034	759	21.40%
F3	4,189	4,737	5,003	548	15.50%
G1	2,878	3,354	3,455	476	13.40%
G2	5,926	7,316	7,647	1,390	39.30%
합계	22,130	25,665	26,703	3,535	100%

(선교사 합계는 이중 소속 포함된 전체 선교사 수임.)

G2에는 한국도 포함하였으며 본부사역자, 비거주 순회선교사, 인턴선교사들이 해당된다. 여전히 G1, G2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지만 전방개척 지역도 꾸준히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상위 10개국에 50% 이상 선교사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전방개척지역으로의 선교사 증가는 일부 지역 국가에 해당되고 있음을 수치를 분석해 보면 알게 된다.

2. 2012년 개척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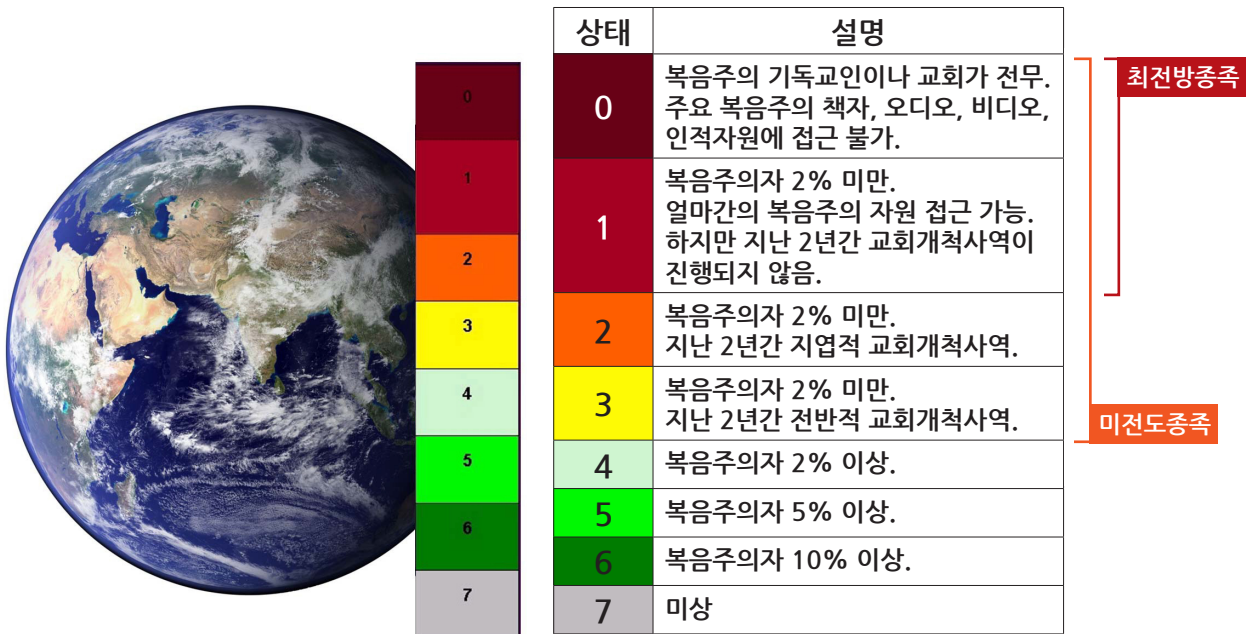
KWMA는 통계 시스템을 개발한 201년부터 통계조사가 용이하고 수치의 오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약점을 발견하면서 시정해 나가는 중이다. 시스템 개발 이후 3년째 조사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통계 조사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가가 더 중요하며, 시스템만이 완벽해서 잘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KWMA는 조사 대상의 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단체는 물론이고, 비회원 등 조사의 폭을 넓혀서 통계를 모으도록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수를 추정해 보는 시도까지 하였다.

선교사 파송에 대한 수치 파악은 선교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기초적인 분석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숫자가 나타내는 이면을 잘 읽어내면 어떤 선교적 과제들이 있는가를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해 가기 위한 방법이나 전략들을 예견해 볼 수 있게 한다. 양적 성장을 수치로 보면서 점검해야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수치를 통해 전방개척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전방개척 선교가 강조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 현황 조사는 의례적인 조사가 아니라 목적을 갖고 조사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적극적인 회원단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금년 통계조사에는 일부 단체가 자신들의 '사정'에 의해 응답을 우회적으로 거절하기도 하였다. 결국 그러한 단체는 통계에서 누락될 수도 있게 된다. 한국 선교는 어려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한국 선교를 계속 자성적으로 분석해 보는' 겸비된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양적 성장을 보여주는 통계 조사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시 한 번 이 지면을 통해 한국 선교의 균형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통계 조사에 협조해 준 모든 단체들에게 감사드린다.

복음주의 기독교의 전세계 현황

2014년 9월 (출처: Global Research, IM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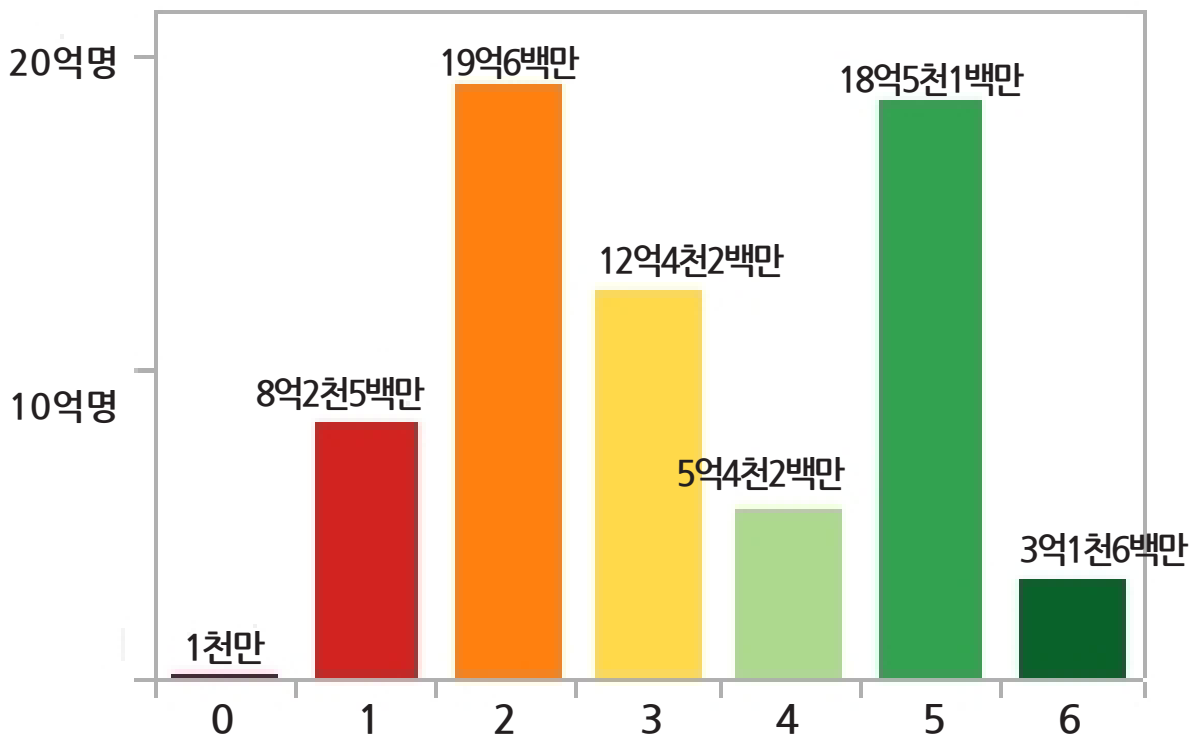
● 복음주의 기독교의 전세계 현황 모델



● 종족그룹별 복음주의 기독교 현황

상태	종족그룹		인구	
	개수	비율	명수	비율
0	491 개	4.4%	10,180,080 명	0.1%
1	4,078 개	36.3%	829,982,630 명	11.8%
2	1,653 개	14.7%	1,940,181,500 명	27.5%
3	323 개	2.9%	1,250,517,400 명	17.7%
4	1,329 개	11.8%	557,849,840 명	7.9%
5	1,421 개	12.6%	1,890,503,000 명	26.8%
6	1,940 개	17.3%	567,264,965 명	8.1%
전체	11,235 개	100.0%	7,046,479,415 명	100.0%

● 종족그룹 인구수



7,046,479,415명

전세계 인구

4,030,861,610명

미전도종족 인구 (복음주의 기독교인 2% 미만)

205,232,525명

미전도종족 중 입양은 되었으나 아직 복음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인구

128,214,8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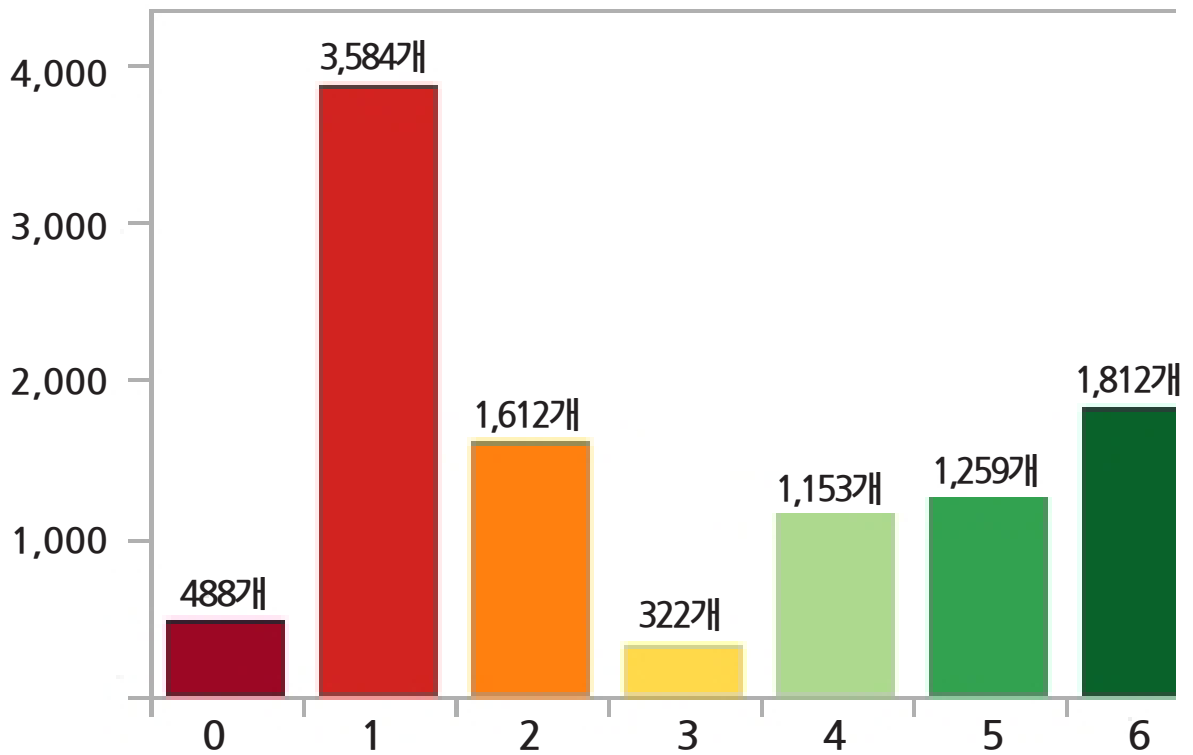
미전도종족 중 아무에게도 입양되지 않은 인구

Level 0-3 : 미전도종족

Level 0-1 : 최전방 미전도 종족

Level 4-6 : 더 이상 미전도 상태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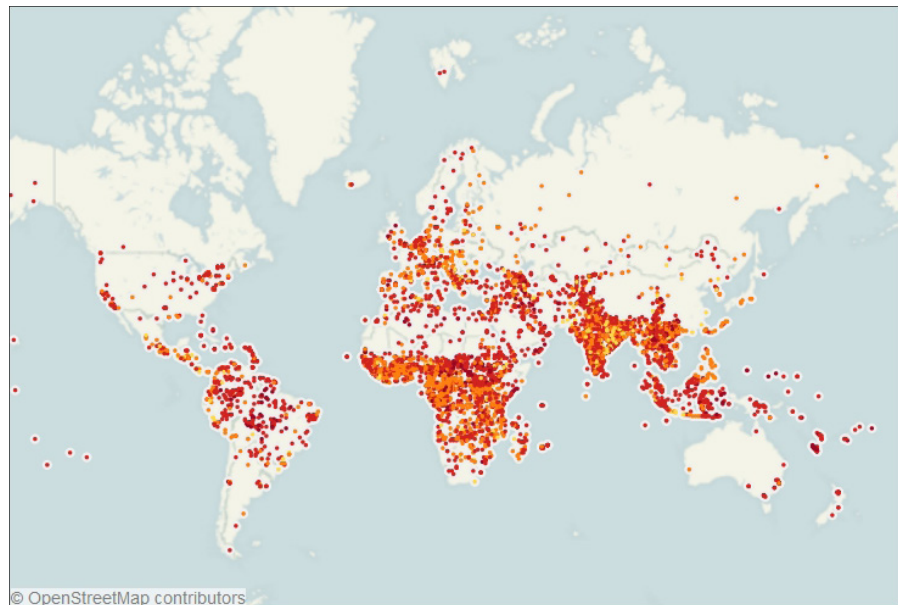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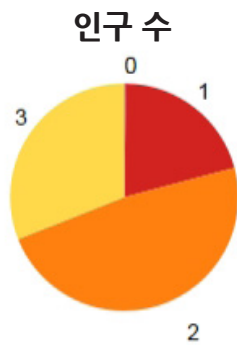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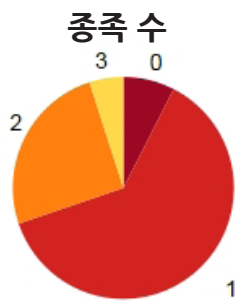
● 종족그룹 수



11,235개	전체 종족 수
6,545개	복음주의 기독교인 2% 미만 종족 수
3,004개	아직 복음사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종족 수
339개	위의 종족 중 인구 10만 이상 종족 수

Level 0-3 : 미전도종족
 Level 0-1 : 최전방 미전도 종족
 Level 4-6 : 더 이상 미전도 상태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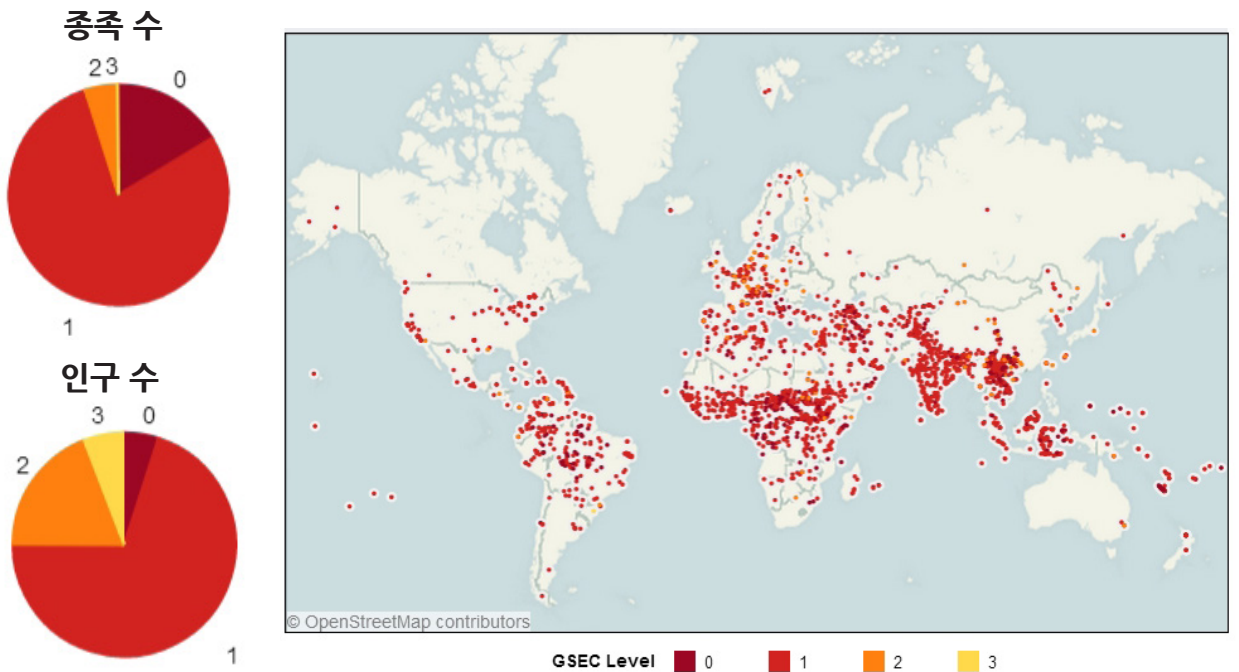
● 미전도종족 Unreached People Groups



GSEC Level 0 1 2 3

상태	종족그룹		인구	
	개수	비율	명수	비율
0	491 개	7.5%	10,180,080 명	0.3%
1	4,078 개	62.3%	829,982,630 명	20.6%
2	1,653 개	25.3%	1,940,181,500 명	48.1%
3	323 개	4.9%	1,250,517,400 명	31.0%
전체	6,545 개	100.0%	7,046,479,415 명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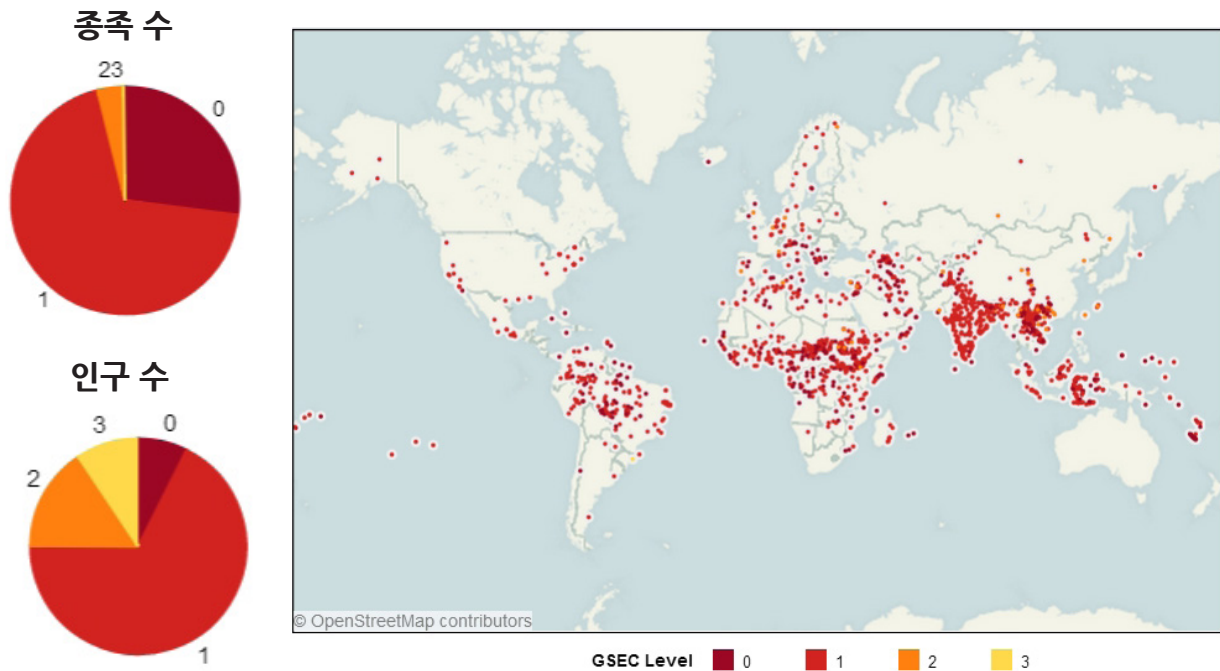
● 미연계 미전도종족 UPGs Not Engaged by Anyone



상태	종족그룹		인구	
0	491 개	16.3%	10,180,080 명	5.0%
1	2,365 개	78.7%	143,912,345 명	70.1%
2	144 개	4.8%	39,129,600 명	19.1%
3	4 개	0.1%	12,010,500 명	5.9%
전체	3,004 개	100.0%	205,232,525 명	100.0%

10만 이상의 UUPG : 339개 147,115,000명

● 미입양 미전도종족 UPGs Not Engaged by Anyone Any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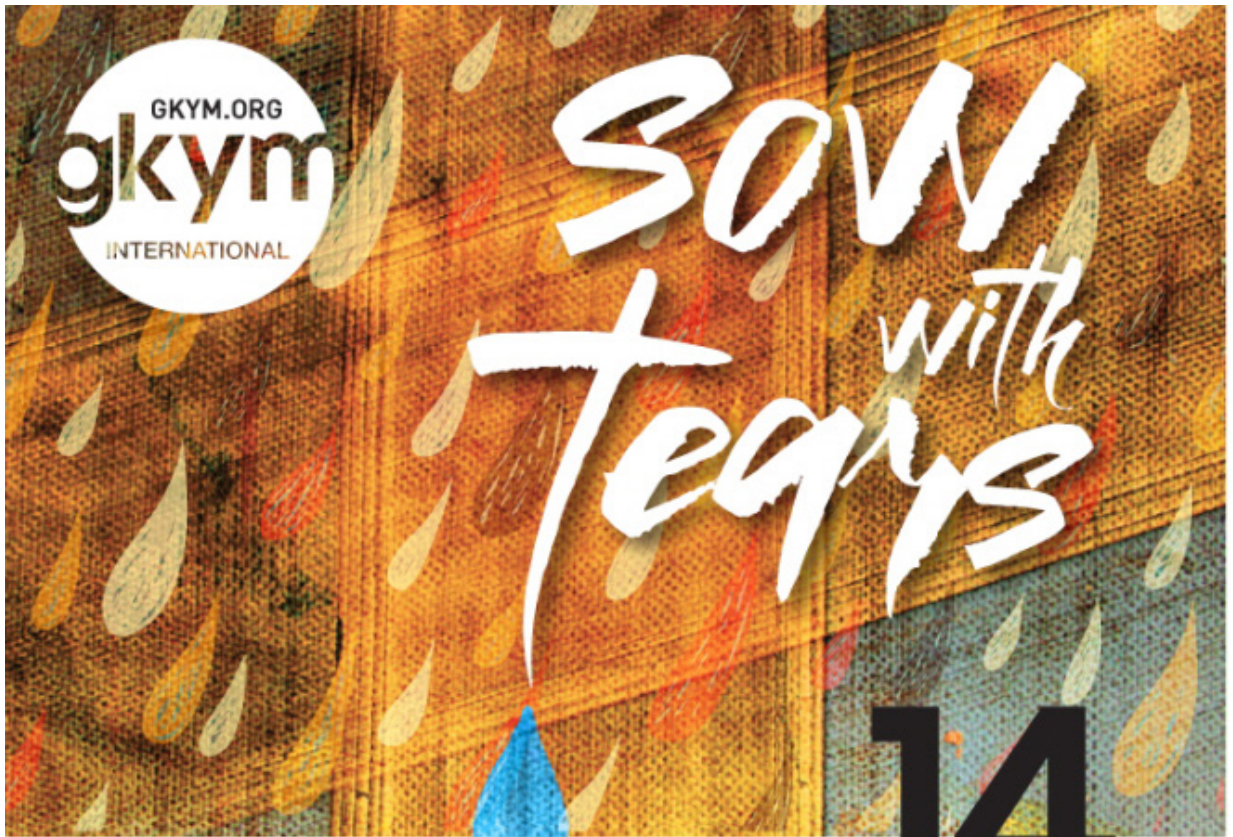
상태	종족그룹		인구	
	개	%	명	%
0	458 개	27.1%	9,499,220 명	714%
1	1,169 개	69.0%	86,798,060 명	67.7%
2	62 개	3.7%	19,907,100 명	15.5%
3	4 개	0.2%	12,010,500 명	9.4%
전체	1,693 개	100.0%	128,214,880 명	100.0%

방치된 미전도종족 : 32개

방치된 미전도종족이란 5만명 이상의 미전도종족으로 아직 아무도 입양하지 않고 입양계획도 없는, 아무 복음사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종족을 말한다.

GKYM 토론토'14

로체스터 12/25-28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14 TORONTO

GLOBAL KINGDOM YOUNG ADULTS MISSIONS FESTIVAL

DEC 28-31
TORONTO CONGRESS CENTRE



12월 28일(일)-31일(수)

[일반] \$150 / [키즈] \$75 / [목회자가족] \$100 (1차 마감 / 10월 31일)
[일반] \$200 / [키즈] \$100 / [목회자가족] \$150 (2차 마감 / 11월 30일)
[일반] \$250 / [키즈] \$125 / [목회자가족] \$200 (3차 마감 / 12월 26일)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CAD)

● 등록 REGISTRATION

USA : (551) 486-0100
CANADA : (647) 969-7729
E-MAIL : gkym.toronto@gmail.com
GKYM International - P.O.Box 30173
Rexdale, Etobicocki, Ontario, CANADA

● 문의 CONTACT US

Toronto Congress Centre
650 Dixon Rd, Toronto M9W 1J3, CANADA

● 장소 VENUE

WWW.GKYM.ORG



GKYM FEST IS

전세계 흠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향한 선교운동입니다.

하나님은 해외의 한인 청년과 한국의 청년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자원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아시안이라는 장점, 탁월한 언어 능력, 타 문화에 대한 적응, 1세대들의 신앙의 열정을 물려받은 한국의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세계 UUPG(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S) 복음화의 마지막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교회연합 선교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계의 모든 한인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전 세계에 남아있는 3,300여개의 미전도미접촉 종족(UUPG)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한 비전을 품고 북미와 한국의 청년들을 선교의 자원들로 동원하는 일은 가장 시급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 모든 교회가 연합할 이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 GKYM 역사

- 2008년 12월 제1차 GKYM 대회가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림
- 2009년 12월 제2차 GKYM 대회가 미동부 (캐나다 포함) 로체스터 뉴욕에서 열림
- 2010년 12월 제3차 GKYM 대회가 미서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열림
- 2011년 12월 제 4차 GKYM 대회가 미동부 (캐나다 포함) 로체스터 뉴욕에서 열림
- 제5차 GKYM 대회가 미서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서 열림
- 2012년 7월 제6차 GKYM 대회가 시카고 워튼대학에서 KWMC와 함께 열림
- 2013년 12월 제7차 GKYM 대회가 미동부 (캐나다 포함)대회로 로체스터 뉴욕에서 열림
- 제8차 GKYM 대회가 한국 서울에서 열림

● GKYM 토론토'14 초청의 글



임현숙 목사

토론토 GKYM 대표대회장
국제 Global Assistance Partners (GAP) 대표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21세기 최대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지킴 대회도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들어 갈 것 입니다.

100여년 전에 일어났던 북미의 부흥운동이 선교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한국과 일본과 중국등 아시아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나라

라는 명실공히 가장 강력한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이기 시작하는 지킴대회도 앞으로 10년 30년 후에는 마지막 보루처럼 남아있는 무교회 지역과 종족은 물론 북한 땅에도 수 만개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선교의 업적은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앞당기는 하늘의 축제로 알려 지게 될 것 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는 현장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십시오.오셔서 함께 마지막 임무를 완성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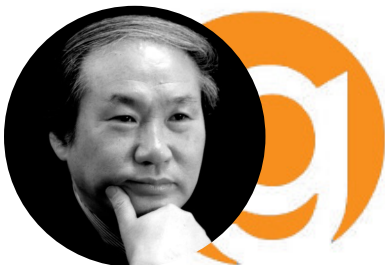


미동멸 선교사

GKYM 사무총장
Global Assistance Partners (GAP) 아이티 선교사
KWMC차세대선교동원운동본부장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한민족을 세계 곳곳에 흩으셨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였고 우리를 다음 세대를 향한 위대한 선교의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GKYM은 전세계 180개국에 흩어져있는 7백5십만 1세, 2세 한인디아스포라를 향한 선교 운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지난 2008년 GKYM 운동이 시작되면서 지난 선교대회까지 천여명이 넘는 청년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건입니다. 지난 1974년 한국에서 열렸던 세계복음대회에서 당시 청년으로서 선교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저는 지금 이렇게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KYM대회에 오는 청년들이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일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GKYM운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달성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석희 목사

KWMC 사무총장
지구촌선교교회담임

GKYM, 위대한 역사의 견인차가 되라!

하나님의 「선교의 영 (Mission Spirit)」은 19세기 말엽 위대한 전도자 무디와 피어슨 등의 영적 감동력, 프린스턴대학 졸업생 로버트 윌더의 선교적 비전, 코넬 대학생 존 모트의 천재적 조직력을 사용하여 당시 북아메리카를 풍미한 「대학생 자원 해외선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일으켰다.

당시 성령의 선교적 충동에 도전받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이라는 찬란한 비전성명을 외쳤다.

그들은 서기 1900년까지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을 끝내고자 하는 비장한 환상과 열정을 불태우며, 동시대 교회들의 선교적 대각성을 독촉하며 오대양 육대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위대한 비전은 세계선교운동사에 빛나는 대약진의 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혼잡한 언어를 땅끝까지 정복하는 지상명령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사명의 쟁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역사의 휘장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그들은 갔다. 역사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향한 그들의 불타는 비전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비전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비전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들의 심장을 불태웠던 그 위대한 비전,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들의 심장을 불태우고 있지 않는가!

GKYM 청년선교운동이 위대한 저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대학생자원해외선교운동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는 성령의 견인차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정국 목사

KWMA 사무총장

멀리 서울서 응원합니다.

세계 선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25,745명의 한인 선교사들이 169국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에서만 나간 숫자인데, 북미국 비롯한 전세계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까지 합치면 과히 선교대국 소리를 충분히 들을만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니다. 선교지에서 부르는 포도원의 주님의 음성을 듣노라면 우리 GKYM의 젊은 일꾼들이 생각납니다. 어디가나 한 민족은 교회세우는 천재들이 되었고, 이것은 전세계 민족교회에 귀감이 될만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로 움직이는 많은 한인 젊은이들이 일어나길 간곡히 기도하며,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종국 선교사

KWMA(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GKYM,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로 일어서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기까지 모세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였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40년

의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였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워 피하고 싶은 자리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광야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이, 우리 한인 1.5세와 2세들을 광야와 같은 먼 타국 땅에서 훈련시키셨다. 문화와 언어의 훈련, 기도와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다. 오늘의 나를 빚어내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자리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땅으로 우리를 옮기고자 하신다. 우리를 위대한 선교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고자 하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 2:13) 누가 그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청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와 같이 자신의 편안함과 익숙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 나갈 자 누구인가? 청년의 시기에 무엇에 사로잡혀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울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이번 GKYM 대회가 내 자신을 향한 위대한 비전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열방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축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노희송 목사

토론토 GKYM 대표대회장
뉴홈 펠로십 목사
큰빛교회 EM 목사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사

람가운데 일하셔서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넘어 각 세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

름부으심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일으켜 U.U.P.G (미전도종족) 를 포함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삼고 계심을 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GKYM (세계청년한인선교대회) 는 2008년 나이아가라에서 2000명 이상의 청년들로 시작되었고, 그

들중 대부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GKYM 운

동이 미국의 로체스터, 샌디에고, 시카고 그리고 한국에까지 많은 청년들을 동원하고 참가하기 위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8년동안 토론토 지역과, 몬트리올, 오타와, 미시간, 그리고 뉴욕지역 청년과 교회들을 이 선교운동에 동원한 뒤, 이 대

회를 이번에 다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다시 가지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 GKYM 운

동에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환영합니다.



리사박 목사

GKYM 행정팀장
큰빛교회 EMHC 목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전형적인 패턴인, 학교, 그리고 졸업, 그리고 성인으로써의 삶? 강의시간에 앉아있거나, 버스에 서있거나, 그냥 문득 생각을 해본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이것보다 다른것이 분명히 있을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것 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당신에게 “일상적인것, 평범한 삶”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의 당신이 따분하게 생각한다면, 일반적인 것 이상의 것을 경험할수 있는 깊은 열망을 가질수 있게 자기 자신을 깨우길 생각하십시오. 최소이상의, 보통 이상의, 기대 이상의...

젊은 청년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섬길 때, 적용하기 위해 찾는 두 가지 사역철학이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 그의 비전, 그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이해할수 있다는 것에 대한 능력을 과소평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소년들이 뚜렷한 관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하나님과, 그의 사랑, 그의 비전, 그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과소평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빠져있는 것 처럼 보이고 당신을 빠뜨리기 위해 세상은 훌륭한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깊고 높은 곳을 향하여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았고 그분의 존재 하심 이외에 어떤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미 구하고 있고 종말에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GKYM 대회의 모든 리더와 스태프들은 영감을 주고, 도전하고, 변화하고, 분명하고 완전한 세대의 리더십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

GKYM YOUTH 로 오십시오! 예배를 경험하세요.
그곳에서 모두 뵙겠습니다.

GKYM 토론토 '14 주강사



임현수 GKYM Internatioal 총재

GKYM International 총재, Global Assistant Partners(GAP) 대표회장, 큰빛교회 담임
CCC 스텝으로 10년간 봉사.



룩미스 복시 Partners Internationl, CEO

Partners Interantioal CEO, AD 2000 & Beyond Movement 디렉터,
Transform World Connections 국제 촉진자, "10/40"창 주창자



S. 켈트 파크 ACT Beyond 회장 및 CEO

ACT Beyond 회장 및 CEO, Ethne 공동 촉진자, 미전도종족극복 선교운동에 전략적 코디네이터로 참여,
World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멤버, 로잔의회 미전도종족선교 위원



에릭 사무엘 팀 No One Underground 창설자

No One Underground, 501c3, Painting Hope 창설자, 노스센츄럴대학 커뮤니케이션 강사,
연설가, 작가, 예술가.



개리 V. 넬슨 틴데일신학교 총장

틴데일대학 및 신학교 총장, 캐나다침례교연합 사무총장으로 사역, Baptist World Alliance 부회장.



콜린 허빈슨 StoneWorks 국제디렉터

StoneWorks 국제디렉터



마크희 IN2교회 담임

온누리교회 뉴욕지교회인 IN2교회 담임. 전 온누리교회 국제사역 디렉터, 프라미스교회에서 사역,
고든켄웰신학교(B.A.), 비블리컬신학교(M.Div.)



김봉의 선교사

World Mobile Mission 회장, 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 훈련, 네트워킹 사역



민찬로 케냐 선교사

케냐 선교사, 케냐에 10개 교회 개척 및 지도자 양육. 한국국가훈장 수여

● GKYM 토론토'14 주강사



김세진 장애인국가대표 수영선수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 U-19 국제장애인수영대회 3회 우승,
전국장애인청소년스포츠페스티벌 7회 우승.



유문성 CCM 가수

한국 CCM 가수, 2002년 1집 '소중한 너를 위해' 외 4집까지 발표.



김정화 배우

이승환의 뮤직비디오로 데뷔, 드라마, 영화, 뮤지컬 배우로 활동.



한희준 가수

2012년 아메리칸아이돌 시즌 11에서 9위, 2013년 K팝스타 최종 6인에 선발.

GKYM 토론토'14 스케줄

	12/28 (Sun/일) Celebration	12/29 (Mon/월) Conviction	12/30 (Tues/화) Commitment	12/31 (Wed/수) Commission
06:30 AM	Staff Devotional /Meeting	Morning Prayer Service 새벽기도		
08:00 AM		Breakfast 아침식사		
09:00 AM	Registration 등록	Plenary ② 아침예배 KM & EM	Plenary ④ 아침예배 KM & EM	Plenary ⑥ 아침예배 KM & EM
12:15 PM		Lunch 점심식사		
2:00 PM		Seminars 세미나		Wrap-Up Clean Up 마무리 및 청소
3:30 PM		Seminars/Panel ① 세미나/패널	Seminars/Panel ② 세미나/패널	
6:00 PM	Dinner 저녁식사			
8:00 PM	Plenary ① 개회예배	Plenary ③ 저녁예배	Plenary ⑤ 마침예배	
11:00 PM	Praise & Prayer Concert 경배와 찬양	Praise & Prayer Concert 경배와 찬양	Commissioning Concert for 2015 2015년 파송예배	

● GKYM 토론토'14 세미나

2일간 4개의 세미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ission Perspective 선교적 관점 가지기
These seminars will give you an overall introduction to world missions. 세계선교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다.
Mission Strategy 선교전략
These seminars will deal with specific mission strategy for today's world mission as shared by missionaries, pastors, and professors based on their experiences and study on the mission field. 선교지 현장과 목회, 신학교에서 선교사, 목사, 교수들이 경험한 오늘날 세계선교에 있어 요청되어지는 선교 전략을 나눈다.
UUPG 미접촉미전도종족
These seminars focus on missions to the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s (UUPG) and highlights GKYM's UUPG direction and vision. 미전도종족과 UUPG(최우선미접촉미전도종족)를 향한 선교사역과 GKYM의 이들을 향한 비전을 나눈다.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선교
These seminars will focus on mission work through finance as well as professional missions. It is recommended for young adults who are interested in financially committing to world missions as well as career/working professionals. 전문인과 재정을 통한 선교사역을 다룬다.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 세계선교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경력도 쌓을 수 있는 길이다.
History 역사
These seminars will biblically and historically narrate the story of God's mission in the world. It will present the history of world mission more specifically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Church and the Korean Diaspora.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성경적,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특히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에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GKYM Leadership GKYM 리더쉽
These seminars are recommended for those wishing to serve the GKYM movement as core members or as staff. They will prepare and train you to serve the conference and mission movement. GKYM선교운동에 스텝으로 동참하고 싶은 이들에게 권하는 세미나. 선교대회와 선교운동에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
Mission Field 선교현장
These seminars will present different mission fields and mission testimonies/reports by pastors and missionaries. 목회자/선교사들의 선교현장에 대한 소개와 간증
Women in Missions 여성과 선교
These seminars share the role of women in world mission today. 오늘날 세계선교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나눈다.
Church and Missions 교회와 선교
These seminars proclaim the absolute importance of the church's call and role to world mission. It will also deal with church mobilization and present church's missional paradigm for world mission. 세계선교에 있어 교회의 절대적이고 중대한 소명과 역할을 다룬다. 또한 교회를 선교로 동원하는 것과 교회의 선교적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본다.
For Christian Counseling 상담을 원할 경우
There will also be Christian counseling available during the conference during the seminar times. The sign-up for counseling sessions will be done in a booth during the conference. If you would like to sign-up, please leave at least one seminar time frame empty. 대회기간 및 세미나 시간에 신청하면 크리스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pecial Seminars 특별세미나
Pastors' Seminar (KM) 목회자 세미나 (한어권) MK/PK Seminar MK/PK 세미나

● GKYM 토론토'14 후원

GKYM대회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인디아스포라 청년들을 동원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선교운동입니다.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선교단체가 주도하는 선교축제가 아닙니다.

북미주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5,000여 교회가 참여하고 또한 주역이 되어 청년들을 이 마지막 시대 세계선교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로, 선교 차세대로 세우기 위한 축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GKYM준비위원회는 세계선교를 이끌어가고 계신 선교 전략가들, 영적인 목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 각 분야에 탁월한 강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또한 5,000명의 청년들이 소액의 등록비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남은 과업을 완수할 선교 차세대,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일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KYM 후원팀



● 온라인 결제

- Paypal이나 일반 크레딧 카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Check 또는 Money Order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PO Box 30173 Rexdale Etobicoke, Ontario

Make Payable To: GKYM International

● 문의

GKYM 행정팀

Tel: Tel: 647-969-7729 (Canada) or 551-486-0100 (USA) / Email: gkym.toronto@gmail.com

KWMA 2014 세계선교대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79개 중소도시 선교페스티벌



2014 MISSION FESTIVAL

79개 중소도시 선교페스티벌

신속한 세계복음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계 7:9]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 W M A Korean World Missions Association

2014 세계선교대회 출정식

● 5.28(수) 여의도순복음교회

2014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 5.27(화)-28(수) 여의도순복음교회

NCOWE VI

● 7.14(월)-16(수) Acts 비전빌리지

연합 RCOWE

● 7.16(수)-18(금) Acts 비전빌리지

선교한국 2014 대회

● 7.28(월)-8.2(토) 평택대학교

계층별 선교대회

● 6-7월 중

어린이/청소년/청장년 전문인 캠프

● 6.23(월)-28(토) 어린이, 청소년, 청년 MK

NCOWE 적용대회(변혁한국)

● 10.1(수)-4(토) 할렐루야교회

2014년은 알렌 선교사가 부산에 첫 발을 내딘 지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맞아 그간 은혜를 많이 입은 한국선교계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신학으로서의 한국신학 그리고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선교학 정립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모읍시다. KWMA는 5월부터 10월 초까지 연속되는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전략회의를 통해 한국선교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많은 중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 개요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의 위기적 상황을 돌아보면서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를 모색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선교지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를 도움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선교가 다시 세계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일시	2014년 7월 14일 (월) ~ 16일 (수), 2박3일간
장소	ACTS29 비전 빌리지
대상	선교사, 선교지도자, 목회자, 선교 관심자
표어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주제	선교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의 위기와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정립
공동주최	KWMA, KWMF

목표

- ▶ 현재의 한국교회 위기적 상황과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의 부재 혹은 미진함의 연관성을 돌아본다.
- ▶ 그 동안 사역 경험을 통해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의 이론적 정립을 모색한다.
- ▶ 최종 목표로서 한국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가 제3세계 선교지에서 그들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숙고한다.

진행

- ▶ 전체 논문 발제들을 통해서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슈화를 도모한다.
- ▶ 세 번의 분야별 모임을 통해 각 분야별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론 정립에 대한 발제와 답변과 토론을 함으로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이론화 작업을 시도한다.
- ▶ 이번 전략회의에서 정립된 이론화 작업을 기반으로 2014년 10월에 있는 NCOWE VI 적용대회/변혁한국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시도해 본다.

● NCOWE VI 일정표

	7월 14일 (월)	7월 15일 (화)	7월 16일 (수)
06:00-07:00		아침경건회	
07:00-08:30		아침식사	
08:30-10:30		Plenary Session III [이용웅] [최형근] 세계화와 자신학회 : 신학의 글로벌화에 관한 소고 [성남용] 자신학회와 자선교학 회의 본질과 내용	Plenary Session VII [김종국] [문누가] 전문인선교 자선학회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 [임종표] 자선교학회가 한국 선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연구
10:30-11:30	접수	휴식	
11:00-12:00	개회예배 설교 이재훈 목사	Plenary Session IV [김병선] [신경규] 선교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동전성: 한국의 선교학 자가 본 서구의 두 선교신학	NCOWE VI 종합과 결의문 채택 [김연수] 종합논찬 [김승욱]
12:00-13:30	점심식사		
13:30-14:20	[한정국] 한국선교전략회의 주요 흐름 [조명순] 한국 자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 발표	Plenary Session V [유기남] [양태철] 한국 자선교학으로서의 MGMI (Missiology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RCOWE 1차 계속
14:20-14:40	휴식		
14:40-16:10	Plenary Session I [한도수] [김연수] 자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슈와 필요성 [안성호] 비서구권 자선학화 현황과 전망	분야별 전략회의 ② - 선교학	
16:10-16:40	휴식		
16:40-17:40	Plenary Session II [안성원] [조귀삼] 한국 자선학으로서의 영산신학	Plenary Session VI [조용중] [정형남] 자선학화 관점에서 본 기독교 시몬주의와 대체신학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목회자와 선교사 대토론회 [이동휘]	찬양과 말씀	
20:10-21:40	분야별 전략회의 ① - 신학	분야별 전략회의 ③ - 통합	
21:40-22:00	분야별 기도와 교제	분야별 기도와 교제	

● NCOWE VI 전체상세일정

일정	제목	강사
7/14(월)		
개회예배	설교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
Prelude	한국선교전략회의의 주요 흐름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조명순 선교사 한국형선교개발원장
Plenary I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슈와 필요성	김연수 선교사 KWMA 국제총무
	세계 자신학화의 현황과 전망	안성호 선교사 합동신학대학원
Plenary II	영산 조용기 목사 사역에 나타난 삼중축복과 자신학화	조귀삼 목사 영산신학연구소장
저녁집회	목회자와 선교사 대토론회 "한국교회 위기해법 : 이동휘 목사에게서 듣는 목회와 선교"	이동휘 목사 비울선교회 이사장
분야별 전략회의 ① 신학	신학교 사역분야에 대한 자신학화	고광석 목사 광주서광교회
	'신학교 사역분야에 대한 자신학화'에 대한 응답	김병선 선교사 Kodia 국제대표
	한국선교에서 신학교육사역에 대한 소고	김활영 선교사
	한'국선교에서 신학교육사역에 대한 소고'에 대한 응답	김병선 선교사 Kodia 국제대표
	선교연합운동에 대한 신학적 고찰	김영엽 목사 제자들선교회 DFC
	'선교연합운동에 대한 신학적 고찰'에 대한 응답	이희재 선교사 미르선교회
	멤버케어의 자신학화	이경애 선교사 MCC 공동대표
	'멤버케어의 자신학화'에 대한 논평	강병권 선교사 AIM Korea 디렉터
	선교에서 다중사역에 대한 고찰	안성원 선교사 KWMF 사무총장
	'선교에서 다중사역'에 대한 응답	허기선 선교사 PMS
	한국인 선교동원과 훈련에 대한 자신학화/자선교(학)화	한철호 선교사 선교한국파트너스 상임위원장
	'한국인 선교동원과 훈련에 대한 자신학화/자선교(학)화' 논찬	김광성 교수 주안대 선교학
	현지한인교회와 선교사역 분야에 대한 자신학화/자선교학화	한도수 선교사 브라질새생명교회 담임
	'브라질새생명한인교회 선교사역의 자신학/자선교학 발제'에 대한 논찬	남양규 목사 서울네이션즈교회 담임
7/15(화)		
아침경건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자	송충석 선교사 KWMF 공동회장
Plenary III	세계화와 자신학화	최형근 교수 서울신대 선교학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본질과 내용	성남용 목사 삼광교회
Plenary IV	선교신학에 있어서 본문과 상황의 통전성	신경규 교수 고신대 선교학
Plenary V	한국자선교학으로서의 MGMI	양태철 목사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분야별 전략회의 ② 선교학	교회개혁과 성장	김규동 목사 요한동경교회 담임
	'교회개혁과 성장'에 대한 응답	유기남 선교사 알타이선교회 대표
	한국형 제자훈련과 지도자 양성	이재환 선교사 컴미션 국제대표
	한국적 제자양육과 지도자 양성에 대한 논찬	이영철 선교사 위디선교회 대표
	학교사역에서의 한국적 선교신학화 가능성	윤순재 목사 100주년 기념교회
	'학교사역에서의 한국적 선교신학화 가능성'에 대한 응답	정기목 교수 장신대 선교신학
	현지 선교개혁과 동원	이승일 선교사 FMT 훈련디렉터
	'현지 선교개혁과 동원'에 대한 응답	문창선 선교사 위디선교회 대표
	캠퍼스사역 - 인도네시아 조이사역의 교훈들	손창남 선교사 OMF
	'인도네시아 조이사역의 교훈들'에 대한 논찬	이필립 중국대학선교회 대표
	문화선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형 선교의 한 가지 방향모색	신상남 선교사 GBT
	'문화선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형 선교의 한 가지 방향모색'의 논찬	전생명 선교사 FMnC
	교회학교 사역의 실제와 방향성	허중학 사무총장 할렐루야교회 뉴젧공동체
	'교회학교 사역의 실제와 방향성'에 대한 응답	김삼성 선교사 인도어린이전문인선교사
Plenary VI	자신학화 관점에서 본 기독교 시온주의와 대체신학	정형남 선교사
저녁집회	작은 장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동우 목사 산돌중앙교회 담임
분야별 전략회의 ③ 통합	전문인선교의 자신학화 및 자선교학화	박준범 선교사 인터서브코리아
	'전문인선교의 자신학화 및 자선교학화'에 대한 응답	전동주 선교사 세계전문인선교협회 사무총장
	내부자 자각운동으로서의 성시화운동	박수웅 목사 부산세계선교협의회 실무대표
	'내부자 자각운동으로서의 성시화운동'에 대한 논찬	이건오 원장 세계산한선교연합회장
	자신학화, 자선교학화의 관점에서의 방송선교	감경철 회장 CTS TV 회장
	감경철 회장의 NCOWE CTS 주제발표에 대하여	노충헌 기자 기독교신문 편집부장
	SICAP사역을 통한 국제개발사역의 자신학화 시도에 대한 제고	조용중 선교사 글로벌호프 대표
	'SICAP 사역...'에 대한 논평	김학유 교수 합동신대 선교학
	통일선교사역	유관지 선교사 북한교회연구원장
	자선교학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선교	이반석 목사 모퉁이돌선교회
	문서사역의 자선교학화	안드레 GMS/GBT
	'문서사역의 자선교학화'에 관한 논찬	송기드온 선교사 HOPE
	내부자 선교	오영철 GMS
	'아세안공동체와 소송불교권 선교방향'에 대한 논찬	이용웅 선교사 GP선교회
7/16(수)		
아침경건회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담임
Plenary VII	전문인선교 자신학화를 위한 신학적 방법론	문누가 선교사 치과의료선교회
	자선교학화가 한국선교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임종표 선교사 PCK 동부 아프리카
종합	NCOWE VI 종합에 대한 논찬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담임

● NCOWE VI 분야별 전략회의

	분야	발제	답변	사회	기도	기록	일시	장소
신학	신학교 사역	고광석 김활영	김병선	성남용	김종국	장완익	7.14(월) 오후 8:10- 9:40	김사무엘
	선교연합운동	김영업	이희재	정보애	문누가	김종일		킬보른
	멤버케어(위기관리)	이경애	강병권	이은용	정형남	박경남		박승철
	다중사역	안성원	허기선	김정한	오선택	고주몽		아펜젤러
	한국인선교동원과 훈련	한철호	김광성	장영호	윤바울	장성배		언더우드
	현지한인교회와 선교사역	한도수	남양규	박래수	김영주	김정희		캠벨
선교학	교회개척과 성장	김규동	유기남	김호동	박명하	백운영	7.15(화) 오후 2:40- 4:10	김사무엘
	제자훈련과 지도자 양성	이재환	이영철	이정건	공요셉	서성묵		킬보른
	학교사역	윤순재	정기목	김금찬	정상진	정성현		박승철
	현지선교개척과 동원	이승일	문창선	서승학	남궁태준	임태순		아펜젤러
	캠퍼스사역	손창남	이필립	윤모세	안성호	김수길		언더우드
	문화사역	신상남	전생명	이재경	신갈렙	이영제		캠벨
	주일학교사역	허종학	김삼성	유해석	도육환	최철		오병이어
통합	전문인선교	박준범	전동주	전형구	양태철	정금태	7.15(화) 오후 8:10- 9:40	김사무엘
	내부자자각운동	박수용	이건오	한수아	김승호	김수용		킬보른
	언론 및 방송	감경철	노충현	함태경	조귀삼	장순현		박승철
	NGO사역	조용중	김학유	김희수	장소영	강요한		아펜젤러
	북한사역	유관지	이반석	송재선	장덕후	김경술		언더우드
	문서사역	안드레	송기드온	박민하	윤규석	안태경		캠벨
	내부자선교	오영철	이용웅	김종구	김영동	강형민		오병이어

● 한국선교전략회의의 주요 흐름(3차에서 6차 회의까지)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NCOWE는 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의 약자이며 한국의 (세계) 선교전략회의이다. KWMA가 창설되던 해인 1990년에 한국선교지도자들은 햇불선교센터에서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KWMA의 첫 번째 공식 선교전략회의였다. 2차는 1995년에 서울에서 열린 GCOWE(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후속회의의 형식으로 GCOWE 대회 결의의 적용 모임이었고, 한국선교지도자들은 10/40창문 내에 있는 미전도종족 2000 집단을 AD2000까지 입양 선교하기로 헌신했다. 이상의 두 모임은 잘 준비되고 조직화된 회의는 아니었으나, 2000년 제3차 회의를 준비하면서 1990년과 1995년 두 회의를 NCOWE 1차 그리고 2차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3차 회의부터는 사전에 광범위리서치팀이 조직되어, 메인회의(Main Consultation) 이전에 사전회의(Preconsultation)를 거치는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회의로 진행되었다.

1. 제3차 선교전략회의 (AD2000)

KWMA는 20세기 마지막 10년간 선교사 파송 1,100명에서 11,000명에 이르는 불가사의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선교의 건강성 체크로서, '한국선교사들의 배치가 과연 전략적인가?'라는 질문을 갖고, 2000년도 NCOWE III를 앞두고 1년여의 걸친 광범위리서치를 통해 한국선교가 전략적 선교 및 선교의 배치에 심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이 리서치와 연속 전략회의 후에 선교사의 재배치 등에 관해 강력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후 2년간의 추가 리서치를 통해 재배치, 전진배치, 신임선교사 우선배치를 국가별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일부 재배치 대상 국가에서 심한 반발도 있었으나, 대체로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선교의 전략적인 발전에 동조하였다. 그리고 미래 한국선교에 대한 방향성 논의를 미국 Ralph Winter 박사 및 미국 세계선교센터팀과의 국제선교포럼을 거쳐, 한국선교의 확고한 방향성을 Frontier Mission(전방개척선교)로 설정하게 된다.

2. 제4차 선교전략회의 (AD2006)

2004년 여름에 제4차 선교전략회의를 앞두고 한국선교계는 고심 끝에 1980년에서 2004년 말까지 한국선교 과거 25년을 평가하고, 200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한국선교 미래 25년을 기획하게 된다. 특히 2005년도를 Half Year로 설정하여 광범위리서치팀이 한국선교 Master Plan 2030 Project 기획을 준비하게 된다. 이 리서치 결과는 2006년 제4차 선교전략회의 (NCOWE IV)에서 발표되고, 수많은 토론과정과 수정을 거쳐 Target 2030 Plan이 수립되어, 한국선교의 전방개척 발전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기획은 5년마다 전방개척 선교개발 계획으로 수립되어, 한국선교의 구체적 발전 계획을 담고 있다.

3. 제5차 선교전략회의 (AD2010)

2010년 가까이 올수록 세계선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선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서구세계의 선교가 침체일로로 걸으면서, 새로운 선교이론 생산이 거의 담보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2/3세계에서의 선교는 날로 활성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한국은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선교계는 세계선교에 있어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미래선교 개발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한국선교계가 1990년부터의 20년간의 놀라운 양적성장이 서구 개신교 선교 200년의 압축성장임을 발견하고, 후발자의 유익을 최대한 누렸다. 이것은 한국 선교학의 발전에 한계를 갖게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한국선교계는 최대한 서구선교의 Know How를 최대한 활용한 압축 모방 성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선교계는 창조적인 R&D영역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에서, 2010년 '한국개신교역사 125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행적' 찾기에 나섬으로써, 엄청난 Know How 및 미래선교의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다. 1910년에서 1994년까지 기독교 인구가 11만 명에서 1,200만 명까지 기독교인구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이론의 적용과 성공적 시행 등으로 개신교 선교의 산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자립, 자전, 자치의 Nevius 정책이 가장 잘 실현된 단일민족 교회였다. 그리고 Korean Diaspora 중에서 개척되는 교회도 자립, 자전, 자치의 3 Self Formula가 잘 실현된 Diaspora 교회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기독교인구 1,200만 명에서 지난 20년간의 한국교회는 내리막길의 성장을 경험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4. 제6차 선교전략회의를 준비하면서

2013년 한국선교계는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한국교회없이 한국선교없다'라는 가정하에, 갈수록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에 선교적으로 기여하고자 한국선교계가 진단하고 처방을 조심스럽게 내린 것이, '자신학으로서의 건전한 한국신학 개발' 그리고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선교학 정립'이 시대적 필요임을 알고,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나서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양대 선교신학회(복음주의선교신학회/ 한국선교신학회)와 KWMA는 이에 대한 Forum을 열고 본격적인 자신학과 자선교학을 연구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12년에서 2013년간 약 2년간 계속되는데, 이에 힘입어 KWMA는 2014년 KWMA 선교전략회의의 주제를 삼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과거 성장 비결인 3 Self 전략에 2 Self(자신학, 자선교학)를 추가함으로써, 미래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5 Self Formula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막상 자신학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1960년대 한국에서 시도했던 한국 자신학으로서 '민중신학' 그리고 '恨의 신학'은 그 내용이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여 복음 진영에서 거부된 역사의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 자신학의 내용이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유지하되, 그것에 한국문화의 적합한 옷을 입히고, 한국 민족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 건전한 토착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보수주의 신학이 강하였던 교단 배경의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시도인지라, 논의 과정에서 많은 열띤 토론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이미 4년 전 리서치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 개신교 125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행적' 속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갖고, 한민족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장해 온 살아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그 한국교회는 한민족의 수많은 민족사적 위기(Crisis) 속에서 한국사회를 변혁시킨(Transforming) 교회였음이 수많은 증거를 통해 드러났었다. 한국교회는 교육선교와 의료선교를 통해서 한국사회 변혁과 조국 근대화 발전에 동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 점에서 2014년 개신교 선교 전래 13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신학은 '위기와 변혁'의 토착 신학을 한국 역사 속에서 정립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시점에 와있다는 것이 우리 준비팀의 발견이었다.

5. 결어

NCOWE VI는 하루아침에 준비되지 않았다. 조명순 선교사의 리서치와 김연수 국제총무의 수고, 그리고 수많은 육고를 준비해 주신 발제자들과 응답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회의가 없을 것이다. KWMA 총무팀들은 수시로 회의를 가지면서 좋은 내용이 토론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부디 이번 NCOWE VI가 멋진 결실을 내면서 한국과 세계 선교역사 속에 새로운 지평이 되었으면 한다.

● KWMA 세계선교전략회의, 선언문 발표하고 마무리 [크리스천투데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주최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가 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NCOWE VI는 14-16일 교단과 선교단체 지도자, 목회자와 선교학자, 선교사 등 3백여명이 용인 ACTS29 비전 빌리지에 모여 '선교 관점에서 본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과 자선교 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을 주제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에서 "2014년은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지 130년 되는 해로, 과거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으나 서구 선교사들의 헌신과 신앙 선배들의 수고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25,000여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되었다" 면서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한국 사회를 변혁시켜온 살아있는 교회였으나, 작금에는 사회변혁의 동력을 상실한 채 분열과 다툼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에서는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자치·자급·자전이라는 삼자원리에 따라 자립 교회로 성장했으나, 그동안 우리는 서구 신학과 선교학에 의존하여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해 한국교회의 발전과 세계선교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이들은 현재까지의 한국 신학과 선교학의 부재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선교관점에서 본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과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 정립을 위해 합의를 도출했다.

선언문 기초 작성위원으로는 김연수, 김종국, 문누가, 임종표, 정형남, 조명순, 한수아 등의 선교사와 김성욱, 신경규, 안성호, 최형근 등의 선교학자, 성남용, 양태철, 한도수 등의 목회자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합의사항.

1. 우리는 혼합주의나 자민족주의적 신학이 아닌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과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 정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였다.
2. 한국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은 불변의 진리인 성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토양과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상황화한 신학을 말하며, 한국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은 성경의 불변의 진리를 전함에 있어 한국의 토양과 문화와 한국인의 특질에 적합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상황화한 선교학이라고 정의한다.
3.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화와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화의 핵심적인 원칙은 성경의 계시에 대해 신실성과 상황적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중심적이며, 통합적이며, 글로벌 신학적이여야 함을 인정한다.
4. 우리는 서구 신학과 선교학의 공헌과 한계를 동시에 인정하며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질문하며 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 우리의 신학과 선교학을 계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기로 한다.
5. 우리는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과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이 교계, 선교계, 학계(신학교) 등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내용과 형태로 발전되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한다.
6. 우리는 선교 현장에 문화 이식적이고 교파 확장적인 교회설립을 지양하고, 현지 교회와 함께 토착적이며 자율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며, 더 나아가 그들이 자신학화, 자선교학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논의된 한국 신학과 선교학의 주제와 내용들을 인식하며, 그러한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9월 말과 10월 초, 그리고 11월에 '자신학과 자선교학 후속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다.
8. 우리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선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하여 세계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도록 겸손한 종으로 섬길 것을 굳게 다짐한다.



● 제1차 권역별전략회의(2014 RCOWE I) 개요

RCOWE 대회는 Regional Consultation으로서 각 권역별 선교전략회의를 통해서 현지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개발하고, 현지 지도자들의 자신학 자선교학 개발을 돕는다.

- ① 18개 권역을 13개 그룹으로, 각 권역별 효과적인 선교전략 제시
- ② 현지에 적합한 기독교 수립을 위한 자신학으로서의 현지 신학 제안
- ③ 현지 교회가 타문화선교에 참여시에 필요한 자선교학 제안

일시	2014년 7월 16일(수) ~ 18일(금), 2박3일간
장소	ACTS29 비전 빌리지
대상	선교사, 선교지도자, 목회자, 선교 관심자
표어	현지 자신학 및 자선교학으로서의 적합한 선교전략 개발
주제	자신학 자선교학으로서의 현지 신학 선교학 제안 및 선교전략방안 도출
공동주최	KWMA, KWMF

목표

- ▶ 현18개 권역을 13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토의를 진행 한다.
- ▶ NCOWE VI대회에서 제안된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과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 선교학을 토대로 한다.
- ▶ 자신학으로서의 현지 자신학, 자선교학으로서의 현지 자선교학의 공감대 형성 및 제안을 하여 현지교회에 도움을 준다.
- ▶ 선교전략회의를 통해 각 권역별로 현장에 적합한 선교 전략이 개발되고, 그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도록 한다.

진행

- ▶ 기초발제: RCOWE 선교전략회의의 소개 및 운영
- ▶ 권역별 선교전략 방안모색(패널토의): 패널토의를 통해 현장 선교의 실제와 미래 방향모색
- ▶ Plenary Session 1, 2, 3, 4: 자신학 및 자선교학 관점에서의 현지 선교이론 및 현장 선교 사례 제시
- ▶ 18권역(13그룹) 선교전략 회의: 18권역을 13그룹으로 나누고 오전에는 현지 자신학 관점, 오후에는 자선교학 관점에서의 현장에 적합한 선교전략 개발을 위한 발제와 응답 그리고 토론
- ▶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 권역별 현장 선교전략 개발을 위한 선교전략위원회 조직 및 네트워크 구축
- ▶ 장기적 방안: 현지 선교전략개발위원회 조직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에서의 지원 체계 구축

● RCOWE I 일정표

	7월 16일 (수)	7월 17일 (목)	7월 18일 (금)
06:00-07:00	NCOWE IV	아침경건회 이여백 목사	아침경건회 김영휘 목사
07:00-08:30		아침식사	
08:30-09:30		Plenary Session II [이희재] 한국선교학으로서의 미래 선교회의 선교현장 사례 [장완익] 캄보디아 장로교회 자신학화의 현실과 미래	Plenary Session IV [김종국] 인도네시아 자선교학회가 인도네시아 선교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윤바울] 한국의 자선학, 자선학화 관 점에서 본 중동의 민족화 운동과 중동 이슬람권 선교
10:30-11:30		휴식 및 이동	권역별 정리 발표
11:00-12:00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I 자선학으로서의 현지 자선학 발제/응답/토의	
12:00-13:30		점심식사	
13:30-14:30	접수	Plenary Session III [오선택]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 서 자선학화의 시도로서 교회론 연구 [공요셉] 아랍의 신학과 아랍 무슬림을 위한 선교 신학	사역지로!
14:30-15:00	RCOWE I 기초발제 [한정국] RCOWE I 기초발제	휴식 및 이동	
15:00-16:00	Plenary Session I [김승호] 권역별 전략사례 발표 [김복경] 중국삼자교회 자선학화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II 자선학으로서의 현지 자선학 발제/응답/토의	
16:00-16:30	휴식		
16:30-18:00	권역별 선교전략 방안모색 [패널토의] 사회 한정국 패널 유기남 김복경 한수아 김연수	권역별 전략네트워크 구축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찬양과 말씀 이재환 선교사	찬양과 말씀 도육환 선교사	
20:00-21:00	기도와 교제	기도와 교제	

● RCOWE I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권역별 13그룹	권역별선교전략회의 I		권역별선교전략회의 II		진행자	장소
	발제자	응답자	발제자	응답자		
중국내지/변방	한수아	이요한	김종구	김정한	한수아	아펜젤러
인도차이나 반도	김중식	이용웅	안성호	이사야	이용웅	박승철
동남아/서남아 무슬림	진용삼	김연수	하영광	김병선	김영주	언더우드
힌두	진기영	국승호	조동욱	김현철	국승호	무어
중앙아시아/카스피해 연안	김형욱	김현종	송기동	황남주	강요한	위더슨
페르시아 창	이만석	이갈렙	탁요셉	이다니엘	이갈렙	캠벨
레반트/아라비아 반도	정형남	김수오	강처림	김경미	박민하	김사무엘
서아프리카/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양승훈	강병권	최철	박래수	박래수	김사무엘
일본	유기남	조명순	유기남	조명순	전형구	하용조기념관
유럽/오세아니아	김호동	임석순	이재경	김민호	이재경	킬보른
터키	김성운	김종일	조용성	김요한	김종일	호른
정교회	이승희	박광배	정호상	이성주	장영호	루비
카톨릭	이영민	변진석	한도수	이종선	이정건	베어드

● RCOWE I 전체상세일정

일정	제목	강사
7/16(수)		
기조발제	제1차 권역별선교전략회의(RCOWE) 기조발제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Plenary I	권역별 전략선교 사례발표 'Mission Japan Network	김승호 선교사 한국OMF 대표
	중국 삼자교회 자신학화 - 딩광신 주교를 중심으로	김복경 선교사 고센다문화연구소
패널토의	권역별 선교전략 방안모색	사회 한정국 선교사 패널 유기남 김복경 한수아 김연수
저녁집회	나실인 선교사	이재환 선교사 কমিশন 대표
7/17(목)		
아침경건회	은혜 안에 강하라	이여백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Plenary II	한국 선교학으로서의 미르선교회의 선교현장 사례	이희재 선교사 러시아/장로교통합
	캄보디아 장로교회 자신학화의 현실과 미래	장완익 선교사 캄보디아/GMS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I	자신학화의 관점에서 중국 변방 선교	한수아 선교사 MVP선교회 본부장
	'자신학화의 관점에서 중국 변방선교'에 대한 논찬	이요한 선교사 서울중국신학원 원장
	태국 교회의 자신학화에 관한 제언	김중식 선교사
	태국 교회의 자신학화에 관한 논평	이용웅 선교사 GP 연구개발원장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민속무슬림 사역을 위한 제언	진용삼 선교사 인도네시아/GP선교회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민속무슬림사역을위한제언'에 대한 응답	김연수 선교사 KWMA 국제총무
	로고스 신학과 인도의 자신학 만들기	진기영 선교사 인도
	논찬 '로고스 신학과 인도의 자신학 만들기'	국승호 선교사 인도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형 선교전략(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김형욱 선교사 CIS협의회 상임위원장
	김형욱 선교사 발제에 대한 응답	김현중 선교사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학장
	이란의 상황 및 선교의 전망	이만석 목사 4HIM 대표
	'이란의 상황 및 선교의 전망'에 대한 응답	이갈렙 선교사 타지키스탄/MVP선교회
	자신학과자선교학의 관점에서본 이라크와레반트와아라비아반도 선교	정형남 선교사 GMS/중동선교회
	정형남 선교사 발제에 대한 응답	김수오 선교사 요르단/합신, MVP
	서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역에서의 자신학화	양승훈 선교사 차드
	'서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역에서의 자신학화' 논평	강병권 선교사 AIM Korea 디렉터
	일본 선교의 전략과 그 전망에 대한 고찰	유기남 선교사 알타이선교회
	'일본 선교의 전략과 그 전망에 대한 고찰'에 대한 응답	조명순 선교사 한국형선교개발원
	유럽·오세아니아주 선교전략	김호동 선교사 GMS 선교총무
	'유럽·오세아니아주 선교전략'에 대한 응답	임석순 목사 한국중앙교회 담임
자신학으로서의 터키교회 자신학: 터키교회 자신학을 위한 방향제시	김성운 선교사 고려신대 선교학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I	김성운 선교사 발제에 대한 응답	김종일 선교사 터키어권선교회 대표	
	러시아 정교회 상황 하에서의 자신학화	이승희 선교사 러시아선교회	
	'러시아 정교회 상황 하에서의 자신학화'에 대한 응답	박광배 선교사 러시아/GMS	
	라틴아메리카 한인선교사들을 향한 자신학화 이슈들	이영민 선교사 KPM/GBT	
	'라틴아메리카 한인선교사들을 향한 자신학화 이슈들'에 대한 논찬	변진석 선교사 GMTC	
Plenary III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서 자신학화의 시도로써 교회론 연구	오선택 선교사 키르기스스탄/FMB	
	아랍의 신학과 아랍 무슬림을 위한 선교 신학	공요셉 선교사	
권역별 선교전략회의 II	중국교회의 자선교학화와 세계 선교 전략을 중심으로	김종구 선교사	
	'중국교회의 자선교학화와 세계 선교 전략을 중심으로'에 대한 응답	김정한 선교사	
	세계 자선교학의 현황과 전망: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안성호 선교사 합동신대원/OMF	
	'세계 자선교학의 현황과 전망: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응답	이사야 선교사 GP한국본부훈련동원부대표	
	징검다리 접근법을 통한 인도네시아 자바 무슬림 선교 전략	하영광 선교사 인도네시아/FMB	
	'징검다리 접근법...'에 대한 응답	김병선 선교사 KODIA 국제대표	
	힌두권 선교를 위한 자선교신학 모형	조동욱 선교사 인도열방신학대학 학장	
	'힌두권 선교를 위한 자선교신학 모형' 응답	김현철 선교사 YWAM Mysore 책임자	
	자선교학 관점에서 본 아제르바이잔 선교 25년	송기동 선교사 아제르바이잔/HOPE	
	'자선교학 관점에서 본 A국 선교 25년'을 읽고	황남주 선교사 중앙아시아/KPM	
	페르시아 선교의 현 과제와 미래 선교전략	탁요셉 선교사 페르시아창연대 코디	
	'페르시아 선교의 현 과제와 미래 선교전략'에 대한 응답	이다니엘 선교사 R국/MVP선교회	
	중동 아라비아반도 - 오만을 중심으로	강처림 선교사 인터서브코리아	
	'중동 아라비아반도 - 오만을 중심으로'에 대한 응답	김경미 선교사 아라비아반도/MVP	
	혁명 이후 튀니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역 전략 연구	최철 선교사 튀니지/대신	
	'혁명 이후 튀니지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역 전략 연구'에 대한 응답	박래수 선교사 한국컴미션 대표	
	오세아니아 선교전략	이재경 선교사 전 FIJI 선교사	
	오세아니아/유럽 발제의 응답	김민호 선교사 우크라이나	
	무슬림 사회에서 자신학화 연구 -실�크로드 지역 중심으로-	조용성 선교사 GMS 훈련연구개발원장	
	'무슬림 사회에서 자신학화 연구'에 대한 응답	김요한 선교사 합신선교부 소속	
	우리가 말하는 한국선교와 러시아가 자신의 신학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선교	정호상 선교사 러시아 /장로교 통합	
	정호상 선교사 발제에 대한 응답	이성주 선교사 러시아/GMS	
	로마 가톨릭 선교전략으로서 자신학과 자선교학	한도수 선교사 KWMF 회장	
	'로마 가톨릭 선교전략으로서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응답	이종선 선교사 브라질합신세계선교회/WEC	
	저녁집회	모든 민족을 주께로!	도육환 선교사 TIM 본부장
	7/18(금)		
아침경건회	하나님의 도움을 외칠 때	김영휘 목사 서울남교회	
Plenary IV	인도네시아 자선교학화가 인도네시아 선교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종국 선교사 KWMF 회장	
	한국의 자신학화, 자선교학화 관점에서 본 중동의 민주화 운동과 중동 이슬람권 선교	윤바울 선교사	

● 제1차 권역별전략회의(RCOWE I) 기초발제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선교현지를 찾아가는 전략회의가 RCOWE이다. 우리는 각 지역(권역)마다 최적의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를 찾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선교현지에 적합한 신학과 선교학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현지 지도자들과 그리고 타국의 선교사들과 함께 연구 개발과정으로 찾고자 한다. 2014년 오늘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선교현지의 선교사들과 함께 논의한 전략시도를 한 자리에 모아, RCOWE라는 새로운 선교전략회의 형태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고자 한다.

1. GCOWE에서 NCOWE로 발전

세계선교계는 20세기를 마감하면서 AD2000까지 10/40창문 내에 존재하는 미전도종족을 복음화시킴으로써 대미를 장식코자 노력하였다. 이것이 1990년대 10년간 계속되었는데, 그 중간해인 1995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GCOWE(Glob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 회의에 자극받아 한국선교계가 호응하여 개최한 전략회의 NCOWE(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이며 GCOWE 95 회의 이후 NCOWE를 개최하면서 한국선교계는 1990년 민족과 세계복음화회의를 1차 회의로 간주하고 1995년 회의를 NCOWE 2차 회의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략회의는 AD2000년에 열린 KWMA 선교대회 때 제3차 NCOWE를 사랑의교회에서 3일간 열면서 명실공히 전략회의의 길을 열게 된다. 이 때 이 회의를 위임받은 KAAP(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는 연합준비팀을 구성하여, 제일 먼저 광범위리서치에 돌입하게 된다. 이것은 1999년 1월부터 시작하여 약 1년 6개월간의 리서치(중국과 중앙아 현지 리서치 포함하여)가 약 2,400만원의 리서치 비용과 25명의 연구 인력이 투입된 광범위 리서치였고, 상당한 효과있는 전략회의를 출발시키게 되었다. 이런 리서치로 준비되고, 사전전략회의(Preconsultation)을 거친 후 최대한의 의견 수렴을 통해 메인 전략회의(NCOWE)에 상정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선언문 작성과정도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10명 이상의 각계 전문가가 매일의 토론과정과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글로 나타내고 이를 종합하여 선언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선교전략회의는 2010년까지 가지게 되었다. 대체로 2000년-2006년-2010년 세 번의 NCOWE의 참석자는 매년 800여명의 선교 전문가 또는 지도자들이 한 곳에 참석하여 이룩한 전략회의였다. 또한 KWMA는 각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선교사 Network에 힘쓰면서, 선교사들과 현지에서 선교전략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된다.

2. NCOWE에서 RCOWE로 발전

약 3년 전 일본 선교사 출신 4명(김승호, 유기남, 조명순, 윤성혜)은 한국에서 일본선교를 도울 목적으로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일선넷(일본선교네트워크)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KWMA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KWMA는 CGN

TV와 논의 끝에 CGN TV Studio에서 1일 일본 선교전략 좌담회를 갖기로 한다. KWMA 회원단체들과 후원교회에 연락을 하여 약 70명이 참여했고, 그 날 약 4개의 50분짜리 좌담회를 녹화하게 되었는데, 그 성과가 의외로 좋았다. 당시 발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일본의 조남수 선교사는 이 Format을 일본 도쿄에서도 함이 좋겠다하여, 그 다음해 일본에서 그리고 이것은 오오사카 나아가 후쿠오카까지 연결되면서, 한국과 선교현지 간의 선교지도자와 선교사들 간의 핑퐁식 전략회의가 성과를 보이게 되었다. 이를 KWMA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각하여 약 18개 권역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RCOWE의 발전 상황이며, 이런 시도는 이미 15년 전에 PMS선교회가 UPMA에 요청하여 만든 12개 한국선교 우선 전방개척지역에 일본과 터어키를 추가하였고, 정교회권, 로마 가톨릭권, 유럽권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권 4개를 추가하여, 한국선교의 전략적 18개 권역으로 목표하게 된 것이다.

3. RCOWE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

우리는 RCOWE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적합한 선교전략(Unique Solution Strategy)이 존재할 것으로 믿고, 이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NCOWE VI에서 얻어진 한국신학과 한국선교학을 18개 권역의 그 권역신학과 권역선교학 개발에 있어 좋은 참고 자료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서구선교가 서구교회의 신앙과 선교학을 한국을 비롯한 2/3세계에 Transplanting 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로 하며, 단지 한국신학과 서구신학을 참조 사례로 소개하여, 현지 지도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현지에 최적합한 현지 신학과 현지선교학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선교 지도자들은 한국선교사들과 함께 먼저 자신학으로서 한국신학을 찾아보고, 한국 선교사들이 지난 30여 년간 선교지에서 이룩한 놀라운 선교 성과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국 선교학을 정립하면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 작업을 시도해 모든 것이 후에 각 선교지에서 행하는 자신학 그리고 자선교학 작업에 귀한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1차 RCOWE에서는 그 권역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논의하면서,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신학으로서의 현지 신학화 가능성 토론을 먼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역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역자 중에서 한국 출신의 선교사들이기에, 한국인의 은사와 기질이 잘 반영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선교 과실을 학문적으로 잘 다듬어 한국 선교학을 정립해가면서, 현지 지도자들에게도 Mission Planting을 기대하며, 현지인들에게 적합한 선교학 개발을 격려하기 위해서 RCOWE가 그 명석 역할을 할 것이다.

4. 결어

결국 선교전략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선교전략 도출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한국선교계도 GCOWE와 NCOWE를 넘어 RCOWE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며, 이 새로운 출발이 선교현지의 자신학화 작업과 자선교학 작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각 권역마다 한국 Core 그룹과 현지 Core 그룹이 형성되어, 격년제로 한국과 선교현지에서 선교전략회의가 번갈아 열리기를 희망한다. RCOWE는 각 지역별로 Core 그룹을 형성하게 된다. 한국 내 Core 그룹은 국내에서 해당지역 선교 홍보 및 TV출연 등으로 지역 선교를 활성화시키고, 선교지 Core 그룹은 현지에 적합한 선교전략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현지 선교전략회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한국 내 Core 그룹이 KWMA와 동반 사역하듯, 현지 Core 그룹은 현지 한인 선교사회의 우산 아래 활동할 것을 권한다. 한국 Core 그룹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해당지역 사랑 모임으로 끌어들이며, 현지 선교사들을 다각으로 지원하고, 현지 선교의 활성화의 일원이 되도록 한다. 그리하여 한국선교가 21세기 세계선교계의 기관차적 역할을 감당하여, 20세기까지 이룩하지 못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앙망하는 바이다.

● 제1차 권역별선교전략회의(RCOWE I) 결의문 [선교신문]



[선교신문]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 교단과 선교단체 지도자, 목회자, 선교학자 등 300여 명이 2014년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 모여 “한국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복음 전파가 시급한 18개 권역별 선교전략 수립과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주제로 제1차 권역별 선교전략회의(RCOWE I)를 개최하였다. 이 전략회의는 14일에서 16일까지 “선교관점에서 본 자신학으로서의 한국신학과 자선교학으로서의 한국선교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에 기초하여 열렸다. 각 권역별로 아래와 같이 토의 한 내용을 기초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곳이 선교 현장임을 자각하며,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선교지의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둘, 우리는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각 권역별 선교현장에서 네트워크 체제를 결성하고, 향후 긴밀한 연합과 동역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 우리는 각 권역별 선교현장에서의 자신학화 및 자선교학화에 있어서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여,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올바른 결정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적합한 신학과 선교학을 정립하도록 돕는다.

넷, 우리는 금번에 결성된 각 권역별 선교전략위원회가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전략을 개발하여, 그것이 각 사역 현장마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1. 중국 내지와 변방 - 우리는 겸손한 나눔의 자세로 소수 민족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기도와 전도의 신학을 전달하고, 국교회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교회의 선교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지교회의 선교 활동 및 선교 단체 설립을 도와 자국민 선교사들이 중국 디아스포라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소수민족과 타민족에게 선교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인도차이나 반도 - 우리는 인도차이나 선교를 하는 선교사, 교회 및 현장 사역자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도차이나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여 효과적인 현장 선교를 하도록 돕는다.

3. 동남아, 서남아 무슬림 - 우리는 두려움을 주는 이슬람의 영적 실체를 직시하고 현장에 적절한 상황화, 신학화 작업이 필요함에 동감한다. 이에 따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적절한 선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신학화, 자선교학화의 노력을 기울인다.

4. 힌두 - 우리는 타종교 속에 있는 부분적 진리의 가치를 수용하는 힌두권 자신학의 토대 위에 성경, 선교 현장 및 선교 실행자가 서로 만나는 중요 선교 영역(1. 사도적 삶이 따른 복음전파, 2. 선교적 고려가 있는 재물 나눔, 3. 인도 사회의 인간관계 중심 과 한국인의 어깨동무정신, 4. 성경적 능력 대결 사역)을 도출하여 이를 자선교학 모형으로 심화시키는 총체적 선교로서 힌두권 자선교학을 세우는 것을 지향한다.

- 5.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연안** - 우리는 한국적 자신학, 자선교학이 가지고 있는 전도, 제자 양육, 교회 개척 및 개척정신을 장점으로 살려,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연안 권역에서 미전도 종족, 중앙아시아 및 중국인 디아스포라 선교가 극대화되도록 한다.
- 6. 페르시아창** - 우리는 난민/디아스포라사역, 지도자 양성, 비즈니스 및 지역을 위한 기도사역을 기존의 사역자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 7. 레반트, 아라비아 반도** - 우리는 레반트 지역에서 기존의 가톨릭과 정교회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내부자 운동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코란을 전도 접촉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며, 이슬람 이전의 아랍 문화와 종교성,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을 접촉점으로 삼도록 격려한다. 또한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는 교육과 비즈니스, 문화, 체육 등의 전문인 선교 방법을 활용하여 사역하도록 한다.
- 8. 서아프리카, 북아프리카** - 우리는 토착교회와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에 적합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 및 네트워크하여 각 지역별 선교 전략이 세워지도록 한다.
- 9. 일본** - 우리는 일본교회가 요청하는 실제적인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일본인 전도에 힘을 쏟는다. 일본인의 심성에 맞추어 문화를 존중하되 선지자적인 말씀 선포를 통해 점증하는 갈등 속에서 화목의 사신으로서 일본복음화를 위해 협력한다.
- 10. 유럽, 오세아니아** - 우리는 유럽과 오세아니아 선교에서 초대 교회의 열정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국제 교회 설립과 운영이 선교 전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 11. 터키** - 우리는 창의적 접근지역인 현지의 자신학화는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들이 올바른 자신학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 12. 정교회** - 우리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정교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현지 동역자의 리더십을 세우며, 현지 개신교단과의 소통과 협력에 힘쓰고, 소수 종족 선교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 13. 가톨릭** - 우리는 점증하는 로마 가톨릭의 세력에 대한 실체를 성경과 교회 역사 학습을 통해 그들의 정체와 혼합주의적 선교방법에 대응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전달에 충실하며, 복음 내용의 변질 없이 최대한 현지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가 그 토양에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우리는 가톨릭권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는 결국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 스스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 7월 18일

제1차 권역별선교전략회의(RCOWE I) 참가자 일동

결의문 기초 작성 위원:

국승호, 김종일, 박래수, 안성원, 유기남, 전호중, 최철 (가나다 순)

제1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KWMA / 2014년 11월 27일(목)~28일(금), 생명의빛예수마을

제1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초청

- * 주 제: 한국 선교계의 폐단 분석과 대안 마련
- * 일 시: 2014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 28일(금) 오후 4시
- * 장 소: 생명의 빛 예수마을(경기도 가평)
- * 참가비: 1인 3만원 / 비회원 1인 5만원
- * 준비물: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건 필히 지참

* 참가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 제1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2014) 계획(안)

목적
일시
장소
인원
참가비
준비물

한국선교계의 폐단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변혁시키는 한국선교를 희망한다.
2014.11.27(목)~28(금) 1박2일.
생명의빛 예수마을 (경기도 가평)
약 150명
회원 1인 3만원 / 비회원 1인 5만원 (국민 634101-04-001339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건 필히 지참

11월 27일 (목)		11월 28일 (금)	
시간	일정	시간	일정
		06:00-07:30	기상 및 둘레길 산행 정상메시지 (김호동)
		07:30-08:30	아침
		08:30-09:30	발제 ③ 장훈태 선교학자가 보는 한국선교의 미래
		09:30-10:00	리서치 발표와 응답 ③ 선교사 개인영역
10:00-11:00	등록	10:00-12:00	그룹별 토론회 ③ 선교사 개인영역
11:00-11:30	여는 메시지 / 홍정길		
11:30-12:00	키노트 메시지 / 한정국		
12:00-13:10	점심	12:00-13:10	점심
13:10-13:40	리서치 발표와 응답 ① 선교구조영역	13:10-14:00	그룹별 결과 발표
13:40-15:40	그룹별토론회 ① 선교구조영역	14:00-14:40	14년도 단체별 행사 결의문 보고
15:40-16:00	휴식	14:40-15:30	결의문 채택
16:00-17:00	발제 ① 이문장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교	15:30-16:00	닫는 메시지 / 김형운
17:00-18:00	발제 ② 김종국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교		
18:00-19:10	저녁		
19:10-19:40	리서치 발표와 응답 ② 선교사역영역		
19:40-21:40	그룹별 토론회 ② 선교사역영역		
21:40-	교제 및 취침		

한인세계선교사회 KWMA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 2015년 KWMA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일시	2015년 2월24일(화)-27일(금)
장소	발리 비치호텔
주제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강사	이영훈 목사 (KWMA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미주교회협의회 회장, 은혜한인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 (세계번혁운동 대표, 분당할렐루야교회 담임)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담임) 정민용 목사 (커버넌트 헬로쉽교회 담임) 류정길 목사 (제주성안교회) 김종국 선교사 (KWMA 대표회장) 고석희 목사 (KWMA 사무총장)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임종표 선교사 (케냐주재 선교사) 박기호 선교사 (홀러신학교 교수) 김연수 선교사 (인도네시아, SMI) 정현기 원장 (세계로 병원 원장)
참가자격	건전한 교단 또는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사역하신 선교사님
등록안내	참가 신청서는 KWMA 홈페이지 (http://kwmf.info)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기록하셔서 kwmf2016@gmail.com 으로 보내 주시고 항공일정도 가능하면 조속히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픽업과 호텔방 예약으로 사전에 연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회비	1인당 가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 USD 200 (2014년11월 30일 까지 등록), B. USD 220 (2014년 11월30일 이후 등록)
송금구좌	A. 원화구좌/ 예금주: 세계한인 선교사회 - 은행계좌: 국민은행. A/C # 666601-04-218345 B. 달러계좌/ 예금주: 안성원 - 은행 계좌: 외환은행(Korea Exchange Bank) 223-JSD-1013879 은행지점 : 서울시 송파구 가락지점
참고사항	송금 후에 송금자의 국가, 선교사 이름을 기록하신 후 이 메일로 통지 바랍니다.

● 일정표



시간	2월24일(화)	2월25일(수)	2월26일(목)	2월27일(금)
06:30-07:30		아침예배		
		류정길 목사	정민용 목사	
07:30-08:45		아침식사		
09:00-09:30		발제 ① 한국선교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박기호 선교사	발제 ④ 한국선교의 솔루션 제안 한정국 선교사	종합정리 및 선언문
09:30-10:00		발제 ② 한국교회의 장단점 김연수 선교사	발제 ⑤ 차세대 미주선교자원 개발 정민용 목사	폐회예배 박은조 목사
10:00-10:30		발제 ③ 한국선교의 문제점	발제 ⑥ 한국선교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임종표 선교사	
10:30-10:50		Coffee Break		자유시간 혹은 선택관광
10:50-12:00		한국선교의 반성에 대한 선배들과의 대화	한국선교의 나아갈 길에 대한 선배들과의 대화	
12:00-14:00	점심식사			
14:00-15:00	등록 및 방배정	한국선교사들의 의료복지 세계로병원 정현기 원장 미주교회가 보는 한국선교 고석희 목사	한국선교의 나아갈 방향토의	
15:00-15:30		Coffee Break		
15:30-16:30	개회예배 김종국 선교사	한국선교의 반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과별 소그룹토의	한국선교의 반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과별 소그룹토의	
16:30-17:00	중앙총회	교회개혁, 신학교, 교육선교, 해외권선교 창의적직업근지역사역 디아스포라선교	전문인, BAM선교, 미션문화팀 여성분과모임 차세대(MK)선교동원 R&D분과, 변혁운동	



KWMF 소개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KWMF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선교사 (현재 25,000명)들의 친목과 협력 및 선교전략을 연구하는 한인 선교사 협의체이며 매 4년 마다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KWMF 산하에는 전세계를 20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대표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선교분과 별로 위원장을 두고 선교 전략연구와 협력을 하고 있다.



세계한인선교사회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77-3
한국 연락처 ☎ 070 8221-1361, 010-8778-1361
인도네시아 연락처 ☎ 62-813-8100-9905
(사무총장 안성원 선교사)

후원계좌 국민은행 666601-04-218345
(예금주 : 세계한인선교사회)



KWMF

세계한인선교사회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KWMF 연혁

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

세계한인 선교사회(KWMF)은 1977년 '한국선교사친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제1회 회장으로 홍몽주제 종용만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1982년 10월 필리핀 바귀오(Baguio)에서 제1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 및 총회(준비위원장 : 김팔영 선교사)를 개최하다.
1984년 10월 방콕에서 제2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회장 : 조환)를 개최하다.
1986년 10월 나장한인교회에서 제3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 및 총회 개최하다.
1988년 7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4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대회장 : 육호기 선교사) 및 총회 개최하다.
1988년 7월 시카고 워튼 대학에서 제5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 및 총회 개최하다.
1991년 7월 싱가포르에서 제6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회장 : 손중환)를 개최하고 북경과 백두산에서 선교집회를 가졌다.
1993년 8월 나이로비에서 제7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회장 : 신흥식)를 개최하다.
1993년 8월 미국 파타이에서 제1차 세계한인 선교사 지도자 개발 회의를 개최하다.
1996년 7월 시카고에서 제8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회장 : 이은우)를 개최하다.
1997년 푸에르토리카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이병규 선교사(일본)가 선출되었다.
1999년 6월 마닐라에서 제 2차 지도자 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제13대 회장으로 김유식(필리핀) 선교사가 선출되었다.
2000년 7월 시카고에서 제9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제 14대 회장으로 김경용 선교사(태국)가 선출되었다.
2002년 6월 캐나다 중앙 총회에서 제15대 회장에 정윤진(인도), 신흥식(뉴질랜드), 사무총장에 조용중(미국)이 선출되었다.
2004년 7월 시카고 워튼 대학에서 제10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와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이준교(이집트), 김승연(독일), 조용중(미국), 장순호(방글라데시), 사무총장에는 강태홍(태국)이 선출되었다.
2008년 7월 시카고 워튼대학에서 제11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와 총회에서 17대 회장으로 강성일(브라질), 강태홍(GMS 사무총장), 이극범(프랑스), 최광규(도미니카), 사무총장 한도수(브라질)가 선출되었다.
2011년 2월 괌보다야 시암인에서 제6차 KWMF 지도자 개발회의를 개최하다.
2012년 7월 시카고 워튼대학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인 선교사대회와 총회에서 18대 회장으로 박명하(온두라스), 한도수(브라질), 김중국(인도네시아), 송충석(캐나다), 사무총장 안성원(인도네시아), 사무총장 김경일(미주)이 선출되었다.



KWMF 임원 소개

공동회장	박명하(온두라스) 한도수(브라질) 김중국(인도네시아) 송충석(캐나다)	사무총장	안성원(인도네시아)	사무차장	김경일(미주)
서기	이희재(러시아)	부서기	이금주(말레이시아)		
회계	송상천(러시아)	부회계	김정진(영국)		
감사	김해진(멕시코), 김중진(중국)				

부회장단

여성회장	김정희(러시아)	중동	김영삼(요르단)
동남아시아	김종권(인도네시아)	서북 아프리카	최 철(튀니지)
사남아시아	이병규(인도)	동남 아프리카	이은영(케냐)
인도차이나	장완의(캄보디아)	북미주	김정환(미국)
중앙아시아	강형민(키르기스스탄)	중미	전재덕(도미니카)
태평양	정상진(필리핀)	남미	정금태(파라과이)
러시아	최신술(러시아)	중국 디아스포라	권○○(중국)
필리핀	장순원(필리핀)	중국 북부	고○○
일본	조남수(일본)	중국 중부	이○○
동유럽	김수결(그리스)	중국 남부	박○○
서유럽	이극범(프랑스)		



행사일정

- 2014년 5월 27 - 28일** KWMF 주관 디아스포라 대회 협력 장소 : 순복음 교회
- 2014년 7월 2 - 5일** KWMF 임원회 장소 : 제주도 명성교회 수양관
- 2014년 7월 14 - 16일** NCOWE 대회(지역별 선교전략회의) - KWMF와 공동주최 장소 : 은누리 ACTS 29 비전 빌리지
- 2014년 7월 16 - 18일** RCOWE 대회(지역별 선교전략회의) - KWMF와 공동주최 장소 : 은누리 ACTS 29 비전 빌리지
- 2015년 2월 24 - 27일** 7차 지도력 개발 회의 및 중앙총회 장소 : 인도네시아 발리 비치호텔 주제 :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 2015년 10월** KWMF 임원회 장소 : 케냐 예성
- 2016년 7월** 한인세계 선교대회 KWMCI(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 장소 : 시카고 예성



▶ KWMF 임원회(2012년 회외회)



▶ KWMF 임원회(2013년 브라질)



▶ KWMF 선교사 대회(2012년 시카고)



▶ KWMF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2013년 탕보디아)



KWMF 회장단 및 임원진				
공동회장단	박명하	온두라스	hnmyunghapark@hotmail.com	504-9979-0633, 070-8288-0633
	한도수	브라질	davidhan52@hanmail.net	55-11-9727-5345
	김종국	인도네시아	jkkim12232@hotmail.com	62-8151-333-3045, 070-7539-4354
	송충석	케냐	csong1@hanmail.net	254-722-411-821, 010-2922-6877
사무총장	안성원	인도네시아	swahn221@hotmail.com	62-813-8100-9905, 070-8221-1361
사무차장	김경일	미주	kimjoyh@gmail.com	213-507-3875
서기	이희재	러시아	hjlee-mir@hanmail.net	7-911-124-1971, 070-7500-8898
부서기	이금주	말레이시아	kuemju@gmail.com	60-16-408-0624, 070-2854-8263
회계	송상천	러시아	wosong@hotmail.com	7-902-522-9899, 7-423-374-6317
부회계	김승진	영국	kkchina@hanmail.net	070-8265-3869
감사	김해진	멕시코	ronenkim@gmail.com	070-8248-1915, 202-643-9796
부회장단				
여성부	김정희	러시아	moskjh@hanmail.net	7-495-706-4301, 7-495-704-1354
동남아시아	김종련	인도네시아	jonglye@hotmail.com	62-21-871-4707, 62-815-1191-0852
서남아시아	이병구	인도	byounggu2000@hanmail.net	001-91-9900847098, 070-8268-0985
인도차이나	장완익	캄보디아	pouen1020@daum.net	070-4038-6034
중앙아시아	강철민	키르기스스탄	dkanghm@gmail.com	996-555-504937, 070 7139 4885
태평양	정상진	필라우	lifejsj@hanmail.net	680-488-1527
러시아	최신출	러시아		
필리핀	장순현	필리핀	sym21cmp@choi.com	63-917-501-3420
일본	조남수	일본	namsoo51@hotmail.com	81-90-8685-5506, 070-7431-1920
동유럽	김수길	그리스	sookil_k@yahoo.com	254-733-745816
서유럽	이극범	프랑스	epcpgb@gmail.com	33-1-48984443
중동	김영섭	요르단	iambauri@gmail.com	070-8238-5298
서북아프리카	최 철	튀니지	cchoi123@hanmail.net	216-9598-4247
동남아프리카	이은용	케냐	hmanylee@gmail.com	254-733-745816
북미주	김정한	미국	son4u@hotmail.com	714-350-6957
중미	전재덕	도미니카	amosjung@hotmail.com	070-7571-3828
남미	정금태	파라과이	amorr1004@hanmail.net	898-21-64-5566
중국디아스포라	권00		ykwon0529@gmail.com	86-13915500232
중국북부	고00		nahaoman@daum.net	86-1390139307
중국 남부	박원길		parkwongil@hanmail.net	070-8638-5491

● 한인세계선교사회 회장 김종국 선교사 인터뷰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 갖춘 선교 자원 발굴해야
KWMF, 2015년 발리서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
현장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전환 기대**



[기독일보] "지난 20~30년의 한국교회 선교를 평가할 때, 처음에는 '선교동원가'들이, 그 후엔 '선교정치가'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현장과 소통이 안 되고, 일부 정치하는 선교 리더십들로 인해 한국선교에 많은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선교를 회복시키려면 이제 선교 현장과 사역 분야에서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분야를 전공한 '선교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길러야 합니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회장 김종국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인터뷰에서 한국교회 선교가 번성하려면 '선동가(선교동원가)', '선정가(선교정치가)'의 시대를 지나 총체적으로 준비된 '선전가(선교전문가)'가 이끄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젠 한국교회에도 학위를 갖고 선교현장에서 30년 이상 일한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계, 기업계에서는 30~40대가 리더십을 맡고 있는데, 한국 선교계는 50~60대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변화돼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차세대 리더십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도 기득권 세력이 너무 두터워 40~50대의 젊은 리더십에게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이 적폐 중 하나"라고 말한 그는 "마이클 오 로잔 총재도 40대다. 선배 선교사들은 후배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주고, 젊은 리더를 발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한국선교가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도 50~60대 리더십의 영어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리더십들은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리더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국 선교사는 1983년 예장고신 총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서울 중앙교회 후원) 받아 1989년 인도네시아 복음장로교단(GPII)을 설립, 교단장을 역임하고 2004년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교 설립 및 강의 사역, 인도네시아 선교사파송훈련원(IBADA) 디렉터,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원 원장 등 30여 년을 인도네시아를 위해 섬겼다. 지난 8월부터는 전세계 2만 5천여 한국 선교사의 친목과 협력, 선교전략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인 KWMF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시카고에서 열린 제12회 한인세계선교사대회 총회에서는 박명하 온두라스 선교사, 한도수 브라질 선교사, 김종국 인도네시아 선교사, 송충석 케냐 선교사가 제18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돼, 차례로 1년씩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와 KWMF가 공동 주최한 제6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 VI), 제1차 권역별선교전략회의(RCOWE I)의 모든 일정에 참석한 김 선교사는 "선교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선교에 대해 진솔한 반성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한국교회에 총체적 위기가 왔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 선교계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돌아봤다"고 말했다.

KWMF 지도력개발회의의 주제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KWMF는 내년 2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비치호텔에서 제7차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를 연다. 4년 회기 중간에 열리는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는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참여해 최신 현장 소식과 전략, 사역 방향 등을 나누고 도전받으며 다음 총회를 준비하는 자리다. 특별히 KWMF는 올해 국내에서 진행된 선교전략회의들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선교의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을 모임의 주제로 정했다.

김종국 선교사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라보는 한국 선교사의 모습을 지적받고, 스스로 한국선교의 반성에서만 끝나면 안 될 것"이라며 "선교사로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월 25일에는 한국선교에 대한 반성을, 26일 오전에는 한국선교의 미래 혁신을 집중해서 다루며, 26일 오후에는 올해 NCOWE와 RCOWE에서 뜨거운 이슈로 다룬 선교사 은퇴 문제, BAM(Business As Mission), 디아스포라 선교, 선교 리더십 이양,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에 관한 신학 이슈 등을 분과별로 발제하고 토의한다. KWMF는 올해 국내 선교전략회의에서 다룬 발제와 오는 9월 말과 10월 초, 11월에 열릴 '자신학과 자선교학 후속 대회'에서 발표되는 자신학화와 자선교학 현장 사례 등을 참고해 가장 적합한 강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 선교사는 "오는 11월 KWMA 한국선교지도자포럼에서 발표할 한국선교의 적폐에 관한 리서치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며 "이 리서치 내용을 내년 2월 25일 한국선교의 반성을 위한 시간에도 프레젠테이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회자·선교사 서로 소통, 선교사 회복 기회 될 것

또 미주의 젊은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선교사들과 교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12살에 미국에 이민 간 1.5 세 목사로, 1990년 자신의 모교인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 내 커버넌트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 성장시킨 정민용 목사(Min J. Chung) 등이 강사로 초청됐다. 이 교회는 지난 24년간 4백여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등을 배출한 캠퍼스 교회다.

김종국 선교사는 "한국교회 선교가 발전하려면 건강한 목회자들이 선교에 앞장서야 한다"며 "교회가 크고, 행사 후원금이 많이 내서가 아니라 각 교단을 대표할 만한 존경받는 목사들을 강사로 추천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목회자들이 맡은 강의만 하고 일찍 돌아가거나, 다른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박 4일간 전 일정에 참여하며 선교사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선교 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했다. 김 선교사는 "이제까지 늘 해왔던 대로 전통적인 모임이 아닌, 참석자들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이번 지도력개발회의를 통해 한국 선교사들의 신앙적, 사역적 건강이 회복되길 기대했다. 김 선교사는 "많은 한국 선교사가 본국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 자각지심,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져 있기도 한다"며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선교 후원도 줄면서 노후대책,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건강한 선교를 하기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지친 한국 선교사들의 건강이 회복되면 한국교회 회복 운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김 선교사는 "KWMF 리더십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울어주고, 일으켜 세우며,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케어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리더십들이 풀뿌리 현장에서 가장 힘든 선교사들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했고, 지도력개발회의도 리더십만의 행사로 끝났었다"고 반성했다.

김 선교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된 리더십이 회복되면, 이들이 현장에 돌아가 풀뿌리 선교사들과의 영적 혈연관계를 점차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과거보다 네트워크가 쉬워졌지만, 마음의 SNS는 더 어려워졌다"며 "인격과 삶의 열매가 있는 리더십이 겸손히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한국선교 현장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0~60대의 선배 리더십이 후배 선교사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선교사가 현지인에 리더십을 이양하는 작업이 모두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참석자들에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선교학의 목표는 '교회개척'이 아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것이 신학이라면, 그 말씀을 해석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문화와 가치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릅니다. 그동안 한국의 신학은 서구에서 학위를 딴 교수들이 서구신학을 여과 없이 들여오면서 다분히 서구적인 신학이었습니다."

김 선교사는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신학을 가르칠 때, 서양 신학자들의 말을 자꾸 인용하게 된다"며 "한국적 인성과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올바른 한국적 신학 해석학일 텐데, 한국의 거의 모든 신학이 서구적이 되면서 결국 신학이 신학교에 갇히고 교수들의 전유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신학교와 목회 현장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게 된 것은 한국적 자신학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선교 현장에서 내 것이 아닌 서구적 신학을 심으니 한국 선교사들부터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선교사는 선교지의 자신학화를 위해 선행해야 할 것은 한국 선교사 스스로가 한국적 신학, 곧 자신학화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변화하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에 어떻게 잘 전할지 △신학과 하나님 말씀, 문화가 조화를 이뤄 어떻게 말씀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할지 △자연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 뿌릴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얻은 결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또 "자선교학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는 문화와 사람이 변화함에 따라 진행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적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이 필요한 이유는 선교지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을 잘하기 위해 우리 것을 먼저 알고 돕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자선교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회개척(church planting)에 끝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mission planting)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선교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선교사 교회'(missionary church)와 모든 성도가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다르다"며 "전자가 행위를 강조하여 많은 선교사는 보냈지만 정작 교인은 선교와 거리가 멀다면, 후자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고 강조했다.

김종국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 수가 2만 5천여 명이 돼도 정작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바로 선교적 존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야 할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이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한국적 상황에 맞는 자신학을 가르치지 못한 신학 교수의 책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래 신학은 교회의 초신자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돼야 하는데, 너무 서구적이고 사변적이어서 신학생들조차 신학을 잘 모르고 신학교는 신학의 성지처럼 갇힌 것이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종국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KWMF 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리더십이 현장의 가장 어려운 선교사들의 땀을 닦아주고, 함께 올려주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임원을 맡은 모든 분이 기쁘게 희생을 감수하고 현장 선교사를 격려하며, 멤버케어하는 공동체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독일보] 이지희 기자 jhlee@cdaily.co.kr



Director
Eunhye Kang
Yorckstr.28 Nr. 221
67061 Ludwigshafen, Germany
+49 176 8632 8430
+82 070 8241 0227
Email: wmk@worldmk.org
Homepage: www.worldmk.org



● MK

MK는 Missionary Kid(선교사 자녀)의 약자입니다. MK는 세계적 관점을 갖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적응력이 뛰어나며 지적 융통성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고정관념의 틀 밖에서 생각하는데 순발력이 있으며 다른 관점들의 진가를 인정하며 화합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이나 외양을 넘어서며 다양한 사고력도 구사합니다.

● WMK

WMK는 2008년 시카고에서 열린 한인세계선교대회에 한인 MK들이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7명의 MK들이 합심하여 WMK가 탄생되었습니다. WMK는 한인 MK들로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모두 WMK가 모든 국적의 MK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4년간은 MK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는 것에 사역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프랑스, 독일, 미국 시카고, 호주에서 대회를 가졌고 컨퍼런스와 캠프들은 아직도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며 MK들을 선교로 이끌고 있습니다.

MISSIONARY & PASTOR'S KIDS CONFERENCE AUSTRALIA & NEW ZEALAND

KINGDOM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atthew 6:9-10

2014

DATE: 20th - 23rd Jan, 2014

PLACE: Merroo Conference Centre 3,
182 Mill Rd, Kurrajong NSW, Australia

PRICE: \$120 per person
\$220 with 1 sibling
\$300 with 2 siblings
+ \$100 for each additional sibling

REGISTRATION (by the 4th Jan 2014)

WHERE: [https://mkpk.wufoo.com/forms/
mkpk-kingdom-conference-2014](https://mkpk.wufoo.com/forms/mkpk-kingdom-conference-2014)

CONTACT: mkpk.australia@gmail.com,
Eunbee 0432 182 135



ORGANISED BY: WMK-AUSTRALIA

MISSIONARY KIDS & PASTOR KIDS NEW ZEALAND CONFERENCE
IN PARTNERSHIP WITH WMK AUSTRALIA



UNIVERSITY STUDENTS AND WORKERS RETREAT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살 이상의 선교사 자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

날짜 DATE: 2 - 4 July, 2014
회비 FEE: \$50 per person \$80 with 1 sibling
등록 REGISTRATION (by 29 June)

문의 최지혜 021 0284 3514
주최 WMK (WORLD MISSIONARY KOINONIA)

www.facebook.com/groups/WMKNewZealand
후원 크라이스트처치 목회자 협의회

AUSTRALIA & NEW ZEALAND

MKPK

inviting all missionary kids and
pastor kids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목사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위로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19 - 20 July

Korean Presbyterian Church,
CHRISTCHURCH, NZ

mkpk.nz@gmail.com

4/14 윈도우 운동

김남수 목사, KWMC 대표의장

● 10/40 윈도우에서 4/14 윈도우로

10/40 윈도우운동

Luis Bush 박사가 1989년도에 내 놓은 10/40 Window 선교전략은 지난 20여년간 세계선교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이르는 지역에 미전도 종족의 90%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집중 선교하자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 이지역에서의 복음화율이 2.5%에서 5%로 배가 되었으나 인구 증가율과 이슬람같은 타종교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여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4/14 윈도우 운동의 개념

“4/14윈도우”라 함은 4세~14세 연령층의 어린이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들이 새로운 선교 주체로 주목 받는 이유는 첫째,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성인 크리스천들의 85%가 4~14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통계가 이를 뒷바침하고 있다. 둘째, 복음의 전달력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이다(Social Network System 자유자재로 활용 등).

이들을 단순히 기독교 교육 또는 선교의 대상(object)으로만이 아니라 선교 및 변혁의 주체(agent)로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접근(reach), 구원(rescue), 훈련(root), 파송(release)하여 선교의 파트너(partner)로 여김으로 세계 변혁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이 4/14 윈도우 운동의 핵심 개념이다.

4/14윈도우 운동의 태동

4/14윈도우 운동은 2008년도 Luis Bush 박사와 김남수 목사의 뉴욕 회동 이후 추진되어 오다가, 2009년 9월 6-9일 나 홀간 세계 65개국의 사역자 350명이 뉴욕프라미스 교회에서 첫 번째 글로벌 써밋으로 모인 자리에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정식 발족 선언되었다. 그 후 뉴욕에서의 2차 써밋(2010), 싱가포르에서의 3차 써밋(2012), 태국방콕에서의 4차 써밋(2013), 그리고 다시 뉴욕에서의 5차 컨퍼런스(2014)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는 4/14윈도우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는 김남수 목사가 지난 10년간 중남미 대륙 거의 전국을 누비고 다니며 ‘어린이의 소중함’을 지도자들에게 일깨워주는 수고가 큰 역할을 했고, 뉴욕프라미스교회는 한국에서 온 프로 축구단과 함께 중남미 23개 도시의 스타디움에서 축구 경기와 식전 행사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오면서 지난 5년간 약 1억 5천만명의 라티노 영혼에게 피 묻은 복음을 전했다.

4/14윈도우운동의 선교신학적 접근

지난 2013년 2월, 120여명의 세계의 신학자 및 어린이 청소년 사역 대표자들이 한국의 할렐루야교회에 모여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4/14 윈도우 선교학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가 있다. 회의의 초점은 15세 미만의 아이들이 선교의 자원으로 지니는 고유한 특장(特長)들을 성경적, 발달심리학적, 선교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이들이 사울왕의 갑옷 즉 성인의 선교 스타일을 답습하기 보다는 다윗의 물맷돌 즉 이 세대가 지니는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선교하도록 격려하는 데에 두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을 선교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자원화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측면도 고려의 대상에 넣게 되었으며, 아이들을 고립된 개체가 아닌 가족, 교회, 그리고 사회의 일부로 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로써 운동(movement)으로 태동된 4/14 윈도우 개념은 성경적 반석위에 신학, 발달 심리학등의 이론적 기초를 갖춘 글로벌 트렌드로 견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4/14 윈도우 운동

프라미스 교회에게 주신 비전

“Rescue 185”란 말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전략적 용어이다.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의 어린이 수는 전세계 인구의 약 1/3이 된다. 그 중에서도 복음 듣고 이해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략적인 나이를 5세라고 본다면 5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 수는 전체의 약 25%가 됩니다. 세계 인구 68억 중 25%는 대략 16억 5천만이 나온다는 계산이다.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레스큐 185 운동인 것이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에게 주셨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프라미스 교회는 비교적 가까운 남미와 중남미에 학교를 세워서 온 성도가 이 명령을 수행해 왔지만 이 사역은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한다는 사명 앞에는 지극히 작은 사역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목사님과와의 만남

이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저명한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 목사를 프라미스 교회에 보내주셨다. 그때가 2008년 12월이었다. 그는 우리의 비전과 사역의 보고를 듣고는 즉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마지막 삶을 쏟아 이 중요한 사역을 하기로 결심하고 헌신을 하게 된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안목과 채널을 우리의 비전에 접목시킨 것이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이 국지적 한계에서 국제적 필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것이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를 한탄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일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다. 개교회주의가 그렇게 만들었고, 현실에집착된 교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등한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부족이 감히 누구도 어린이들을 위한 관심과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한 전세계의 지도자들은 뉴욕으로 몰려들었고,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2009년 9월에 있었던 4/14 원도우 정상회의 이었다.

100명에서 150명의 교육 선교의 책임자들만을 초청하여 조촐하게 치루려던 모임이 세계 68개국에서 368명의 톱클라스 교회 지도자들이 몰려와서 4/14 원도우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다. 어린이 선교를 위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이다. 이것은 미래교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임에 틀림이 없었다.

4/14 원도우의 개념

10/40 원도우의 개념 우리가 익히 아는대로 지리적인 선교의 포커스를 말한다. 1989년 루이스 부시 목사는 가장 복음화가 되어있지 않은 이 10/40 원도우개념을 설정하여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이 지역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선교헌신과 희생 하도록 했다. 그 결과 10/40 원도우에는 2005년 통계의 의하면 1990년 2.5%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15년후에 4.7%로 증가했다고 패트릭 존스톤은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개념의 선교초점을 이제 세대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4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은 지리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교회들의 관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향후 30년내에 미래의 교회는 사항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긴박성을 인식해야 한다.

브레이어트 메이어스에 의하면 미국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4세에서 14세에 예수를 영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연령의 어린이들은 복음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각인된다는 것이다.

4/14 원도우의 사역

이러한 중요한 시기의 어린이들을 너무 늦기전에 깨끗한 심령,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좋은땅'에 씨를 마음껏 뿌려야 한다. 4/14 원도우가 성공적 어린이 선교운동으로 자리매김을 메기기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역이 필요하다.

1) 첫번째가 학교설립 운동입니다.

각 곳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도시에는 복음으로 어린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훈련 시켜야 하고, 커리큘럼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정비 해야 합니다.

2) 두번째는 주일학교 활성화를 꾀하여야 합니다.

주일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회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을 영적 거듭남과 사명으로 무장 시켜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저들을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세속의 매력에 빠져있는 저들의 마음과 삶의 공허함을 해결하여 사랑과 관심으로 해결해줄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문제의 회답을 주일학교 교육에서 찾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일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재정적 투자를 시도해야만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세번째는 어린이 구제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 가난과 전쟁과 질병의 희생자들이 되고있는 현실을 볼 때 어린이 구제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합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상호공조를 통하여 기독교가 가지고있는 자원을 효율적인 어린이 구제사업에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네번째는 선교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어린이 선교입니다.

전 세계 흩어져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어린이 사역에대한 다양성을 제공하여 그 나라의 미래 지도자들을 만들어 내는 사역으로 실질적으로 그 나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시설을 개방하여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서 어린이 교육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교회는 어린이들의 교육 현장이요, 생소하지않은 저들의 안식처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와 접촉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교육기관을 만드는 일 이라고 믿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린이 집회를 개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세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한 대형 집회, 복음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교회의 중심에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대대적인 계획을 통해서 매년 어린이집회를 만들어내어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 저들에 교회에대한 새로운 이미지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4/14 윈도우 중점 사역

1. 4/14 Conference - 목사님들이 깨지 않으면 교회는 살지 않는다.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으면 아이들은 버려진다. 목사님들에게 어린이의 소중함과 중요한 것을 전술의 중요한것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일깨운다. 3년동안 전 세계의 약 10만명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다.
2. Power House - 이 시대의 필요로하는 돈없고 돌봐주지않는 교회 밖에있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돌봐주겠다고 영어공부, 미술을비롯한 예능, 태권도 등 여러 체육교육으로 그 아이들의 앞날에 여러가지 지적, 인격적 신앙적교육을 하게 한다.
3. 문화선교 - 아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National impact 를 주기 위한
 - 축구선교 - 한 나라의 아이들과 국민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것이 축구이다.
 - 예수 믿는 축구팀들이와서 하는 경기를 보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함
 - His Life -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여 주는 사역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역, 십자가 수난, 죽음, 부활, 승천을 보여주며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4. Say Pen - 영어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중심 교육 - 유치원부터 언어를가르치면 언어가 바뀌면 사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면 종교가 바뀐다.
5. Global Summit -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4/14 WINDOW MOVEMENT 를 전 세계로 확산하는 일을 한다.

●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Global Summit 이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4/14 WINDOW MOVEMENT 에 필요한 전략, 전술 을 세우고 선교 Resources 를 개발 하여 전세계에 선교사역자 들에게 공급 하고 확산하는 일을 한다.

제 1차 대회

2009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4/14 Window Movement 의 출범식과 선포식을 겸한 Global Summit I 차 대회를 가졌다.

360여명의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4/14 윈도우 사역의 중요성과 급박성을 세계에 알리고, 4/14 서약 초안과 4/14 Window 의 결의문이 재정되었다.

이대회이후 전세계 35개 지역에서 4/14 윈도우 에 대한 지역대회를 개최하여 수많은 선교사 목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우고 있으며, 특히 빈곤지역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복음의 기회를 박탈당한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활발하게 펼쳐고 있다.

제 2차 대회

2010년 9월 2일 (목) - 5일 (주일) 3박4일동안 “ 4/14 Window Global Initiative” 라는 제목으로 프라미스교회 (순복음 뉴욕교회, 담임 김 남수 목사)(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800) 에서 90개국에서 823명의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13개의 주제별로 편성되어 각 분야별로 심층도 높은 회의를 가졌다.

주제별 Track

Pastors / Education / Parent and Family / Parent and Family / Government / Children Spirituality / Children and Transformation in Ministry / Literature / Leadership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 Poverty Transformation / Health / Local Church Children Ministries

제 3차 대회

2011년 9월 6일부터 9일 까지 Singapore 에서 참가국가 91 참석인원 75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 되었다.

제 4차 대회

2013년 10월 15일 - 18일 방콕 태일랜드 에서 참가국 89국 참석인원 796명 (미등록자 포함 1000여명)이 모여 “Rooted and Released” 라는 주제로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세계 변혁의 주체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 말씀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도록(rooted) 어른들이 이들을 훈련시켜야 하며 (2) 그들이 어른 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야(release) 한다는 취지로 회의를 가졌다.

4차 대회의 의의는

1) 어린이를 변두리에서 파트너로/Children as partners

그 동안 어린이는 기독교 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 바탕에는 어린이는 발달심리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는 고정 관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보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장년들이 중심에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항상 주변(marginal)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격의 가치나 영혼의 기능 면에서는 어른들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영적인 감수성에 있어서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충격과 감동을 주었던 순간 중 하나는 마지막 날 폐회예배에서 일어 났습니다. 대회장 마크 맥클렌던(Mark McClendon) 목사가 자신의 10대 청소년 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한 후 잠시 아들에게 마 이크를 넘겨주었을 때, 이 아이는 전 세계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흐느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각국의 지도자들도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식과 익숙과 매 너리즘에 무덤덤해진 장년들의 마음의 호수에 잔잔한 파문이 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의 어엿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십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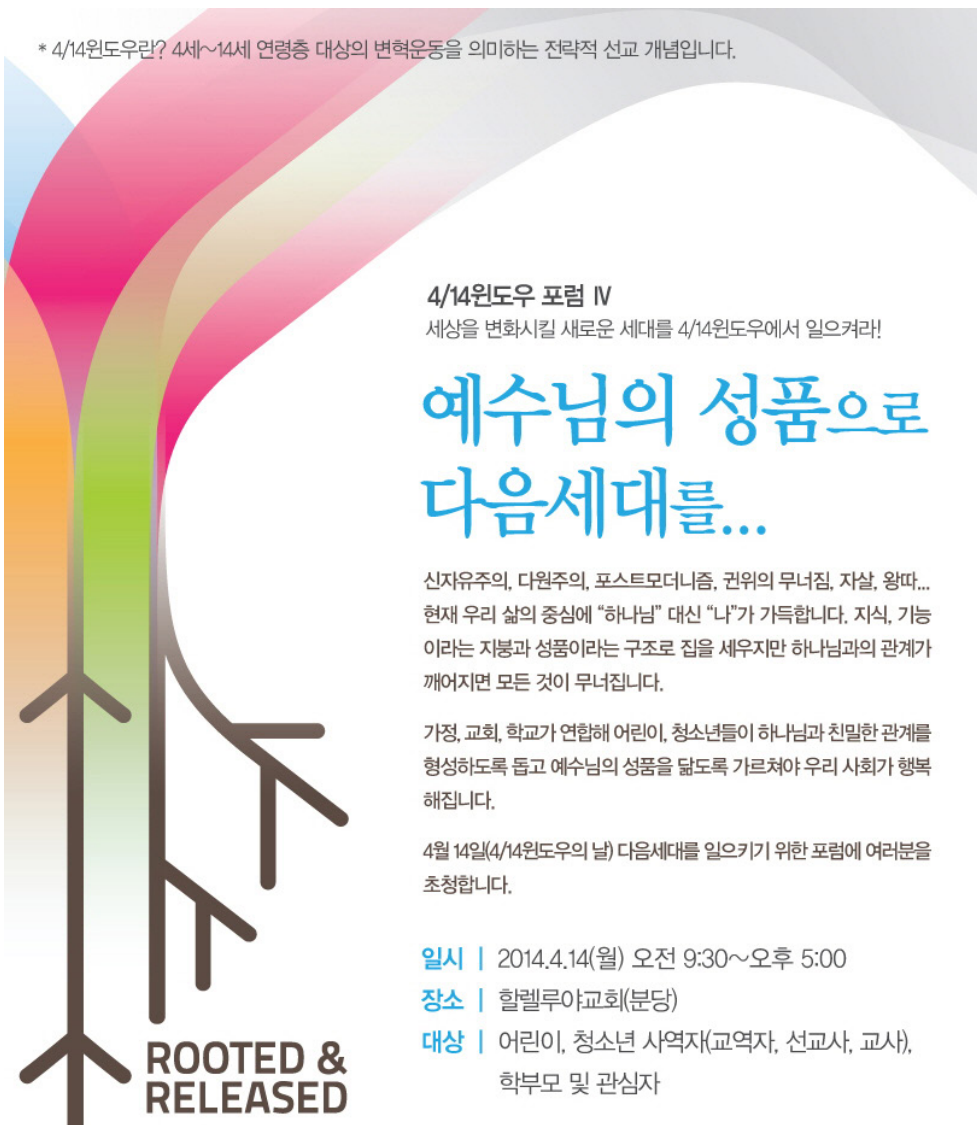
하지만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 선교대회 이후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전략회의가 있어왔지만 어린이를 선 교의 파트너로 인식한 대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글로벌 서밋 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The Great Commission)에서 오래 동안 생략(The Great Ommission)되어온 '선교의 파 트너'로서의 어린이의 위상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2) What & Why를 넘어 이제는 How의 시대로

지난 20년간 세계 선교를 달구었던 10/40 윈도우 운동이 2.5%에서 5%로 복음화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95%가 복음의 불모지로 있는 상황에서, 4/14윈도우 운동은 교착 상태에 빠진 세계 선교의 돌파 구(breakthrough) 로 지난 4,5년간 이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중남미 대륙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이 운동의 개념(What) 또는 중요성(Why)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지역에 맞는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론(How)이다. 전 세계에서 모인 참가자들 대부분도 이 부분에 목말 라 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현재 프라미스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행 중인 어린이 선교 프로젝트인 "Power House"를 소개하 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참가자들에게 내년 10월 10-16일에 있을 뉴욕 프라미스교회에서 전 세계의 4-14윈도우 운동 5대 전략을 시행하는 그 현장와서 직접 보고, 그동안의 4/14 Window 사역의 경험(성공사례, 실패사례) 을 나누게 될것이다.

* 4/14윈도우란? 4세~14세 연령층 대상의 변혁운동을 의미하는 전략적 선교 개념입니다.



4/14윈도우 포럼 IV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대를 4/14윈도우에서 일으켜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세대를...

신자유주의,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권위의 무너짐, 자살, 왕따...
현재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나"가 가득합니다. 지식, 기능
이라는 지붕과 성품이라는 구조로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정, 교회, 학교가 연합해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도록 가르쳐야 우리 사회가 행복
해집니다.

4월 14일(4/14윈도우의 날) 다음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포럼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4.4.14(월) 오전 9:30~오후 5:00

장소 | 할렐루야교회(분당)

대상 |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교역자, 선교사, 교사),
학부모 및 관심자

주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세대를
부제	성품훈련으로 행복한 사회를 꿈꾼다
주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변혁한국
주최	4/14윈도우한국연합
참가신청	다음을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Fax로 발송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 0;"> <div style="background-color: #00aaff; color: white; padding: 5px 15px; border-radius: 10px; text-decoration: none;">온라인신청 바로하기</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f6699; color: white; padding: 5px 15px; border-radius: 10px; text-decoration: none;">신청서 다운로드</div> </div>	
참가비	1만원(교재 및 식대 포함)
입금계좌	외환은행 630-007067-532, 예금주 : 국제사랑의봉사단
문의	4/14윈도우한국연합 사무국 / Tel : 031-704-3914 / Fax : 031-704-3991 E-mail : transform_ko@naver.com / 윤주일 간사 010-6336-2237

●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세대를 4/14 윈도우에서 일으켜라 [코람데오닷컴]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오전9:45분부터 오후5시까지 4/14 윈도우 코리아한국연합은 할렐루야 교회당에서 4/14 윈도우 포럼 IV를 열고 약 200명이 참가하였다.

4/14 윈도우는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을 선교지의 새로운 창으로 인식한 인류학적 선교전략개념으로서 2009년에 발족을 선언한 세계운동으로서 2010년 5월에 한국에서 글로벌 콘퍼런스가 열렸다. 2011년4월 14일 첫 포럼을 열고 매년 4월 14일을 4/14 윈도우의 날로 정하고, 어린이 청소년 세대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용사로 세워가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 환영사를 하는 김상복 목사
(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올해 제 4회 포럼에서는 우리의 사과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나'가 가득한 것이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식과 기능이라는 지붕이 성품이라는 튼튼한 구조로 잘 유지될 때 집은 든든히 서나, 이 구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모두 다 무너져 내릴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다음세대가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히 유지하는 예수님 성품 닮기를 목표로 하여 잘 훈련되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이루려고 모였다.

개회와 인사

허중학 4/14 윈도우 한국연합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 시간이 진행되었다. 먼저 2010년 5월 글로벌 콘퍼런스 이후 4/14 운동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상복 목사(햇볼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환영사를 했다. 어린 시절은 교회가 동네의 최고의 활동의 장이었다. 선생님들의 성경이야기, 게임과 친구가 있었다. 재미의 결집이었다. 전 세계의 이야기를 들었다. 인물들을 배웠다. 최고의 역사의 모델들을 듣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다.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공부에 쫓기는 삶이 되어 인간답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헌은 인격 형성이다. 여기에 교회의 승부가 있다. 마지막에는 결국 좋은 성품을 가진 자가 이긴다. 80대 20의 결과가 시카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가 전문기술이고, 80%가 성품이다. 이런 성품을 위한 적절한 장소가 교회와 가정이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다음 세대를 멋있게 길러내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잘 길러내기를 바란다.

CTS 이영표사장은 격려사를 하였다. 감사한 서너가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싶다. 첫째는 이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심는 일이다. 두번째는 미래를 투자하는 일이다. 아이들은 미래이다. 4-14살이 전세계에 12억이 있다. 이 포럼을 통해 전세계의 부흥이 있기를 바란다. 세번째는 CTS가 주관 방송사가 되어 감사하다. 콘텐츠를 잘 방송하려고 한다. 전국적인 운동이 되도록 방송하면서 격려하기를 원한다.

KWMA 세계선교협의회 서정호 총무가 축사를 하였다. 4/14 인구학적 선교현장에서 수고하는 변혁한국의 사역과 함께 하였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선교현장에서도 열방에 작은 예수를 세우는 운동에 협력하기를 원한다. 감동이 넘치는 포럼이 될 것을 확신한다.

김승욱 목사도 격려사를 하였다. 나무를 심기 제일 좋은 때는 20년전이지만 그 다음 적기는 현재이다. 오늘 나무를 심어 20년 앞을 내다보라. 미래지향적 미국의 속담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오후 2:28을 근거로 성령이 오시면 삼세대를 연합하여 삼세대 비전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매달 한번씩 준비해서 가고 있다. 삼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주님의 꿈을 꾸다. 나무를 심고, 타임캡슐을 심는다. 10년후에 나의 모습을 쓴 타임캡슐을 심었다. 나무를 심는 미래를 바라보는 포럼이 되기를 바란다.

허종학 사무총장이 어젠더 설정을 하였다. 오늘 무엇을 논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도전하는 모임이다. 4/14 운동은 루이스 부시 박사, 김남수 목사, 황성주 박사가 리더이다. 4/14 운동은 연령층으로 분류한다. 15살 이전에 85%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상들이다. 마 18:2-5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본다. 사회적 신체적 관점에서 약자이다. 4/14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낳고 길러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때 공동체가 회복된다.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어린이가 선교의 동역자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rooted(믿음에 뿌리를 내리고하고)하고 released(세상속에서 뺏어가도록)하자.

오늘 4차 모임 이전에 벼랑끝에 아이들(2차) 그리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3차)란 주제를 다루었다. 이제 어떻게 행복을 심어줄 것일까? 예수님의 성품을 다음세대로 (4차). 지식과 전문성+ 좋은 성품이 필요하고 나아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젠더 설정을 했다. 그리고 밖에는 17개의 성품관련 부스가 설치되었다고 소개했다.



▲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세션 프로그램

전체 세션 1부: 성품 교육이 무엇이고 왜 하는가?

이 포럼의 중심인 전체 세션 1,2부가 진행되었다. 세션은 상황 설정을 위한 상황극 혹은 노래 연주와 대담 그리고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구성된 교육적으로 배려된 프로그램이다. 서종욱 대본 작가가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 세션을 진행하는 중심 대담자들은 박영목 변호사[시네마 서비스 실무이사, 올마이티 바이블 대표], 박지희 가수[실용음악과 외래교수], 문병선 선교사 [IBLP대표], 이영숙 교수[한국성품협회 좋은 나무성품학교대표, 건양대 교수]이었다.

박영목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었다. 먼저 GICS[Goodtree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기독교대학 교찬양팀의 성품관련 노래 공연을 보았다. 경청이 무엇인지를 유치원 어린이의 언어로 그리고 초등학생의 언어로 정의한 노래이다. 경청의 어린이의 태도는 귀는 쫑긋 쫑긋, 고개는 끄덕끄덕으로 했다. 조금 큰 아이들은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하는 것이란 노랫말을 불렀다.

대담

이어 대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진행자 둘과 주 강의자들 문병선, 이영숙의 질문 답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청중들에게 이해시키는 대담 프로그램이다.

사회자: 성품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음 세대를...

세번 결혼하는 여자의 여러 장면을 보여준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아버지와 갈등하는 장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나쁜 성품의 여자[내버려둬라-지랄같이 성질대로 산다].

이영숙: 지랄같은 성질이 지성. 지랄같은 성격대로 살거다. 태어난 것일까? 타고난 DNA도 있다. 여기에 성격이 교육을 통해서 덕을 쌓으면 고상한 성품이 된다.

문병선: 성품의 정의는 도장을 가지고 찍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다. 유전적인 기질이 밖으로 드러나면 성격이 되는데, 좋은 생각의 표현이 성품이 된다. 생각, 행동, 습관으로 발전한다.

사: 성품 교육 전후의 변화가 대담자 두 사람에게도 있었는가? 지성[지랄같은 성질]이 있는가?

문: 성품의 한계를 경험했다. 다양한 중독도 경험했다. 본인에게도, 남에게 상처도 주었다. 인간 한계가 하나님의 성품의 시작을 경험하는 자여정이 있다.

이: 모태신앙에서 17살에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만드는 창조주이시다. 본인의 아픔이 성품을 하게 되었다. 지성이 많다.

사: 성품을 정의하는 12가지 49가지를 설명해달라.

성품은 12가지[이의 입장] 혹은 49가지[문의 입장]로 규정된다.

12가지 성품이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예수님)함을 세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을까? 사랑과 은혜를 공감 인지 능력 6가지[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로 정의했고 공의와 진리를 분별력 6가지[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로 만들었다.

문: 인생은 타고난 것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가 성품과 연관된다. 롬12장 성령을 받으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7가지 은사가 주어진다. 각각을 확장할 수 있고 강화되고 균형이 필요한 성품이 7가지가 있다. 그래서 49가지 성품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뽑아보면 49가지이다. 명령을 이루려면 성품이 필요하다. 회개하려면 교만해서는 안된다. 겸손. 지상 명령과 능력과 성품이 연결하여 배우고 익힌다.

두번째 뉴스 화면을 시청한다: 자살, 부모살해교사, 영아 살해, 사회적 부정- 직장 동료 살해, 의사 면허 시험 부정, 층간 소음 살해 등이다.

사: 화면을 보면서 참 세상이 말세라고 생각한다. 뉴스를 본 소감이 어떤가?

문: 공감가는 내용이 있다. 제 안에도 동일한 죄성이 있다. 층간 소음을 인간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성품은 하나님의 지혜, 관점으로 보도록 눈을 열어준다. 하나님은 층간 소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들어내고, 성품으로 인도하시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계에서 부르심을 알게 된다.

사: 성품 교육으로 극복가능한가?

이: 현실을 말한다. 재림의 위기를 느낀다. 이지금까지 되었을까? 사회 문제를 국가가 인식하기를 인성의 부재로 보고 교육의 대안으로 찾으려고 한다. 왜 인간의 한계에 다달았을까? 우리가 가진 생각의 전환과 기독교인

적인 세계관이 무너져나갔기에(하나님이 선이셨던), 상황윤리, 포스트모던의 윤리가 점령했기 때문이다. 시대적 심각한 사안이다. 성품교육으로 되지 않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좀 먹었고 사상들을 바꾸어갔다. 우리가 어떻게 공감하며 회복할까? 미국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졌음을 공포했다. 오바마는 유엔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교육이 영적 전쟁터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활시키고 회복시켜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이 더 우월함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가르쳐주어야 한다. 하나님 세계관을 세상에 알리고 문화적 접근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기독교인들이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

문: 동감한다. 지혜의 반대는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인간의 관점은 낙망과 좌절이고 한계 죽음으로 간다. 하나님의 관점이 지혜이다. 절망상황에서 믿음이 생긴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긴다. 미움가운데서 사랑이 회복된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성품의 회복을 말한다. 사람들은 정부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예수님께 다시 말하면 여기있는 기독교인에 희망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질타를 한다. 희망의 불쏘시기가 될 수 있다.

사: 성품교육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지? 변화된 개인이나 사회의 실제적 사례가 있는가?

이: 놀라운 변화에는 속은 것이 있다.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기에는 잘못된 철학이 있다. 인지론적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 청소년 자살한다. 배경에는 성취 중심의 가치가 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왜 몰아갔는가?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에 살았다. 하나님이 없는 인지론적 세계관 즉 똑똑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상이다. 대표적 예가 콜버그의 인지론적 도덕발달론이다. 인간이 어떻게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인지가 발달해야 도덕이 발달한다고 가르친다. 0-3세는 자기 중심적인 인성의 시기이다. 자기 중심적인 인성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 양심에 의한 인성은 18세 이상 되어야 인지가 발달해서 양심대로 살수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초등 중등 교육 현장에서 양심을 가르치지 않는다. 먼저 인지가 발달해야 양심이 발달하게 된다고 해서 그 결과 양심없이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성취의 끝이 비교 열등이 되고 우울, 자살 등의 결과가 초래된다.

배려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주는 것이란 것을 배운 어린이 집 아이가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아이들을 막아 섰다. 왜 그러는가를 물었을때, 그 아이는 이름모를 꽃들도 배려해야지요. 이렇게 금방 배려의 생각을 가지게 된다. 양심

은 인생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떻게 양심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 교육을 하니 어린아이가 변화가 된다.

제주도의 경우가 있다. 이혼한 아빠가 키우는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부모가 4년만에 합친다. 이 아이들은 제주 영락교회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된다. 이런 변화의 이유를 알고서 아버지 성품학교에 참석했다가 이혼한 부부가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다시 합쳤다.

문: 제 자신의 삶이 어려웠다. 제 아내의 말을 2시간 들 어주면 많이 들어준 것인데도 아내와 잘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 책임의 원리가 중요하다. 책임은 아내가 이야기 하는 것에 100%를 인정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잘못을 100프로 인정하니 죽을 맛인데 속에 놀라운 평 화가 생긴다.

다른 예이다. 어떤 아내가 의부증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 흥신소도 동원하고 경찰도 동원했다. 처가집과 원수가 된다.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다. 아내의 모든 잘못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그 분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내의 탓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가정이 회복되고 6개월 뒤에 장모 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책임감의 성취를 위해서 자아가 죽어야 한다. 100프로 인정 할 때 상대방도 회복된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청중의 질문: 목회자. 운전할 때 성품이 드러난다. 어떻게 다스릴수 있나요?

문: 딱지를 떼이면 화난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롭습니다고 고백한다. 성품은 더하기가 아니다. 완전히 나 무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예수님 앞에 죽으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은혜이다.

이: 그 순간 기쁨이 깨어지려고 할때 하는 행동이 있다. 잠시 상황을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한다.

문: 내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철저한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붙잡은 능력이 참된 것이다. 하나님 움직일 때, 삶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접 목될 때 진정한 기쁨이다.



▲ 강의하는 이영숙 교수

주제 강연/ 다음 세대를 왜 예수님의 성 품으로 교육해야 하는가?

왜 지성에 관심을 가졌는가?

86년 시카고로 유학을 갔다. 결혼 기념일 스승의 날 겸해서 워싱턴 DC이동원 목사님댁에 가서 일주일동안 지낸다. 이 목사 말이 아이를 보고 엄마 닮아 지성적이고 아빠 닮아 개성적이다.

성품이란?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적 개혁이다.

다음 시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겠는가? 드라마와 영화가 주도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군대 동성애법 폐지하자는 입법안을 내었다. 성적 취향을 풀어주자. 균형법 92조 6항 폐지안 발의했다. 기본권 침해로서 입법 취지를 말했다. 그러나 7만건 이상의 반대 의견으로 가지고 다행히 반대로 입법되지 않았다. 메사추세츠는 통과되었다. 학교에다가 동성애의 실천적 방법을 가정에 맡기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한 기독교인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것이 합법화가 가진 위험이다. 공무 방해죄이다. 우리가 개별적인 교회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역시 성적 취향을 학생에게 인정하고, 미혼모 법을 인정하자고 학생 인권 조례법 입법예고되었지만 결사 반대해서 입법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왜 이런 세상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를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왜 벌어질까요? 하마르티아 고의적인 법이나 명령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나 아노미아는 불

법을 행하는 세대로서 죄 자체를 무시하는 시대이다. 하마르티아에서 아노미아로 넘어간다. 바로 이세대가 선이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안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성경이 하나님이 참된 선이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문제 제기- 성품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품교육이 이 시대적 상황을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동성애법 반대하니 개독교라고 편견을 가진 자라고 욕한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런 입법들을 반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레18:22, 20:13, 고전6:9-10. 이것은 원리이다. 동성애는 창조의 원리에 배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를 해체시키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다. 성품교육이란 것은 단순한 교육의 측면만이 아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가치로 세워진 나라였다. 그들의 교육은 성경이다. 가구들이 모이면 예배를 중심했고, 100가구가 모이면 학교를 세웠다. 학교 교육을 통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러나 필 빈센트는 이제 미국은 기독교 세계관을 계승하지 못하다고 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선이라는 교육의 개념이 무너진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요청이었다. 여기에 니체의 신은 죽었다는 선언과 다윈의 진화론은 신 대신에 상대주의적인 인본주의 철학이 득세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선이 아니게 되었을때, 그 선의 자리에 인간이 선이 되는 인본주의 철학이 들어가게 되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중심의 교육이 구성되고, 존 듀이의 실용주의와 과학 만능주의 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성공이 아니고, 교육으로 여기지 않음으로,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이다. 기독교세계관이 무너지고 난 후에 두가지의 철학이 (인간)가치 명료화 사상(선의 개념 변화), 인본주의 철학이다. 가치명료화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명료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선이다. 모든 교육의 철학의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회복되려면, 우리가 그 가치대로 믿고 살때 더 가치롭다는 것이 인정이 될때, 그아이들이 따라온다.

가치 명료와 사상이 깊이 들어와있다. 현재 좋은 성품교육을 가지고 77개의 학교에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 훈련 시간중이었다. 질문을 받았다. 상담의 원칙은 해답을 주지 않는 것이다. 고민을 가진 아이들이 스스로 풀도록 하는 것이 상담의 원칙이다. 그런데 박사님의 좋은 성품 교육에서는 가치의 정의를 주고, 해야된다는 지침을 준다. 이것은 기존의 상담의 원리와 대립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 현재 왜 많은 교육과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가치를 형성하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명료화 사상이 만든 것이다. 상담을 할 때 아이들에게 분명한 지침과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것을 현재 서울 인천중심으로 이런 것을 심으려고 한다.

미국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총기 사건들이 일어난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학교로 보내고 홈스쿨링을 한다.

최근 인성주의 교육 운동이 일어난다. 최소한의 선을 주는 운동이다. 최소한의 규칙을 주는 학교를 만들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인성교육도 역시 인본주의적이다.

토마스 리코나는 책임있는 윤리교육, 책임, 존중 등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존중의 의미 차이가 있다. 다름을 잘못으로 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서로 참견하지 말자. 각자 스타일로 살자. 이것이 존중이다. 미구는 다문화 사회. 다 종교사회이기에 그렇다. 그런 존중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존중은 다름이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존중하다. 존중의 다른 가치이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누리과정의 온다. 교육으로 하지만 해결될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해야 한다. 학교에 기독교적 인성교육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세상의 언어로 학교로 들어가야 한다.

기독교 교사 선교대회가 있다. 25회까지 교사를 키우고 있다. 북한에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치도록 훈련한다. 7회때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 네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친다. 그 날부터 성품 여행을 하였다. 이로써 한가지를 정립했다. 세계관의 정립이다.

세계관의 정립. 성품을 고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가치 세계관으로 교육속에 흘러 보내는 것이다.

세계관은 항해 지도와 같다.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를 우리의 내면에 새기는 것이다[1981 낸시 피어스]. 세계관 교육을 하게 되었다. IBLP를 만나게 되었다.

왜 성품교육을 해야 하는가?

아노미아 시대는 도덕법자체를 폐기론하는 것이다. 이들과의 전쟁이 주님 오실때까지 계속될 것이다[살후 2:3, 7-8절]. 성품교육을 선교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좋은 나무 12성품학교를 만드면서 가진 기초가 있다. 우리의 목표는 진리를 말만이 아니라 삶의 각 영역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의 행위로 구현해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중심의 세계관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가장 탁월한 몸짓은 살아내는 것이다.

성품의 어원은: to mark. 새기는 것이다. 조각하는 실체가 성품이다. 반복하면 새겨지는 것이다. xarakte 성품의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지적의를 사용해서 교육해야 한다. 사람의 됴됨이가 사전적 정의지만 추상적이다. 그러면 교육할 수 없다.

성품이란 한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그래서 성품과 세계관과 분리될 수 없다. 그 시대의 문화와 연결된다. 세계관이란 언어를 가지고 와서 말씀에 중심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지고 와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화속에 흡수되어야 한다. 교회들이 해야 할 방향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는 것이다. 헌신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세상속에 흘러보낼 수 있을까? 한국형 12성품 교육을 만들었다. 교육의 모델을 만드는데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 한국형 12성품론이란 책을 만들었다. 기독교 성품론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흡수될 수 있을까? 문화적 접근으로 갈 수 있을까? 평생 교육 과정으로 접근했다. 태어교육에서 노인교육까지 진행한다.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다.

한국형 12성품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서양의 인성 교육은 우리 상황에 효과가 크게 없다. 사고 방식과 행동 결정 패턴이 다르기에 한국의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힘들다. 한국사람들에게는 관계를 주의해야 한다. 개인보다 관계를 살피야 한다. 관계주의 문화권의 영향이다. 또한 유교문화의 영향의 어려움, 정을 중시한 민족적 영향도 있다. 사머니즘의 무속신앙과 한의 문화가

형성된다. 환병등이다. 교육으로 풀어내는 것이 한국형 12성품 교육이다. 이 중심이 성경과 탈무드를 기초로 한 절대가치를 가르친다. 유대인 교육을 빗대어 주장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삼는다.

은혜와 진리[요1:14]와 정의와 공의[렘9:24]에 기초로 내서 공감 인지 능력 6가지와 사회적인 책임감을 위한 분별력 6가지를 형성한다. 이것이 방송통신 대학방송과 EBS 등 메스컴에서 방영되어서 검증되었다. 그리고 많은 논문으로 계속 발표되고 있다. 세상의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논문으로 효과 검증이 되어야 한다. 교사 교육에 인성에 대한 효능이 좋다. 학교 폭력으로 어려웠던 안양의 학교에서 12성품교육을 했을 때, 8주과정을 했는데,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친사회적태도, 관계기술,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의 전생애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영혼의 주인 되시는 지손자 앞에서 살게하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 일은 지성을 새롭게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 일 수 있으나 이 시대의 사명이다. 진리를 말살시키고 거짓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을 물들게 하려는 마지막 시대의 환란에서 다음 세대를 구출하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다. 하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신을 훈련시키게 하는 성품 교육은 지손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시91:1]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이다.

강의 후 플로어 대화 질의 응답이 계속되었다.

강의에 대한 질의 응답

질문: 성품은 거듭나지 않으면 훈련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품교육과정속에 거듭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 일반학교에서 변화를 목표로 개발했다. 12성품 개발했다.

배려의 경우, 세상을 살피는 것이다. 문화적 사명을 성품 교육 속에 넣는다.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현재 인본주의 중심의 진화론적 세계관이 잡고

있다. 완전학습, 자아 실현에 초점이다.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좌절한다.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좌절한다.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는다. 전략적으로 한다. 성경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와 교회 라인을 달리해서 사용한다.

질문: 예수님의 성품이란 무엇인가? 탁월한 도덕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문: 성품 교사들이 교육을 하고 있다. 기업 교육도 한다.

거기서 어떤 분이 자신이 성품 교육을 하지만 어떤 때에 용서가 안된다고 고백한다. 자기 한계를 느낀다. 모든 성품교육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을때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자아가 죽는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안에서 흘러나가야 한다.

질문: 예수님의 성품과 석가모니의 성품의 차이는

이: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채 죽어갔다.

질문: 피는 못속이는 부모의 성품이 유전된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이런 유전적 성품의 극복 방안이 있을까?

문: 도를 닦는 것은 어느 정도 변화를 가지고 온다. 저의 경우 형제들이 비슷하다. 화를 잘낸다. 그래서 화 공화국 출신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성품은 가족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영역을 회복하게 하신다. 화의 반대는 온유이다. 온유는 섬길 마음으로 나의 권리와 기대를 내주는 것이다. 내 기대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내 권리와 기대는 죽는 것이다. 시62:5절에 내 기대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되면 죄의 회개가 된다.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 것이다.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회개는 깨어진 관계를 통회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빼앗긴 요소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피는 못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신다. 깨어진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것이 성품이고 능력이다.

이: 피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기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많은 부분 같은 상황을 가족에게 반복하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22:6절]. 마땅히 가르치면 자신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한다.

오전의 주제가 "성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해야 하는가?"에 맞추어져 있다면 오후시간에는 성품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이다. 오후 시간도 역할극과 대담 그리고 문병선 목사의 49성품론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게 될까요를 다루었다.



▲ 전체 집회상황

2부 세션: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세울 수 있을까?

문병선 목사의 주제 강의이다.

이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목적들을 완성하시나로 번역된다. 하나님께서는 압력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압력을 사용하시는가? 압력을 사용하시는 원인이나 이유는 책망[징계]과 시험[확인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런 압력에 대한 반응이 있다. 잘못된 반응과 올바른 반응이다. 잘못된 반응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반항하거나 나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때 갈등을 일으키고,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맞게 된다. 그래서 7가지의 잘못된 반응이 나타난다. 화, 죄책감, 두려움, 욕욕, 쓴뿌리, 시기, 탐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협력하는 반응을 할 때, 나는 만족하게 되고 충실하게 된다.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워진다[시24:3-6]. 그래서 화는 긍휼과 온유로, 죄책감은 내적 평화로, 두려움을 완전한 사랑으로, 육욕을 진정한 사랑으로, 쓴뿌리를 완전한 용서로, 탐욕을 후한 영으로, 시기를 신실한 감사로 변화가 일어난다.

압력을 사용하심에 있어 어떤 것들로 하시는가? 일시적인 의미들을 지닌 것들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몸, 권위자들, 재정, 환경, 결혼 관계, 삶의 목표, 양육등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롬8:29]. 이것은 우리가 다가올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것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목적지를 확정하신다. 일시적인 것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상급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을 압력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49가지 성품들을 말한다. 49가지 성품들이란 진정한 사랑의 반영들이다. 또한 자기 기준과 세상 기준이 죽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의 표현이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 성품 정의를 읽어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사59:19].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다.

이후 자유 선택 강의를 세가지 준비되었다.

서석만 목사가 성품 교육에 있어서 사역자의 역할, 박판기 목사가 당신도 칭찬의 대가가 될 수 있다, 여삼렬 목사가 갈등을 해결하는 성품이란 제목으로 선택식 강의를 했다.

4살부터 14살 어린이 청소년을 인구적인 선교개념으로 설정하고 저들의 현실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 것인가 고민하는 아름다운 교사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나아가 성품의 문제를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기독교 세계관의 번역이 얼마나 가능할지의 문제가 있다. 이는 참된 문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이룰수 있다는 카이퍼리안과 스킨더의 견해 차이가 생긴다. 성품 교육을 통해서, 지향되는 것이 세상의 언어로 바뀌어져만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언어와 모범이 고백적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여전히 질문되고 있다. 한계안에서라도 보여야 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코람데오닷컴] 2014.04.22



toward Best Practices

4/14 New York Conference



- **WHEN:** 2014. 10. 10(FRI) - 16(THU)
- **THEME:** "TOWARD THE BEST PRACTICES"
- More than 1,000 Christian leaders come & share their amazing stories.
- PMI provides lodging, food, transportation, a city tour, a free viewing of 'His Life' the musical, Power House program classes and seminar, a concert and Sunday Service etc.

● 4/14 윈도우 뉴욕컨퍼런스 개막...세계선교 이정표 제공 [기독일보]



'4/14 윈도우 뉴욕 컨퍼런스'가 10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막,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4/14 윈도우 뉴욕 컨퍼런스'는 '4세부터 14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각지 선교지에 퍼져가고 있는 '4/14 윈도우 선교운동'의 학술적 이론과 선교 현장에서의 적용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세계선교전략회의다.

개회예배는 세계 각국 어린이 사역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트리차드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루이스 부시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선교 전략의 새로운 이정표가 제시될 것을 기대했다. 이어 미국 AG 총회장인 조지 우드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4/14 윈도우'는 '10/40 윈도우'를 처음 주창한 루이스 부시 목사가 2009년부터 김남수 목사와 함께 도입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기존 '10/40 윈도우'의 지리적 개념에서 벗어나 '4세부터 14세'라는 연령적 개념에 초점을 맞춰 선교해 나가는 운동이다.

이번 '4/14 뉴욕 컨퍼런스'에는 세계 89개국에서 총 1107명이 참가했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 204명, 라틴 아메리카 382명, 아시아 274명, 북아메리카 82명, 유럽 44명, 호주 2명 등 현재 어린이 선교가 활성화됐거나 도입이 절실한 지역의 사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어린이 사역자들은 주말까지 프라미스교회의 4/14윈도우 선교 프로그램을 직접 견학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 프라미스교회는 대표적인 사역인 뮤지컬 히즈 라이프 공연을 비롯해 음악 콘서트, 축구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선교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한 어린이 선교에 나서고 있다. 이에 프라미스교회는 이러한 사역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코너를 대회기간 중에 운영하며 선교 노하우를 전수한다. 아울러 플러싱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태권도 등을 가르치는 '파워하우스'도 견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대회기간 중에는 히즈 라이프 공연이 총 5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교전략 논의에 들어간다. 주제강의와 주제토론을 비롯해 선교현장에서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어린이 선교현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하며 더 나은 '4/14 윈도우 선교 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4/14 윈도우 뉴욕 컨퍼런스'의 총 진행 예산은 60만 불로 지난 1년 전부터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이 이 대회를 위한 헌금을 진행해 총 50만 불을 예산으로 확충할 수 있었다. 또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이 컨퍼런스 기간 중 공방픽업을 돕고 숙소 및 식사 등도 제공하는 등 프라미스교회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이 돋보이는 대회이기도 하다.

제27차 전국년차총회 세미나

2014년 6월 12일(목)-14일(토)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

"선교적 교회로"



배현찬 목사 / KWMC 공동의장, 주 예수교회

세계적인 선교운동과 교회연합 운동에 기여했던 '레슬리 뉴비긴'(Leslie Newbigin)의 새로운 선교적 고찰에서 비롯된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운동은 "성경, 문화적 다양성, 지역공동체"를 선교의 신학적 원리로 삼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신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문화 속에서 각자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신다"는 선교적 교회의 세가지 핵심 요인은 성서전승 (Biblical Tradition), 문화수용 (Culture), 지역사회 (Community)이다. 최근 한국교회 개혁의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는 기존의 Missionary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과거 지리적 개념이 강한 해외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선교를 교회가 처한 문화상황과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선교를 말한다. 전통적인 선교사역이나 프로그램인 선교행위 (Doing Mission) 보다 교회존재 자체가 선교로써 존재하는 (Being Mission) 선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회 본질 회복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신앙공동체를 구성하는 신자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적 사역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선교적 사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공동체의 실제 상황이 되는 문화와 지역사회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바람은 지난 15년 동안 북미주와 호주 선교학자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탄생된 선교운동 (GOCN: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를 통해서 점점 활성화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적인 선교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 서구지역을 선교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해왔던 현대 선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변화된 지구촌 사회현상을 주시하면서, 서구 문화와 사회 자체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지역사회중심의 선교적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존스토틀 (Jon R. W. Stott)의 주장대로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침투하되 동화되지 않는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시대적인 선교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지역과 사회를 막론하고 점점 다인종, 다문화 되어가는 지구촌 선교현장에 제기되는 새로운 선교주제 일 뿐 아니라, 지구촌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PCUSA)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2년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하여 한인이민목회 로드맵을 제시하며,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를 봉헌하는 주 예수교회가
"선교적교회세미나"(Missional Church Seminar)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선교적 건강한 교회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2014.6.12(목)-14(토)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최형근 교수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
(선교사멤버케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 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김종국 선교사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인도네시아 선교사역 30년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F) 공동의장



배현찬 목사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주 예수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미주기아대책(KAFHI) 이사장



노승환 장로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참여 (Practicum) 노숙자 숙박사역 (Caritas/교육관), 노숙자 식사사역 (Monroe Park), 빈민촌 주택보수 (Renew Crew/리치몬드시), 영상 (산골빈민촌사역, 인종화합합창제, 한국음식문화축제)

숙박 Sheraton Richmond Park South Hotel **등록인원** 30명 **등록비** \$100 (교재 및 숙식), 선교사 (등록비면제)

등록처 주 예수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관** 주 예수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후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KWMC)

주 예수교회 |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 560-7500 | WWW.LJKC.ORG

선교적 교회론 [제1회 선교적교회세미나]



최형근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하트스트림 한국센터 대표
국제 로잔복음화운동 로잔신학위원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 지적한 대로, 서구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 이래 엄청난 변화를 겪어왔다. 즉 교회와 국가의 타협으로 인해 중세교회는 그 본질적인 활력을 상실하고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서구교회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세계관의 타협을 통해 기독교의 본질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구교회의 뒤를 이어 세계선교의 첨병 역할을 자인하는 한국교회는 1980년대 말까지는 그 활력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서구교회가 걸어온 길을 답습하고 있으며, 성장정체와 교회 내부의 다양한 부정적 양상들로 인해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급속하게 상실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상황과 선교적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교회가 걸어온 자취들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결국 교회의 “대조사회적이고 대항문화적인 특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과연 교회가 복음을 말(word)과 행동(deed)으로 증언하는 가운데 보냄 받은 세상, 즉 교회의 삶의 자리인 지역의 사회문화에 복음으로 육화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과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회의 본질적 모습의 재발견

현재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을 타개하고 회복할 일련의 대안으로서 한국적 선교적 교회 운동이 주변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신학교들도 위기의 시대에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들을 위해 교육방향과 커리큘럼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신대원생들은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미몽에서 깨어나 보냄 받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작은 교회 운동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기와 숫자, 그리고 전문성, 효율성, 실용주의적 접근에 도전하는 급진적 변화이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한국교회는 절망과 희망의 교차로에 서 있다. 한국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교회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갱신운동들과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인식변화, 그리고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을 엿보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선교적 교회론이 서구교회의 자기반성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서구교회가 경험한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 세속적 지배문화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갈 실마리들을 발견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제1회 선교적교회세미나]



김종국 선교사 / 인도네시아 선교사
KWMF 대표회장

1983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고신 총회(KPM)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 올해로 만 31년이 지났다. 그 동안에 Biola 대학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며, 지난 2012년 부터는 세계 한인 선교사회 (KWMF)의 공동회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미션 (Missio Dei)를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달려왔다.

현장 선교사로서 바라본 오늘날 지구촌 시대에 전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 특히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사명은 그 어느때보다 도전적이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끊임없이 변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이 땅의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긴박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제 세계가 지구촌 마을 (Global Village)로 변해버린 이 시점에서, 선교 현장의 변화와 동향, 그리고 총체적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르심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지구촌 선교 시대에 바른 성경적 선교 공동체가 회복되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 맡겨진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지구촌 현장 속에서, 그 현장 속의 지역 사회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영적 능력을 갖춘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내에 잠재해 있는 선교 자원들의 지속적인 동력화이다. 이것은,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 지도력의 상호 협력구조 구축과 더 나아가 선교지 교회와 피선교지교회가 함께하는 세계교회(Global Church)에 의한 세계선교(Global Mission)를 지향할 때 실현가능하며, 그에 맞추어 구체적인 전략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 [미주크리스천신문]

선교적 정체성 강조하는 교회본질 회복운동 선교적교회 핵심: 성서전승, 문화수용, 지역사회

제1회 선교적교회세미나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가 오는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에서 개최된다.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가 주최하고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가 주관하며 한인 세계선교협의회(KWMC)가 후원하는 본 세미나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를 걸고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주 예수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노숙자숙박 사역 및 식사 사역, 빈민촌 주택보수, 산골빈민촌 사역, 인종화합 합창제, 한국음식문화축제 등 지역사회 선교현장을 참여하고 견학을 통해 참가자들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적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주강사로는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 선교학 교수, 국제 로잔위원회 신학위원)가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를 강의하게 되며, 김종국 선교사(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회 공동의장)가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배현찬 목사(주 예수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 공동의장)가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노승환 장로(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의사)가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이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강연을 하게 된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주 예수교회는 지역사회와 미국 문화에서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는 교회다. 특히 담임 배현찬 목사는 교회 존재 목적을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다문화 선교, 사회선교, 인종간 화해 사역, 문화축제 등 한인교회로서는 매우 모범적 방식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사역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PCUSA)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에는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해 한인이민목회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를 봉헌한 주 예수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적 교회의 모델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에게 제시할 전망이다. 배현찬 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처한 문화 속에서 각자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셨고 선교적 교회의 세 가지 핵심요인은 성서전승, 문화수용, 지역사회"라고 요약했다.

또한 "과거 지리적 개념이 강한 해외선교의 관점에서 보는 선교관에서 교회가 처한 문화상황과 지역사회에 중점을 둔 선교를 지향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이라며, "전통적인 선교사역이나 프로그램인 선교행위(Doing Mission)보다 교회존재 자체가 선교로서 존재하는(Being Mission) 선교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회 본질 회복운동"이라고 말했다.

배목사는 "존 스토틀가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적인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침투하되 동화되지 않는 특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시대적인 선교운동이며 어느 지역과 사회를 막론하고 점점 다인종, 다문화 되어가는 지구촌 선교현장에 제기되는 새로운 선교 주제일 뿐 아니라 지구촌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당면과제"라고 말하며 금번 세미나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한인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30명으로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등록비는 교재 및 숙식을 포함해 100 달러, 단 선교사는 등록비가 없다. 등록처는 주 예수교회로 전화(804-560-7500/7509)나 홈페이지 www.jolc.prg로 등록하면 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이성자 기자] 2014.4.12

"주 예수교회 주최, 제 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두레신문]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란 주제로 지난 6월 12일(목)부터 14일(토)까지 새로 건축된 주 예수교회 디아스포라사회선교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인 최형근 교수,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학장이며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F) 공동의장인 김종국 선교사, 주 예수교회 담임이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인 배현찬 목사와 주 예수교회 장로이며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노승환 장로가 주강사로 참여하여 중, 동부 지역에서 온 40여 명의 목사, 선교사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최근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퍼져가고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와 목회의 실제적 적용에 관해 논의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첫 번째 강사로 나선 최형근 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에 관한 연구”라는 두 번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대해 언급하며,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그리스도인들)를 세상에 파송했음”을 강조했다. 최교수는 특히 교회의 존재 목적에 근거한 선교적 교회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교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선교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증거하고 구속과 화해를 이루는 변화의 대리인임”을 역설하였다.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를 주제로 강의한 김종국 선교사는 지난 30년간 인도네시아 선교사역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적 교회의 역사 배경과 바른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통적 교회에서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선교와 달리,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모든 예배, 교육, 교제, 봉사가 지역과 세계를 향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21세기 지구촌 선교동향을 선교학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으로 구분해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세미나 참여자들의 시각을 넓혀주었다.

다인종 다문화되어가는 미국 사회에서 지역사회선교와 인종화합 사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 예수교회의 배현찬 목사는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타인종에 대한 편견의식을 버리고 지역 주류사회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건강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때야 비로소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배목사는 주 예수교회가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과정을 목회적 입장에서 간증함으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노승환 장로의 강의를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철학이 교회공동체의 사명과 구성원 모두에게 어떠한 결실로 나타나는지 증언함으로써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 현상을 제시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이론적으로만 전개되는 다른 세미나들과는 달리, 참석자들이 현재 주 예수교회가 실시하는 면로공원 노숙자 급식선교, Renew Crew 독거노인 및 장애인 주택보수의 현장과 CARTAS 본부를 견학하고 주 예수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숙자 숙식선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35명의 노숙자 여성들과 식사와 교제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실질적인 도전과 필요성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마지막 날 진행된 질의와 응답 시간을 통하여 리버티 신학교 박대중 목사는 “선교적 교회의 철학과 교회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강력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문태호 전도사(필라초대교회)는 “현재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여러 교회와 신학교들에 의하여 현대교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실제적인 적용의 현장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주 예수교회를 알게 되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현직 선교학 교수와 선교사, 이민교회 목사 및 평신도 지도자로 구성된 강사진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는 선교적 교회의 학문적 이론과 목회적 사례의 균형 잡힌 강의들이 현재 이민목회 사역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민교회를 준비하는 참석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박은우 목사(워싱턴서머나)와 장원호 목사(프레드릭스버그)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평신도 대표가 함께 강사로 섬기는 것이 특별했다”며 “교회 공동체가 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 아래 한 몸 되어 있는 모습이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시카고에서 온 정승호 사무국장(미주기아대책기구)과 필라델피아의 한명구 선교사(WEC 국제선교회 미주본부)는 기관선교사로 이번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와 교회성도들의 따뜻한 섬김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미주 선교사로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배움과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강인호 목사(주 예수교회 선교담당)는 “미국 동부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선교적 교회 세미나를 통하여 건강한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며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2회 선교적 세미나는 2016년 5월에 열릴 예정이다.

Life As Worship/Work (LAWW)

KWMC 명예의장,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 류효명 장로



명예의장 류효명 장로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1.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어, “abad”

‘아바드’는 ‘일’로도, ‘예배’로도 번역할 수 있다.

2. 신약에 나오는 헬라 어 ‘latreia’ ‘leitourgia’

‘라트레이아’와 ‘레이투르기아’는 ‘봉사’, ‘섬김’, 또는 ‘예배’로도 번역할 수 있다.

3. Cultural Mandate: (창 1:28);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 땅을 정복하라.
3).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셨고, 이어서 ‘일’을 맡기셨다.
-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존엄성과 의미의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과 비슷한 일을 땅에서 행하는 선물이란 말이다.
- 우리 모두는 할 일이 있다. 아주 ‘고차원적인 일’인 ‘하나님의 피조물을 경영하는 일’이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남녀 노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
- 모든 직업은 -어떤 것이든- ‘세상을 경영하라’는 이 명령에 비추어 볼 수 있다.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가 누구이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처럼'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일꾼'으로 만드셨다.
- 종교 개혁자 율리히 쾰빙글리(1484-1531)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꾼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것은 이 우주에 없다."

4. 피조물의 청지기들

- 청지기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말이다.
-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위탁받아서, 소유주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사람을 가리킨다.
-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로부터 온다. 다시말해 우리의 존엄성은 '피조물의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 vocation(직업)의 어원인 Latin어 vocare는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다.
-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시고 그것을 '개발할 책임'을 맡기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문화를 창출'하라고 부탁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자재들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장인의 기술'이다. (문화사명; Cultural Mandate)
- 단순한 잡일부터 아주 힘들고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경이이며 기적이다.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일'하도록 즉,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땅을 다스리라고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이다.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됨에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5. 일과 결혼

- 그리스도인에게 혼인의 깊은 의미는 결혼을 '제자됨의 한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섬김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발견된다.
-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행복의 천국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혼함으로써 '세상과 인류를 향한 책임'을 맡는 부서에 임명받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라고 결혼 축사를 했다.

6. 일하기 위해 사는 가, 살기위해 일하는 가?

- Dorothy Sayers는 말하기를 "일은 원래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 일을 하는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동역자와 청지기'가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7. 일과 여가

- 놀이와 휴식은 삶에 지친 우리를 재충전해 주는 생활의 속도나 리듬의 변화이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Re-Creation)
- 은퇴란? ;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여유있게 하는 시간, 또는 아예 새로운 분야에 노력을 경주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일의 양과 속도를 알맞게 조절해서 한다는 것이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다.

8. 일을 하는 새로운 이유들

1) 감추어진 생명

- 골 3:1-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이다.
-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안에 '감추인'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진행된다. 그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우리가 행하는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일은 바로 '위엿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

2) 그리스도인의 증인

- 골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추인 생명'을 기초로 하여, 바울 사도는 일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동기를 부여한다.
-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하라. 이 말은 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예수를 의지해서 그의 "종과 대변자와 증인"으로서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단지 '거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나은 장소가 되어야 한다. 소금은 또한 사람들을 목마르게 한다.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봄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생활 신앙"...

3)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 골 3:22-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 두려움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본질적인 신성함을 가리킨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는 자가 갖는 감정이다. 일을 하되 주님께 하듯 한다는 것은 '단연코 거룩한' 것이다.
- 처음부터 세속적인 일이란 없다. 오직 두 종류의 마음가짐이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일"과,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다른 무엇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일"이 그것이다. 부역의 싱크대 앞에 이런 경구가 붙여진 것을 본 적이 있다. "매일 세번씩 여기에서 '신성한 섬김'이 행하여 진다." (참된 크리스찬 테스트)

4) 그리스도의 보상

- 골 :23-2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work service)
-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 우리가 직장에서 전심으로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기도 하다. (Work As Worship/Mission)
-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그 분, 그 분, 그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이시며 상전, 성실하게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보답을 주시는 이, 바로 그 분이다.
- 예배든지, 일이든지, 그것이 Worship service 와 Work service(일을 통한 섬김)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해 진다.

5) 사랑이라는 요소

- 직업에서의 소명에 불가결한 요소는 사랑이다. 우리의 일을 기쁨으로 덧입혀 주는 것은 "나눔에 대한 사랑"이다.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며 친밀한 사랑의 접촉을 상실해 버린다면 일은 괴로운 것이 되고 만다.
-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가장 좋은 길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다.(벤 패터슨)
- 또한 ‘참된 일’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간다. ‘참된 일’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6. 예배

1) 예배는 영원하다.

- 예배와 일: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행위
- 구약의 히브리어 ‘아바드’는 ‘일’, ‘예배’로도 번역된다. 한 단어에 두 개의 뜻이 담겨있다. 이 단어의 이중적인 사용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worship Service)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일’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 진다면, ‘일’(work Service)을 통해서도 드러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성경을 보면, 예배와 일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결이 존재하는 데, 그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앞의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의식이며, 뒤의 것은 세상에서의 예배 의식이다.(LAWW; Life As Worship/Work)

2) 예배는 일을 변혁시킨다.

- ‘예배라는 일’(worship service)은 일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일하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일’(work service)을 변화시킨다.
-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아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다.” -교부 이레니우스의 유명한 경구.

-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만 ‘일’을 잘 할 수 있다.
-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면서 부여하신 ‘피조물의 그 자리로 복귀’ 하는 것을 뜻한다.

3) 예배는 모든 일의 상징적 초점이다.

- 성전에서의 예배 의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섬김의 상징적 초점”이라고 신학자인 조프리 웨인라이트 (Geoffrey Wainwright)는 말한다. 우리는 모든 삶, 즉 사랑과 우정, 결혼생활과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예배’로 행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말의 의미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예배’가 된다는 의미이다.(롬12:1-2) (LAWW; Life As Worship/Work)

4) 예배에서 자기를 잊고, 일에서 자기를 잊는다.

-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self-forgetfulness)은 모든 참된 기독교 예배의 목표이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시험하는 가장 큰 테스트는
1).스스로를 작고 더러운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2).온통 잊어버리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덧붙여서 그는 둘 중에서 자기 망각이 더 낫다고 말했다.
- 일은 일종의 예배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1. 당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라.
2. 당신의 일로 하나님을 섬기라.
3.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 베토벤이 전부요!
Arturo Toscanini 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가 지금 막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다.
잠시 동안 쥐죽은 듯이 고요한 정적이 흐른 뒤 청중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두 팔을 강하게 내저으며 갈채소리를 중단시킨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를 향해 돌아서서 큰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외쳤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오!” 그런다음에 이렇게 외쳤다. “베토벤이 전부요!”
-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7. 결론

지금까지 일과 예배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 이 둘은 하나님을 섬기는 두 행위이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성전에서의 예배는 강조해 왔으나, 세상에서의 예배인 '일'에는 전혀 무관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신앙은 강조했으나, 생활 신앙은 모른 척해 왔다. 그 결과 신앙과 생활의 격리 상태가 뚜렷했고, 교회의 본질인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일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놓고 부끄러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세상은 썩어만 갔다.

무기력한 교인만 양산하는 동안 세상은 교회를 향해 질타를 멈추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다.

이제 깨어나야겠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일이 전개되어야 하겠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 1). "A.D. 2017 & Beyond" Movement
- 2). Every Christian A Minister/Missionary; ECAMM
- 3). Life As Worship/Work; LAWW,
- 4). Work As Worship/Mission; WAWM,

참고문헌:

- 1). "일과 예배": 벤 패터슨 저, 김재원 역
- 2). "A.D. 2017 & beyond" movement; 유효명

유효명 장로 Hyomyeong Rhiew, M.D., M.Div.
hmrhiew@gmail.com / 773-206-3809

선교장학금

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선교장학금

● 선교장학금 후원안내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에서는 북미주에서 파송될 선교사님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선교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1988년 제1차 세계선교대회를 Wheaton College 에서 개최한 이후로 선교장학금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금까지 선교장학생들을 전국적(북미주)으로 모집, 선발하여 일인당 \$1,000의 장학금을 수여해 왔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세계선교 현장에서 하늘나라 확장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서신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알려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오는 10월 31일까지 장학생들을 모집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코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일수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① 일반 후원금: \$100, \$200, \$300, \$500, 기타

② 지정장학금: \$1,000 을 헌금하시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 이름으로 장학생을 지정하여 수여.

Check 를 쓰실때는 "KWMC-Scholarship Fund" 로 써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신 헌금은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곳: Hyomyeong Rhiew, KWMC Lay Mission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매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2014년 9월1일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윤영복

회계 홍순백 / 서기 김정균 / 홍보위원장 이상천

● 선교장학금 신청안내

KWMC평신도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자격 QUALIFICATIONS

- ▶ 북미주 거주자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 이거나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candidates in mission training in US or
- ▶ 북미주 거주자로 장기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 in U.S. preparing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s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 ▶ 일인당 \$1,000 / \$1,000 per recipient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 ▶ 2014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4

▷ 첨가서류 REQUIRED DOCUMENTS

- ▶ 신청서 A complete application form
- ▶ 출석교회 담임목회자의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membership church
- ▶ 재학증명서 혹은 최근 수료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School of registration confirmation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most recent school
- ▶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1-2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missionary (1-2 pages)

▷ 보내실 곳 SEND TO

KWMC -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

평신도선교운동본부 Lay Missions Hyomyeong Rhiew T/ 773-206-3809 / Email : hmrhiew@sbcglobal.net
Simon Lee T/ 253-988-0313
KWMC 본부 T/ 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KWMC] Scholarship Application for Missionary Candidate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평신도선교운동본부 선교장학금신청서

PHOTO

보내실 곳 Send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d. Kalamazoo, MI 49008

성명 Name (한 Korean) (영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직함 Title 성별 Sex 남 Male 여 Female

주소 Address

전화[1] Phone [1] 전화[2] Phone[2]

이메일 Email

출석교회 Attending Church (한 Korean) (영 English)

담임목회자 Pastor's Name (한 Korean) (영 English)

교회주소 Church Address

교회전화 Church Phone 교회직분

사역경험 Ministry Experiences

기간 From-To	교회/기관 Church/Organization	직분 Position

교육배경 Educational Backgrounds

기간 From-To	학교 School	전공/학위 Major/Degree

선교분야 경험 Missions Experiences

기간 From-To	사역지 Field	기관 Organization	사역 Ministries

저서/논문 Articles/Books Published

파송예정일 Expected Date of Departure for Mission Field 파송예정지 Expected Field

본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가서 제사 삼으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3년 이상 타문화권 복음화를 위해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선교장학금을 신청합니다.
I am preparing to serve for at least 3 years as a cross-cultural missionary in order to obey the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our Lord.

서명 Signature 날짜 Date

인도선교 (1986-2014)

이상진 장로 / KWMC 공동의장, GMC 선교회 대표, 타코마중앙장로교회



공동의장 이상진 장로
GMC 선교회대표

● 들어가는 말

한 개인에게 선교의 열정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행할 때에 한없는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환경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세상의 부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직업으로 삼아왔던 부동산업. 하나님께서는 그 직업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인하여 영적 세계의 복음의 소개자로 서기에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해 주셨다.

● 인도선교 이야기

타코마중앙장로교회와 인도 선교의 인연

타코마중앙장로교회의 초대 정남식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선교모임에서 만난 인도인 N. J. Gnaniah 목사님의 인도 현지 선교 후원 요청을 당회에 가져오심으로 태동되었다.

그때가 1982년, 당회는 제직회 선교부를 통하여 매달 \$170을 헌금하기로 결의하고 (후에는 월 \$400) 인도 선교 재정 후원이 시작되었으며, 그 외에도 타이프라이터, 스쿠터 구입 등을 위한 특별헌금도 하고, 매달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주고받으면서 교회는 서서히 세계선교에 관한 관심과 눈이 뜨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85년 초, 인도에서 교회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중앙교회에서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 요청안을 당회에서 토의한 결과, 교회를 짓는 데 필요한 건축비를 보내 주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즉시 사랑의 건축헌금을 송금해 주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 1986년 1월, 다시 인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 교회가 후원한 금액으로 교회 건축을 완공하여 헌당예배를 드릴 계획인데 중앙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해서 헌당을 축복해 달라는 초청 편지였다.

당회에서는 1986년 당시 당회원(최창하, 오덕주, 김좌경, 김시복, 이상진) 중에서 가장 연소자이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간 조정이 용의한 이상진 장로를 중앙교회 대표로 보내기로 결의하고 파송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앙교회로서 해외 단기 선교사 파송의 효시였고, 나 자신의 입장에서든 처음 해외 단기선교에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Keren School, Madurai Tamilnadu, India 2014



▲ India Care Mission - Missionary Kids 2014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도 선교 현지로 나간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나 신학교에서 단기 선교 사역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한국 선교의 초창기 시절이었기에, 단기선교의 경험을 들려주거나 노하우를 알려 주는 사람이 전혀 없던 때였다. 한국 선교사 파송수도 총 300명이 훨씬 미치지 못하는 초기단계였기에 선교사역 선례나 방법 같은 것이 전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던 선교의 불모지와 다를 바 없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때였다.

1986년 2월6일 나는 2주간의 일정으로 그곳 미지의 세계, 인도로 향하는 장정에 올랐다. 당시 정남식 담임목사님, 당회원들과 믿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우리 가족은 공항 탑승 게이트까지 배웅해 주었고,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일반 환승객들이 비행기를 타는 게이트까지 갈 수 있던 때 였다) 성도님들은 단기 선교사의 안전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한 순간도 쉬 없이 기도하셨다고 말해 주었다.

인도 마드라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다.

이국의 땅에 처음 홀로 도착한 곳은 인도 마드라스 (현재는 चेन्नাই) 공항이었다. 자정이 넘어 도착하여 이민국과 세관을 거칠 때 그 곳에는 에어컨이 전혀 없었고 후덥지근한 한여름 날씨에, 입국 수속 도중 전기가 나가는 해프닝이 있었다. 공항에서 깜깜한 순간을 지난 것이 기억에 새로우며 공항에서 처음으로 맡아본 인도 고유의 커리냄새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마중 나온 현지선교사님이 나를 안내한 곳은 인도 마드라스 시내의 한 호텔이었는데 19세기에 지은 것 같은 오래된 건물로서 내부 시설은 참으로 낙후됐다. 벽에 도마뱀이 기어 다니고, 모기들은 젊은 한국인의 피를 너무 좋아하여 환영해 주는 것 같았다.

여관에 들어 가자마자 샤워를 하러 갔다. 물론 방에 딸린 시설이 아니라 공동으로 쓰는 곳이었다. 물을 틀어 땀에 힘뻑 젖은 몸을 씻으려고 비누칠을 끝내고 몸을 헹구려고 하는 순간 수도물이 뚝 끊어졌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물이 나오지 않아 참으로 난감하였다. 비눗물을 다 씻지 못한 채 수건으로 몸을 훑치는 수 밖에 다른 방도가 전혀 없었다. 순간 나는 서북미의 겨울에 짓궂게 내려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었던 겨울비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풍성하고 질 좋은 물이 있는 곳, 타코마의 비. 어찌면 그 후부터 나는 비오는 겨울에 대한 불평이 사라졌고, 대신 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대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

도착지 마드라스에서 하루밤을 지낸 후 비행기로 목적지인 마두라이로 한시간 비행하여 도착하였다. 공항은 옛 시골 기차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초라했고, 비행기에서 수하물도 모두 손수레로 운반해 오는 실정이었다. 물론 공항 내 컴베이어도 없었고 부친 짐들이 들어 올 때마다 서로 다투어 짐을 빨리 찾으려고 잠시 동안 아수라장을 이루는 그런 곳이었다.

공항 바깥으로 나오니 나를 위하여 Gnaniah 목사님 내외와 스텝들이 나와서 맞아주었다. 그리고 꽃으로 장식한 목걸이(갈렌드)를 걸어 주며 극진히 환대해 주었다.

인도 선교 현지 풍경들

중앙교회가 세운 인도 마두라이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아름다운 헌당예배를 드렸고, 모든 이들이 깊이 감사하며 환영해 주었다. 모인 성도들은 뜨겁게 찬양하며 함께 기뻐했다. 나는 주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감격으로 전했고, 당시 ICGM의 설립자인 Gnaniah 목사님께서 직접 통역으로 수고해 주셨다. 그 교회의 부지는 지역의 유력한 노 장로님이 기증하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전해 주었다.

집회 후 점심시간에는 100명이 넘는 교우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옛날 한국 농촌에서 동네 경사가 나면 잔치를 했던 것처럼 마당에 술을 걸어 놓고, 나무로 불을 때어 밥을 짓고, 또 카레도 끓였다. 그래서인지 인도의 집에는 특별히 부엌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

예배가 끝난 교회 예배당은 금세 식당으로 변했다. 빗자루로 대략 바닥을 훑쳐내고 교인들은 두 줄로 질서 정연하게 앉았다. 바나나 잎사귀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쟁반이다. 바나나 잎사귀에 물을 조금 뿌리고 묻어 있는 먼지를 손으로 훑어내고 훌훌 털고 나서 바닥에 놓으면 배식담당하는 사람이 먼저 하얀 쌀밥을 퍼준다. 그 후에 카레를 배식하는 사람이 밥 위에 얹어주고, 또 몇 가지 밑반찬을 바나나잎 윗부분에 놓는다. 오른손 다섯 손가락을 모두 이용해서 밥과 카레를 잘 비벼 손으로 음식을 먹는 기술이 가히 신기할 정도로 모두 달인이었다. 한국에서 물에 말은 밥을 우리들이 숟가락으로 먹듯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푸석한 쌀밥과 카레를 잘 섞어서 입속으로 툭 털어 넣는 것이었다.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쇠젓가락으로 동글한 콩알을 집는 모습을 신기하게 여기는 것과도 같았다고 하겠다.

선교사로 와서 그들에게 괴리감을 주지 않으려고 손을 씻고 오른 손가락으로 비벼 보았지만 그들 같은 고도의 실력이 나올 리 만무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세 손가락만 썼기 때문이다. 다섯 손가락을 다 쓰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섯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며 그들과 함께 오찬을 즐긴다.

인도에서는 왼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풍습적으로 금기되어 있다. 왜냐하면 왼손은 오직 화장실에서만 쓰는 것이니까...

부흥 집회에 임하신 성령의 불

1986년 첫번째 방문한 인도 사역에는 헌당예배에 참석하는 일 외에도 이미 현지에서 스케줄을 잡아 놓은 열두 번의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골 지역교회에서, 또는 자동차로 수 시간 들어가야 하는 다른 어떤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다.

ICGM본부가 있는 대학가 어느 집 옥상에서 저녁 집회를 할 때 일어난 일이다. 사방은 어둠이 깔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옥상에는 임시로 전깃불을 설치하여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밝은 상태였다. 앰프로 설치하고 찬양을 함께 불렀다. 2월의 남인도 마두라이의 날씨는 낮에는 몹시 더웠고, 저녁 나절에는 견디기 좋은 아름다운 날씨였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었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또 여자들도 한 그룹이 한쪽에 모여 있었다. 약 80-100명 정도의 숫자가 모인 것으로 보였다.

1974년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주최한 엑스플로 '74때 간사로 섬기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지냈던 그 때 그 시절이, 모인 인도 대학생들을 보며 갑자기 떠올랐다.

모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가슴으로 심령의 매임을 받아 말씀을 쏟아 부었다. 말씀 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집회 때마다 꼭 하시는 Altar Calling(불신자 결신 초청)을 하였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 초청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대학생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 환상으로 스쳤던(Overlap by vision) 확연한 모습을 보여 주신 이는 분명 성령님이셨다.

“저를 파송해 놓고 중앙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층 더 크게 부각된 세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제단 앞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으고, 머리를 바닥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존경하는 권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과 내용들이 모두 하늘의 보좌에 대포알처럼 빠르게 쏘아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긴급하게 올려진 기도의 대포를 즉각적으로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 인도 현지에 응답으로 쏘아 내려보낸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사일처럼.”

그리고 성령의 불은 결신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 10명에게 모두 영접 기도와 함께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왕좌에 주님으로 모시며,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천국시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모인 자들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힌두교도 대학생들이었다. 힌두교에서 예수로 그들의 믿음을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날 여학생 두 명이 앞으로 나왔는데, 인도에서 여자들이 자신의 개종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인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와 동행하신 목사가 전해 주었다. 그렇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었다. 이 일에 쓰임 받음을 인해 주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

이 일 후에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39세의 젊은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로잡기 시작하셨다.

1986년 그해는 바로 내가 서북미에 있는 Faith Evangelical Lutheran Seminary라는 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졸업하는 해였다. 애초부터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목회를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영적인 면과 성경 지식적인 면을 갖추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의 사명, 곧 교회와 사회를 향한 주님의 사역을 섬기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신학교를 졸업할 때 즈음이 되어서는 나의 맘 속에서 자그마한 영적 갈등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목회자의 길로 전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신도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강렬한 도전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시작이니,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인도를 계속하여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가? 계속하여 내게 주신 감동은 “너는 너의 시간의 십일조를 나를 위하여 바쳐라.”였다. 주님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이 감동으로 나는 기꺼이 “주님! 제가 제 시간의 십일조, 1년에 한 달을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

그 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1년에 1, 2회 이상 열방을 품고 해외 선교에 임하였으며 올해 2013 인도사랑 선교와 함께 51번째 해외 선교의 장정에 올랐다. 매번 선교에 임할 때마다 주신 감동과 그 사역들, 아름다운 열매들에 대한 돌아봄과 평가는 뒷날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인도교회성장선교회(India Church Growth Mission)와 맺은 인연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인도교회성장선교회(이하 ICGM)와의 인연은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비록 선교회의 창설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고, 현지에 있는 선교회의 조직과 지도자들은 세대가 흐르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 핵심 가치, 즉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성장시켜, 인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목표와 비전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총장들은 벌써 다섯 사람이나 계승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들과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

ICGM의 전략

인도에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세워진 단체이다. 마두라이 지역의 선교를 위하여 세운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총 인구가 백만 명이다. 그리고 대략 1,000개의 자연 부락으로 형성되어 있다. 2000년까지 100개의 교회를 설립하여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개의 자연부락의 중심에 1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그리하여 100개의 교회를 전략 요충지에 건립하여 1,000개의 자연부락을 복음으로 공략하는 전략이었다.

신학교 운영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교회 개척과 복음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대부분 학생들은 주 중에는 신학교에서 기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각자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공부모임도 열도록 훈련시킨다.

힌두교도가 대부분인 마을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3개월 정도가 지나면 한두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면 처음 믿은 그 가정이 집을 오픈해서 이웃들을 초청한다. 이곳이 바로 전략적 선교 접촉점이 된다.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마을에서 6~10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바깥 정자나무 아래에서나 마을 공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때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교회당을 짓자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신학교에 입학한 후 2년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다. 한 신학생을 훈련시키면 마을에 한 교회가 탄생한다. 비록 이들을 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에 비할 바 없이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체험하며 희열을 느낀다.

교회 개척 및 건축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은 참으로 신성한 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들어가고, 가정 교회로 시작하여 신도가 증가함에 따라 교회 건물의 필요성을 모든 성도들이 동감하게 된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한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것은 교회 건축을 할 대지는 반드시 그 마을 교인들이 모은 헌금이나 독지가의 헌납, 혹은 기타 방법으로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외부에서 제공하게 된다면, 교인들의 자체 봉사 역할과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또 본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단 대지가 마련되고 교회가 부흥하여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ICGM 사무총장을 통해 교회 건물 설립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 후원자를 찾고 모집하는 것이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협력하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지금까지 인도 땅에 30개가 넘는 교회가 여러 신실한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지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

전도 부흥 집회

매년 혼자서, 혹은 팀을 이루어 인도를 방문하고 마을마다 다니며 전도 집회를 인도하였다. 낮에는 작열하는 햇볕 아래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농촌의 일손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시간에는 마을의 빈터나 공회당 같은 곳에서 전도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다.

전깃불을 켜는 경우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오던 때여서, 칠흑같이 캄캄한 시골에서 오직 하늘의 별들이 유일한 빛을 비춰 주는데, 그 별빛에 반사되는 검은 얼굴들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반짝거리는 순진한 눈동자와 하얀 이를 보이며 노래를 부르던 천진한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8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되어 사역하는 이들이 있고, 또 사모로 섬기며 그 신앙을 지켜 나가는 이들도 있다는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요, 성장시키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오직 그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할 뿐이다.

● INDIA CARE MISSION 설립과 부흥

2004년 2월 인도 단기 선교에 임했을 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함께 이곳에서 더 효율적인 선교사역에 대한 꿈을 주셨다. 1986년에 만났던 현지인 대학교수이자 당시 학교 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있었던 P. T. Rajan 교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어 주신 비전을 나누었다. 인생의 후반기에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를 받는 것보다 같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었다.

선교사 자녀 학교 설립

처음 나의 동역자 Rajan 교수를 만난 것은 1986년 인도 현지에서이다. 그때 그의 부인인 조이는 약 50~60명의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조그마한 갈대 지붕 아래서 미약하게 시작한 학교는 그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후인 2004년에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1,500명이나 되는 큰 캠퍼스를 가진 학교로 발전해 있었다. 크리스천 사립학교로 현지어인 타밀어와 영어를 병행해서 가르치는 초, 중, 고등학교이다.

Rajan 교수와 만나 비전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학교에 대한 비전은 모든 학생들을 크리스천으로 제자화시키는 일과, 그 중에 10분의 1은 선교사로, 그리고 다른 10분의 1은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며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 현지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의 설립에 Rajan 교수와 전적으로 한 뜻이 되어 그 해부터 즉시 실행하였다. 이미 학교 시설은 완비되어 있었고, 기숙사와 취사 시설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할 수가 있었다.

첫해는 15명 정도에서 시작하여, 해가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 지금은 80~90명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도 동북부에서 온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이다. 인도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되는 경우가 많다. 그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자녀들의 교육 문제인 것이다. 문명의 혜택과 교육 시설이 전무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첫 번째 고충이 자녀 양육 문제에 있는 것이다. 선교사 자녀 학교의 개설은 오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뿐 아니라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서로의 사역에서 복음의 진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교사 자녀 학생들은 머리가 좋고,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의 믿음으로 가정 교육을 받아 와서 성실하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경우가 참으로 많다. 지금은 비록 부모님을 떠나 타향에서 고생스럽겠지만, 10년 후의 그들의 모습을 꿈꾸면 나는 절로 신이 나서 혼자 흥얼거릴 때가 많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여름방학 때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 집을 방문한다. 기차 타고 집에 가는 길이 이틀에서 많이는 닷새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매년 인도를 방문하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위로해 주고, 기도하면서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는 그 시간보다 더 내게 기쁨을 주는 때는 가히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교 설립을 통한 전도

간호학교의 설립 목적의 가장 큰 이유는 불신 가정(대부분 힌두교)의 자녀들을 불러와서 교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 있었다. 그들이 잘 배워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첫해에 간호학교의 인가가 쉽지 않아 1년 과정의 간호보조학교를 개설하였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배 인도, 성경공부, 신앙훈련을 담당하도록 목사님 한 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매일 수업 시간 전후에 기도하는 일과 아침예배 그리고 성경공부는 필수였다.

학생들은 1년 후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전원 합격하였다. 그리고 졸업생 전원이 인근 병원에 취업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함께 공부한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첫 졸업식 때의 일이다. 나는 졸업식 날 학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친지들을 다 초청하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의 협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간단한 메시지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쳤고, 이날이 있기를 고대하며 준비하였다.”라고도 전했다.

그날의 졸업식은 함께한 부모님들과 친지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전도의 시간이 되었다. 그것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놓고 있던 자녀가 간호학교에서 좋은 의술을 배우고,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해서 가계에 큰 도움을 주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다.

한 학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친지들, 이웃들까지 전도하는 좋은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복음 전파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

신학교 운영

제3 캠퍼스에 ICM 채플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B. Th., M. Div.의 과정을 통해 영적 지도자, 인재를 양성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현지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 더 좋은 교육을 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직업학교

도카스 1년 프로젝트로 현지 미망인 혹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수공예, 양장기술 등을 가르쳐서 직접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도 좋은 전도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대학 설립의 꿈

현재 Rajan 교수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는 2013년에 3,7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들도 150명 정도가 된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이지만, 교사 채용은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인도의 법이다. 그래서 과반수의 선생님들은 힌두교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매년 그곳을 방문하면서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지적이면서 전통적인 힌두교 가문에서 뼈가 굳어온 그들이 한순간에 진정한 맘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헌신과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대학을 설립하여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교사들을 만들어 학교에 진출시킨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학원 복음화는 전적으로 교사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 교육대학이 설립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대학이 설립되고, 이 지역에 우수한 기독교대학교가 설립될 것을 꿈꾸고 있다. 우리의 대에 세워지지 못하면 차세대에 가서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꿈과 비전, 믿음을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차기 지도자들을 지금도 훈련하고 있다.

● LOVE INDIA TEAM

1986년에 시작한 인도 단기 선교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에게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도 사랑”(Love India)이 이제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버렸다. 계속해서 인도 단기 선교 팀들을 구성하여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Love India 2013 (인도 사랑 2013)에 세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하고 돌아왔다. 때로는 7, 8명, 때로는 혼자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년 이 행진을 거르지 않는다.

이 사역에 동참했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모두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다.

● LOVE INDIA 2014

원 두 번째로 나가는 해외 선교 사역이었다. 2014년 8월 27일에서 9월 10일까지 15일간의 여정으로 시애틀 출발 직항, 두바이 경유, 체나이까지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했다. 1차 사역은 인도 중부 산악 지역 차디스가르 주에 사는 미전도종족 곤디 족을 위해 세운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 오리사 주로 나오면서, 5년 전 힌두교 과격분자들에 의해 핍박당하고 살해당한 기독교인 부모들이 남기고 간 자녀들을 위한 고아원에 들러 아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였다. 이 두 곳에서 모두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기에 이번 방문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2차 사역은 남부의 타밀 나두 주로 내려와 마두라이에 위치한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었고, 저녁에는 불가촉 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즉석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며 잔잔히 흐르는 감동으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였다.

● 인도 선교의 전망과 전략

한국 선교사들의 인도 선교는 1970년 후반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도의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 의해 1세기에 들어온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의 영국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여 지금은 선교사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300명이 넘는 한국 선교사들과 또 많은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복음 증거하는 데는 막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개척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오히려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여 교회 개척과 제자 양육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확장시키고 또한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에 산재해 있는 300여 미전도 종족을 위한 전략적 지원과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여러 선교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각 선교단체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중복 사역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결론

꿈을 꾸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날마다 기대하라. 아직도 나는 꺼지지 않는 꿈을 꾸며 앞으로도 계속 꿈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당대에 이뤄야 할 꿈뿐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꿈을 꾸다. 시작한 사역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꿈도 꾸다. 자녀들을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질 꿈도 꾸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단기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비거주 선교사로 계속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좋은 하나님

김종국 선교사 / KWMF 세계한인선교사회 대표회장 - "인도네시아에서의 30년을 돌아보며"



KWMF 대표회장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원 원장, 미국 Biola대학교 선교학박사

● 들어가는 말

꿈많은 건축학도를 불러 인도네시아땅에 불러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내하시고 오늘 이시간까지 인도해주신 좋은 하나님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함께 섬겨주신 KPM과 모든 후원교회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때도 많았지만, 참아주시고, 힘주시고, 실패와 좌절에 있을때, 기대치않은 열매들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다. 아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인도네시아 영혼들과 교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역사하신 주님을 나누고 싶다.

●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1980-1983)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교회건축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축가보다, 영혼을 짓는 건축가로 불러주시심을 느꼈을때만해도, 도저히 무슨 부르심이 몰랐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다. 주위의 많은 도전과 가족들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신학대학원을 3년 동안 다니게 하시고,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준비케 하셨다. 1980년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회를 준비시켜주시고, 몇몇 학우들과 교단 선교와 자신들의 꿈을 나누며, KPM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셨다. 부산 남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며, 존경하는 한명동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일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단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선교학회를 중심으로 선교세미나와 새로 전비된 교단 해외선교국과 함께 당시 조동진목사님께서 섬기시던 바울의 집에서, 교단 중진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매년 선교세미나와 훈련을 섬기며, 섬김과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2학년을 마치고, 서울 중앙 교회에서 선교사 후보로 당시 신대원장이셨던 오병세박사님의 추천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기게 된다. 그리고 매주말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학업과 교회에서 선교사로의 준비를 시키셨던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한다. 그리고 1983년 1월에 신대원 졸업을 앞두고, 교단 해외선교국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함께 협력할 현지 스폰서를 찾기에 이른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있었지만, 서울 중앙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교단에서는 처음으로 개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받고, 교단선교사로 1983년 10월20일에 파송을 받게 된다.

● 선교지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선교지에 낙하산식으로 투하된 병력, 1983.10-1986)

사실 제 자신은 선교지 인도네시아로 가기전에 영국의 wec에서 운영하는 선교 훈련을 받고 가길 원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교단 지도자들에게는 사치로 보였던 것 같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서도, 반등에 있는 임락(IMLAK)이라는 언어학교를 생각했지만, 언어공부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냥 말랑에서 스스로, 그리고 가끔 현지 학생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언어 수업을 했어야 했다. 함께 동역했던 하나니엘목사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선교지 도착한 지 3개월만에, 설교등으로 목회 수업을 단단히 해야만 했다. 처음 동역하는 엘레오스교회와의 동역약정서를 만드는 게 늘 긴장으로 다가왔다. 처음부터 엘레오스 교회를 통한 교회 개척을 기대했고, 와길 중학교를 통해서도 신실한 젊은 이들이 양성되길 기대했다. 1985년 살렘신학교 개교를 앞두고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고 주남선목사님의 후손들이 모아두었던 현금으로 신학교 건물을 2년 임대하고, 시작했지만, 신학교 운영원칙등의 합의되지않는 등, 선교사와 함께 사역한 경험이 없었던 엘레오스교회와 선교지에서 언어와 문화적응기에 있었던 나 자신으로서는 혹독한 훈련과 시험의 기간이었다. 결국은 뒤늦게 태국으로 가려다 길이 막혀 인도네시아로 합류했던 이현철선교사를 남겨두고, 본인은 중부자바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교 스폰서를 옮기게된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힘들어 할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우리 들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거듭나는 값비싼 훈련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 인도네시아 전체를 보게하시는 하나님 (적응기 전환기, 1986-1992)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말랑에 있을때 한 교회에서 제한되어 사역하다가, 인도네시아 전역을 보게하시며, 인도네시아 전체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비전으로 현지인 지도자와 미국선교사와 한국선교사가 동역을 하게된다. 주중에는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학생들과 사역지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며, 개척하는 신학생들과 지역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사역은 정말 즐거움 그 자체였다. 일주일에 3.5일은 캠프스에서 3.5일은 사역지들을 돌며, 말씀을 들고 외출때에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게된다. 2-3년간 교회들을 다니며 섬기던중, 주님께서 말씀중심의 장로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심의 비전을 깨닫고, 1989년에 족자 복음 장로 교회 (지금의 에벤에셀 복음장로교회) 를 신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개척하게 된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대로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신학교 분교를 세우는 일에도 힘껏 협력하여, 세워져 나갔다. 이 즈음에 주님께서 여러 선교사들을 족자카르타 신학교 사역중심으로 보내주셨다. 인도네시아복음화를 위해서 최수일 선교사가정이 와서 한 분교를 섬기며, 복음장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고, AGST프로그램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하며, 평신도선교사로서 섬기던 박경숙선교사, 그리고 신학교에 축구팀을 섬기며, 선교하기 위해서 축구평신도 선교사로 오석재선교사 가정을 보내주셨다. 그러나 팀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과 저 자신의 리더십 부족과 각자의 부르심의 길로, 인도네시아땅을 떠나게되는 아픔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가사하게도 1991년 11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복음장로 교단이 종교성에 정식 인가서를 받게되고, 구체적으로 중부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개척을 하며, 건축을 하는등 기쁨의 사역의 시간이기도 했다.

● 구체적으로 할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정착기, 1993-1997)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복음 장로교단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를 하고 개척된 교회들의 강도사들에게, 7명의 목사 안수식이 1997년에 시작되며, 더욱 말씀중심의 개혁주의 장로교회들을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춘 시기였다. 아울러 머지않아 인도네시아가 무슬림권에 선교사 파송할 때를 준비하며, 인도네시아 복음주의 신학대학에서, 선교대학원프로그램(MA in Missiology) 을 자카르타에서 시작하고, 디렉트로 섬기면서, 족자카르타와 자카르타를 오가며, 사역을 하게된다. 40여명의 학생들로 열심을 다하는 프로그램위에 STII 지도부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STII는 인도네시아 를 사역에 타겟으로 하므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앞으로 세계선교를 위해 선교사 후보를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선교대학원을 운영하려는 것이 못마땅했던지, 첫번째 졸업생을 수료시키고, STII와 비전의 차이로 결별할 수밖에 없게된다. 물론 자신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음으로 더 이상 스폰서가 필요없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소신끝 전략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것이다.

●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역기, 1998-2005)

인도네시아가 폭력사태로 많은 중국인들이 사상자가 나고,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되는 1997-98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는 변화가 있었다. 폭동으로 인하여 많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호주로 싱가포르 이주하는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저 자신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 평생 함께 섬기기를 결단하고, 당시 성경공부로 훈련받던 이민국장의 도움으로 1998년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받게되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복음장로교단의 비전 200-200-2020(2020년까지 200개의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를 양성)을 주셨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2003년에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교를 시작하게되었다. 그리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개척이 시작되고, 계속되는 매년에 한번씩 복음장로교단 목회자들이 모여 영적 수련회와 비전을 나누어 가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열매들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었다. 이시기에 어렵게 시간을 내어 미국의 BIOLA 대학교의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은혜의 시간도 체험했다.

● 통전적 전략을 통한 확장및 현지인들에게 이양시키시는 하나님 (2006-2011)

[인도네시아 교회 차세대 지도자 양육및 선교사 파송] 2006-2007년에는 안식년으로 한국의 신학대학원의 후배들을 위해 초빙교수로, 겸임교수로 사역하며, 시간나는 대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복음장로교단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준비를 하고, 2010년에 마침내 복음장로교단의 교단장을 저희 제자에게 이양하고, 저는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교의 옆그레이드와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IBADA 일에 함께 섬기며, 현재는 5개국(예멘, 요르단, 키르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에 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도 받았다. 특히 2011년에 제가 한국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던 박종덕/신유현선교사가 교단 파송 선교사로 입국하면서, 구체적인 주님의 팀선교에 대한 비전과 역사를 경험하게되었다.

● 인도네시아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2012-2018)

[인도네시아 장로교회 개척을 위한 팀 선교의 준비와 선교대학원을 통한 인도네시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의 준비 및 훈련과 교회지도자 양성] 감사하게도 2012년 시카고에서 열린 한인세계선교사대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4년간 171개국에서 사역하는 24,000여명의 한인선교사를 대표할 회장단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 후배들을 섬길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주신 작은 위로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2013년 제6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KPM의 선교 선언문 (Mission Statement)에 걸맞는 인도네시아 복음장로 교단 건설을 위해 보내주신 KPM선교사들 (박종덕/ 신유현선교사, 윤상혁/김나래선교사, 성경득/이옥정선교사, 김명훈/송은미선교사) 과 팀 선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2020년까지 200개의 교회와 200명의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이 정부에서 인가를 받고, 2012년에는 선교학 석사과정과 2013년도에는 목회학박사과정도 인준을 받아, 인도네시아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 후보 및 선교하는 교회로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Church Planting이 아닌 mission Planting으로서의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바라본다.

●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자녀들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지에서 하나의 어려움은 자녀교육문제이다. 저희들은 초창기에 나왔기에, 누구보다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밀하게 책임져 주시고 간섭해 주심을 경험했다. 많은 오해와 비난도 없지 않았지만,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장성하여 가는 3 자녀들을 보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큰딸 유니스는 TV 방송의 리포터로, 상준이는 보스톤 의대 부속병원의 의사로, 상엽이는 뉴욕에서 재정계통의 전문 직업인으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믿음으로 해나가고 있음이 저희 부부에게는 큰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영혼을 여전히 사랑하며, 기회가 있는대로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잃으며, 늘 저희 부부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 나가는 말

지난 30년을 돌아볼때, 내 자신은 부족함 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걸음을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과 실수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사역의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해주심에 감격하 따름이다. 이제 30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아니 주님부르실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성실하게 순종하며, 하루하루 이 인도네시아땅의 영혼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지도자들을 양성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것이다. 바울이 고백했던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신 면류관을 소망하며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 이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섬겨온 후원교회와 KPM본부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며, 16억 무슬림 세계의 선교사 파송의 종주국으로서의 인도네시아 교회로 쓰임받으실 날을 바라보며, 계속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 이 모든 것위에 주님의영광이 나타나길 소원하며..

기타 선교운동/대회 자료



선교한국 2014

2014년 7월 28일(월) - 8월 2일(토), 평택대학교



함께로의 초대 "잔치에 함께 함"

세계 복음화에는 세 가지의 함께 함이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내가 속한 교회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회들과의 함께 함이다.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천국의 잔치가 시작된다.

주님과 함께! "믿음"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통해 세계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일어나고,
믿음의 동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 "세계 교회가 함께"

세계는 변하고 있다. 과거 선교지였던 남미에서는 놀라운 선교적 돌파가 일어났다.
중국도 선교사를 받는 지역임과 동시에 많은 선교사들을 타문화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인도의 경우 오래전부터 보냄과 받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세계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함께 세상을 향하며! "하나됨"

복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전달된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갖추었을 때에 잘 전달된다.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때까지!

 **MISSIONKOREA2014**
14th. Young-Adult Mission Convention



MISSION KOREA 2014

주님과
우리
그들과

함께

선교한국

세상을 향하여

TOGETHER 7.28-8.2

제14회 청년학생선교대회 8.2 평택대학교



일시. 2014년 7월 28일(월) - 8월 2일(토) 장소. 평택대학교
주관. DFC 제자들선교회 주최. 선교한국 2014 대회 조직위원회
규모. 총 3,800명 국·외참가자, 국제참가자, 강사 및 운영요원



PROGRAM

	7/28 월	7/29 화	7/30 수	7/31 목	8/1 금	8/2 토
	초대	주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7:00			소그룹 모임 / OT와 아침식사			
8:00						
9:00		오전집회			It's time to go!	
10:00						
11:00		영역별 주제강의			지금 여기에서!	
12:00						
1:00		점심식사				
2:00	등록		멘토와의 만남 및 박람회 탐방			
3:00						
4:00			지구촌 한마당	침묵의 시간		
5:00			소그룹 활동		소그룹별 저녁식사	
6:00	소그룹별 저녁식사					
7:00						
8:00	저녁집회	선교한국 한마당 축제			저녁집회	
9:00						
10:00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	파송의 시간	
11:00						

성경강해 성경 속에 담겨진 선교의 본질과 방향, 그리고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

아름다운 명 골 소식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전 세계에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기도합주회 연합하는 기도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영역별 주제강의 총 120개의 선교 전문 강의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선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멘토와의 만남 선교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즐겁게 선교를 알아가는 시간

선교단체 박람회 다양한 선교현장의 필요를 전달하고, 참가자들에게 선교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

선교 한마당 수요일은 캠퍼스 전체가 축제의 장이다. 다양한 선교지의 정보, 문화체험으로 선교를 맛보자!

중보기도단 24시간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 대회의 영적 흐름을 이끌 파수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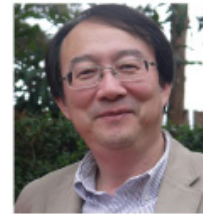
주강사



성경강해
C. 오데데 목사 (Rev. Calisto Odede)
〈케냐 COMMISSION 학생선교대회 설립자
나이로비 Pentecostal 교회〉



통역
김종호 목사
〈한국 IMF 대표〉



성경강해
김철수 선교사
〈GMS〉



오전집회(화)
이현모 교수
〈침신대학교〉



오전집회(수)
박성민 목사
〈한국 CCC 대표〉



오전집회(목)
곽아곰 선교사
〈침례교 선교회〉



오전집회(목)
앤드류 김 선교사
〈GMP〉



오전집회(금)
이경철 목사
〈선교한국 88 조직위원장 역임
낮은울타리교회〉



오전집회(금)
김동춘 목사
〈SFC 선교부 총무〉

선교한국 2014 선교 한마당

선교한국 2014 대회가 아심차게 준비한 젊은이 축제의 장! 선교 한마당은 참가자들에게 전 세계 선교정보와 현재적 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3:00~5:00 지구촌 한마당 다양한 선교지의 정보습득과 문화체험,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가 어우러지는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14년 7월 말 비록 공간적으로는 한국에 머무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지구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공유되고 더불어 열방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시간으로 준비될 것이다. 다채로운 도구들과 전시자료들, 체험문화가 참가자들에게 지식과 체험, 즐거움을 주게 될 것이다.

5:00~8:00 소그룹 한마당 소그룹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평택대학교 곳곳에 배치된 다양한 선교축제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선교를 알아갈 것이다.

8:00~10:30 전체 한마당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사물놀이, 불꽃놀이를 필두로 다양한 민족의 언어와 찬양, 소망의 말씀, 역동적인 기도, 그리고 신명나는 축제의 시간이 되어 선교한국 2014 대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될 것이다.



Part 1.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코드	주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1	선교의 성경적 기초	구약1	구약2	신약
1-2	선교 역사	세계 역사 1	세계 역사 2	한국 역사
1-3	선교와 소명	소명 1	소명 2	소명 3
1-4	선교동향	21세기에 대한 이해	선교동향과 전략	미전도종족에 대한 이해
1-5	선교와 세계관, 문화	선교와 세계관 문화	타문화 이해	선교와 세계관 문화
1-6	선교와 기도	선교사역과 중보기도	말씀과 기도와 선교	공동체에 선교기도 심기
1-7	교회 이해	세계 교회의 상황	선교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선교 참여 기회
1-8	기도합주회	기도합주회의 역사와 정신	기도합주회 인도와 인도자	기도합주회 시작하기
1-9	선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Part 2. 로드맵

코드	주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2-1	선교와 전도	전도 총론	타문화권전도의 다양한 형태와 접근	전도 워크샵
2-2	선교와 교회	해외 체류시 선교 공동체 세우기	청년선교 공동체 세우기	선교현신자의 신학적 준비
2-3	단기선교여행	전략적 가치	효과적인 준비와 참여	단기팀 운영의 실제
2-4	선교와 멘토링	선교사역과 은사발견	선교와 결혼	선교와 멘토링
2-5	선교지에 가기까지	로드맵	선교훈련	동역자 개발

Part 3. 다양한 영역과 접근 방법

코드	주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1	전문인 사역 [1]	총론	스포츠	IT
3-2	전문인 사역 [2]	총론	지역개발과 교육	교육
3-3	전문인 사역 [3]	총론	세계적 질병현황과 사역적 대안	의료사역의 효율적 접근과 우선순위
3-4	전문인 사역 [4]	개발협력과 전문인선교	고통받는 저개발국 현장에서의 보건, 영양, 개발 사역의 사례	국제영양을 통한 전문인 선교
3-5	선교와 비즈니스 [1]	현황과 전망	BAM	BAM 로드맵
3-6	선교와 비즈니스 [2]	현황과 전망	해외창업	창업로드맵
3-7	4/14 접근전략	현황과 필요	어린이	청소년
3-8	선교사 돌봄사역	현황과 필요	선교사 자녀교육	선교지원사역
3-9	한국 내 타문화권 사역	다문화권 한국사회	이주민(결혼, 취업 등)	유학생
3-10	지역사회개발	의미와 필요, 접근 전략	NGO 선교	CHE 이해와 준비
3-11	단기선교사의 사역	선교전략적 가치와 역할	다양한 기회	준비와 훈련
3-12	언어와 선교	성경번역의 중요성과 현황	의사소통과 선교	성경번역과 교회개척
3-13	Art in Mission	예술선교란 무엇인가?	예술선교의 실제 [1]	예술선교의 실제 [2]
3-14	전세계 위기상황 관리와 사역	총론 (재난, 전쟁, 질병 등)	위기관리 이해와 대응	다양한 사역 가능성과 준비
3-15	타종교 이해와 접근	불교	유대교와 그리스정교의 이해	민속종교
3-16	이슬람 이해와 접근	무함마드를 통해 본 이슬람	라마단을 통해 본 이슬람	십자가를 통해 본 이슬람
3-17	이슬람 이해와 접근	일상의 무슬림	빠앗긴 무슬림	성난 무슬림
3-18	중국 이해와 접근	중국이해(정치, 문화, 경제 등)	중국교회의 다양한 모습 이해	중국선교전략
3-19	Japan Mission? Why & How?	Why Japan?	Why Mission in Japan?	How to reach-our?
3-20	북한 이해와 접근	북한이해(정치, 문화 경제 등)	평화통일과 선교	선교상황과 전략
3-21	Mission & Asia	아시아의 상황과 도전	아시아 선교전략 [1]	아시아 선교전략 [2]
3-22	Mission & Africa	아프리카의 상황과 도전	아프리카의 위기관리와 사역	아프리카 선교전략
3-23	Mission & Latin America	라틴아메리카의 이해	라틴아메리카 선교전략 [1]	라틴아메리카 선교전략 [2]
3-24	Mission & India	인도캠퍼스의 사역과 도전	인도 내 힌두권 사역	인도 내 이슬람 사역
3-25	Mission & Campus	전세계 대학과 현상	해외 캠퍼스 개척 [1]	해외 캠퍼스 개척 [2]
3-26	디지털 선교포럼	스마트미디어의 미래와 선교적 과제	SNS 이해	APP를 통한 선교활용

선교한국 2014 선교단체 박람회



선교단체 박람회를 통해
선교한국 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선교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선교 활동의 기회 및
선교현장의 필요가 전달됩니다.
또한 그 필요에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 및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사랑의봉사단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사랑을 받아야 할 고귀한 존재라는 성경진리에 입각해서 고통 받는 세계의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전인격적 필요(영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물질적)에 부응하기 위해 1992년에 창단되어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제학생회 ISF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과 가족, 교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나누는 유학생 선교단체이다. 1997년에 시작되어 현재 국내 5개 지부(서울, 경기, 인천, 논산, 대구) 20개 대학에서 한국어교실과 홈스테이, 명절행사 등을 통해 유학생을 섬기고, 캠프와 성경공부를 통해 선교에 힘쓰고 있다. 2011년 외교부 법인 등록 이후 졸업생 모임을 네팔, 몽골, 베트남에서 진행하며 영적 리더십을 세워 나가고 있다.



아시아포커스 아시아포커스는 방글라데시의 1억 5천만명과 인도 동벵갈주의 7천만명 등 벵갈어를 사용하는 2억 5천 이상의 밀도 높은 지역에 비전을 가지고 APAB(벵갈지역 구제개발기구)라는 민간단체로 일하여 왔다. 2008년 8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외교부 소관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 아시아포커스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단법인 아시아포커스는 소외된 아시아 이웃들의 삶을 일컬어 세우는데 선한 섬김으로 봉사하며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의 통로이다.



한국불어권선교회 한국불어권선교회(CCMF)는 전 세계 51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불어권지역을 선교대상으로 하는 전문인 해외선교단체이다. 1992년 무지개선교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이래 1995년에 한국불어권선교회로 개명, 한국 교회의 영어권 선교 편중현상으로 선교적 취약지역이 된 불어권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헌신자를 발굴하며, 선교사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미전도 종족이 많은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지역에 있는 미전도 종족 정탐, 교회개척 사역, 단기선교훈련을 통해 한국인선교사가 거의 없는 지역의 선교베이스 구축을 근본 전략으로 삼고 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ahil of Korea)는 1957년 런던포드 여사에 의해 소개되고 1959년 구요한(John Cook)목사 내외가 선교사역을 시작함으로 어린이전도 운동이 뿌리를 내려 1972년 L.T.I(어린이전도지도자학원)를 계기로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전국49개 지회에서 그 지역의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24개국 39가정6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어린이복음화를 위해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FMnC FMnC는 21C 지식기반사회가 요청하는 초교파 기술과학전문인 선교단체입니다. 선교접근제한지역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에 새로운 전문인 선교전략으로 IT를 포함한 기술과학 지식을 통해 창의적인 선교전략을 개발하고 교회 및 타선교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미전도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GP선교회 1968년 한국 최초의 자생해외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KIM)으로 시작하여 KGM과 PWM으로 분기한 후 1999년 GP의 이름으로 다시 통합함으로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 선교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하게 복음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사명으로 한국교회의 선교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34개국 182유닛 318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HOPE선교회 HOPE는 복음을 거부하는 미전도지역 또는 창의적접근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989년 GMF(한국해외선교회) 내에 설립되었다. 1991년에 이슬람권과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현재 210여명의 선교사가 20여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주요선교전략은 전문인선교, CHE(공동체개발을 통한 복음화), 한국어문화원사역, 캠퍼스사역,비즈니스사역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생하고 재생할 수 있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회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다.



KWEC(한류전도사센터) 한류라는 문화컨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포스팅하는 스토리텔링 톨이다. 러브투트레일은 선교에 미션을 둔 IT업체로 한류라는 문화컨텐츠를 통하여 한류를 사랑하는 전세계의 팬들과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들과 친해질 수 있는 SNS를 표방한다.



MVP선교회 MVP선교회는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초생달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아라비아반도, 북인도지역, 중국무슬림, 중국 티벳 및 동남아 일부지역의 미전도종족에 전략적 3M 선교사(RM,BM,CM)를 파송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토착교회를 개척하고 복음화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벤처적인 선교사를 양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창출하여 MVP에 주신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고자 한다.



MY HEART "생명 걸 자를 양육하라"는 주님의 소명 위에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은 창의적 접근 지역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 성숙한 영성, 인성, 지성을 겸비한 선교사로 훈련, 파송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MISSION STUDY는 MY HEART의 선교 헌신자 훈련과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성령의 권세가 있는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로 훈련합니다. 훈련생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인 영성훈련 및 선교강의, 언어훈련을 받으며 총 12개월의 훈련과정을 갖은 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NOW MISSION NOW MISSION은 2007년 미전도 족속들과 창의적 접근지역의 아직도 남은 미완의 과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은사를 따라 함께 일하며, 그 땅에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기업을 세운다. 우리 세대에 주님의 대위임령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선교를 배우고, 창조와 구속신학의 균현 안에서 총체적선교를 위한 BAMer들을 세워 파송하며 민족과 열방을 섬기고 있다.



개척선교회 GMP선교회는 1987년 시작된 한국형 선교 전문기관이다. 창립이사인 이태웅, 홍정길, 고옥한홍, 고하용 조 목사 등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경험과 한국교회의 특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GMP가 창설되었다. 전 세계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선교 헌신자가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전략을 수립하는 선교공동체이기도 하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5개주의 2013년 11월 현재 36개국에 313명이 사역하고 있다. GMP는 팀사역을 기본으로 하여 전략적이고 전인적인 사역을 추구하고 있으며, 선교지 교회가 자리하여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센딩 베이스(Sending Base)구축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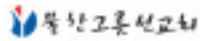
기도24·365 기도24·365는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속(24시간), 연쇄(365팀)하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목표(초점집중)로 그 날까지 모든 열방을 위해 매일 매 시간 기도하기로 하는 주님과 약속이다. 기도24·365본부는 이 같은 비전에 뜻을 함께 하는 국내 기독교단체와 기독교인들이 연합하여 만든 연합단체이다.



기아대책 기아대책은 1971년 설립되어 세계 기아현황을 알리고, 굶주린 이들에게 식량과 사랑을 전하는 국제구호단체이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협의지위자격으로 등록되어 북한을 비롯한 세계 79개 국가에서 5,500여명의 스태프와 1,200여명의 기아봉사단이 각종 개발사업과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는 1989년 설립되어 국내 350여개 지역회와 300여개 운영시설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머시십 머시십(Mercy Ships)은 선박을 기지로 하는 국제 보건 의료 단체로서 2천년 전 예수님을 모델로 따르며 소외되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주고 있다. 또한 세계최대 민간 병원선박의 다양한 외과적 수술을 비롯하여 현지 의료전문인들을 훈련하는 등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의 심각한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한그릇선교회 물 한 그릇 선교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입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여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 일수록,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아예 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 때에, 영생하는 생수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선교회 1986년 3월 세계선교를 위해 전주안디옥교회에서 탄생하였고 현재는 90개 국에 404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바울선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였던 사도 바울의 '믿음선교'(faith mission)를 선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다.



북방선교방송 TWR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 교회와 협력하여 미디어로 선교하는 초교파 선교기관으로 15개 단파 송출소와 2,000여개 중파, FM 방송을 통해 230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TWR Korea 북방선교방송은 1995년에 출범하여 단파방송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선교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성경번역선교회 전 세계에는 6,877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1,967개 언어 종족은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모어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 GBT는 위클리프 국제연대의 회원단체로서 모든 언어 종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사역하는 선교 기관이다. 1985년에 설립되어 현재 210여 명의 선교사가 30여 개 국가에서 사역 중이며, 지난 70여 년 동안 12

권의 신약 성경과 1권의 성경 전서 번역을 마쳤다.



세계선교공동체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헌금과 영광스런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공동체는 선교에 대해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에게 미전도 종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3가지(기도, 선교헌금, 선교사) 총체적 선교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난 선교동원 (Mission Mobilization) 선교회입니다

교의 반응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난 선교동원 (Mission Mobilization) 선교회입니다



세계인터넷선교학회 인터넷을 통하여 창의적 접근지역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목표로 1996년 한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선교단체입니다. 인터넷 선교사를 훈련, 파송, 동역하고 있으며, 현재 웹사이트를 통하여 QT 메일을 신청하여 매일 받아보는 회원이 27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Jesus Christ 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언어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중국어와 아랍어는 SWIM 핵심 사역으로 현지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드선교회 SEED International은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라는 모토아래 북미주에서 최초로 한인 이민교회가 중심이 되어 세워진 선교사파송단체이다. Washington D.C. 인근에 국제본부를 두고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및 한국에 지부가 세워져 한인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데 힘쓰고 있다. SEED Korea는 방주교회 권영복 원로목사가 2001년에 창립한 이후 이사교회들의 헌신과 지역교회들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선교사파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SEED Korea는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염원하며, 이를 위한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ACTS는 아시아에서 세계선교를 향한 기독교 선교운동의 새로운 장을 연 대학으로서 아시아 교회들의 성장과 삼분의 이세계 선교발전, 그리고 아시아 복음주의 운동의 확산에서 출발하였고, 1968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아-태평양 복음주의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 신학운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ACTS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려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는 개교 당

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세아복음화'라는 설립 목표를 따라 달려왔고, 하나님께서 ACTS의 설립자들에게 보여 주셨던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에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알타이선교회 알타이선교회는 알타이어권인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알타이어권은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에 속하고, 타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와 비슷하여 한국인 선교사들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공헌할 수 있는 비교우위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알타이어권 선교의 필요성을 한국교회에 알리고 새로운 선교 일군들을 발굴하고 동원하여 이들 지역에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애굽선교센터 "1977년 부터 이집트와 이집션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설립한 토착선교단체입니다. 36년의 역사를 가진 애굽선교센터는 초교파적인 사역을 현재 진행중이며 현지기독교단과의 협력사역을 우선으로 사역하고, 국제선교단체와 이집트 선교단체들과의 협력사역이 활발하게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엔티엠 부족선교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종족(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국제 선교단체이다.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회의 목적이다. 현재 약 3천 5백명의 선교사들이 3백 여 부족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이 중 19명의 한국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좋은 선교사로 준비시키기 위해 4년간의 선교훈련 과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성경교육과 그리스도인의 동역자의 삶과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도인의 동역자의 삶과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합과 섬김 순회선교단 선교완성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와 연합하여 복음과 기도로 열방을 섬기는 단체이다.



열방네트워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확실한 선교의 도구인 비즈니스를 통한 개척선교를 하기 위해 1993년 출발한 초교파적인 선교기관이다. 세계선교의 마지막 산지인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한 열방에 영적인 대수로를 뚫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현재 중국과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다. 직업적 전문가들과 사역적 전문가들이 팀워크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역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개척선교를 하고 있다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열방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다. 국내에는 18개 지부로 2012년 1월 현재 국내 1,000여명, 국외 500여명의 전임 사역자와 700여명의 협력간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자신의 삶을 세계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예수제자운동 예수제자운동(JDM)은 1977년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성경공부로 모이며 깊은 교제를 나누던 중 주님께서 '만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마28:19)는 비전을 주심으로 그 일을 위하여 모인 작은 무리들의 모임이다. 예수제자운동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을 주고(골6:4),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교제를 통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행2:4),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 그 인생이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마6:30) 훈련하고 있다.



오병이어 선교회 1986년 창립된 오병이어선교회는 식품영양관련 전공자들을 선교에 동원, 훈련하여 식품, 영양의 상대적 저개발지역인 Yellow Window 지역의 총체적 선교전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Devotion, Stewardship & Partnership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예수님께 드려 깨어진 세상을 전인적으로 회복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한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식품영양관련 전공 전문인들의 복음화와 네트워크에 힘써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다.



온누리선교재단 CGNTV CGNTV는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선교 교육전문방송이다. 순수 복음 방송을 추구하는 CGNTV는 위성, 인터넷은 물론 케이블, IPTV,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로로 세계 8개 권역, 170여 국가에 24시간 방송하여 지구촌 깊숙이 기독교 콘텐츠의 허브가 되고 있다. 또한, CGNTV는 선교사 위성안테나 설치 캠페인을 통해 선교지의 영적 충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위대국제선교회 위대국제선교회는 국내 이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주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여 훈련시켜 이주민의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역파송 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선교단체이다. 인도 북동부의 나가랜드, 가나,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세계 23개 지역의 43개 이상의 유닛이 파송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킴으로서 대위임령을 완수하는 것이 본 선교회의 소명이다.



인터서브코리아 인터서브는 국제 전문인 선교단체이다. 열방의 복음이 필요한 종족과 사람들에게 '여러모양'을 통해 복음을 총체적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공동체이며, 세계교회와 단체들과 협력하여 겸손히 섬기는 16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건강한 초교파 선교단체이다.



일본복음 선교회 일본복음선교회(Japan Evangelical Mission)는 일본을 선교하는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전문선교단체이다. 1991년에 설립되어 현재 90여 명의 선교사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선교훈련을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며 일본어예배, 단기선교여행, 일본선교세미나를 통하여 일본선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제자들선교회 1992년 대학생 예수 제자 사역에 헌신된 50여 명의 사역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 따라, 대학생 예수 제자 사역을 토대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돕기 위하여, 주님께 전폭적으로 헌신된 삶을 자원하여 모인 예수님의 증인공동체이며, 제자공동체이다.



중국어문 선교회 중국어문선교회는 1989년 10월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워진 초교파 복음주의적 중국선교단체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열정과 재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이라는 사역정신에 따라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를 지원하고 중국 교회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섬겨왔다. 이제는 한국 교회와 함께 '중국을 주께로' 돌려드릴 뿐 아니라 중국 교회 및 세계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를 주께로' 돌려드리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지오 지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의 미전도종족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전문인 선교 공동체이다.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은 세계복화를 위한 선교지도자와 선교목회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지역교회 성장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교회사역의 복합목회에 필요한 학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전문인력, 그리고 목회자 및 평신도 전문인들이 지원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본 대학은 선교학 석사과정(Th.M)과 선교학 석사과정(MA)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본 대학원은 선교목회학전공, 국제리더십전공, 전문인사역전공, 치유사역전공 이렇게 4가지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본 대학원의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 세계선교현장에서 선교사와 선교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성장하는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로서 선교동원 사역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컴미션 COME Mission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여 만들어진 단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Thy Kingdom Come)",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Come, Lord Jesus)", "그제야 끝이 오리라(The End will Come)"는 성경구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선교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2000년에 이재환 선교사가 설립하였으며 미국과 프랑스, 호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전도종족 선교단체이다.



통합선교연구소 미국 알칸사주에 위치한 통합선교연구소는 복음의 정신으로 선교훈련 및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우선으로 합니다. 공동체 삶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배우고 창조질서회복의 사명응답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연구, 훈련, 협력 합니다.

Frontiers

KOREA

프론티어스 프론티어스는 전 세계 15억에 달하는 최대 미접촉 종족 그룹인 무슬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선교단체이다. 1982년 그렉 리빙스턴이 오직 무슬림에게만 (Only Muslim), 그들을 위한 교회개척을 (Church planting) 그리고 은사가 다양한 팀에 의해서 (Team work) 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여 현재 53개국 이슬람국가에 1,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한국 OM 국제선교회

오염선교회는 국제 선교단체로 1957년 멕시코 사역을 시작으로 현재 110여 개국의 선교지에서 6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 오염은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세계선교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 교사, 일반 청년,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사역자들을 단기 혹은 장기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현장실습 (On the job training)을 통하여 전인적인 선교훈련 및 사역을 감당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 OMF 선교회

1865년, 허드슨테일러 선교사는 중국대륙의 복음화를 위해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설립하며 내륙선교의 새 시대를 열었다. 1900년, 58명의 CIM선교사들과 21명의 자녀들이 의화단 사건으로 순교하는 등 고난은 있었으나 1939년 한 해에만 약 만 명이 세례를 받는 등 선교사역의 열매는 맺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51년 중국의 공산화로 부득이 중국을 철수하여 본부를 싱가포르 옮겼지만 사역은 동아시아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명칭을 CIM에서 OMF(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한국OMF는 1980년에 시작되었고,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1,300여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동아시아 18개국에서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하여 사역 중에 있다.



한국 SIM 국제선교회

SIM은 1893년 수단 내지 선교회(Sudan Interior Mission)로 출발해 오면서 아시아(ICF), 남미(AEM), 그리고 중남 아프리카(AEF)에서 사역하던 100년 이상 된 전통적인 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오늘의 SIM International (Serving In Mission)이 되었다. SIM은 복음주의(Evangelical) 신학과 신앙 위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인 국제적(International)이며 교파를 초월한(Interdenominational)선교기관이다. SIM멤버들은 다양한 은사와 기술을 가진 전문인 사역자들(Professional Workers)과 신학자 목회자와 전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인종과 영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국 WEC 국제선교회

WEC 국제선교회는 영국 캠브리지 7인의 한 명인 C. T. Studd에 의해 1913년에 창립된 단체로서 100년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복음적이고 초 교파적인 국제선교단체이다. WEC 국제선교회는 미전도 지역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에서 모인 2,200여명의 선교사들이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7년에 창립된 WEC 한국분부는 현재 380여명의 선교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하고 있다.



한국선교연구원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사단법인 한국해외선교회(GMF)의 연구기관으로 선교지의 정보 수집, 효과적인 선교전략 연구, 국내외 선교운동의 동향과 이슈 분석, 선교사 지망자에 대한 안내, 교회를 위한 정책 자문, 선교 리서치 훈련, 선교 교육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고전 12:26)는 말씀과 "모든 문이 열려있음"과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때문에 제한과 박해 아래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문서사역과 훈련사역을 통하여 강하게 하고, 세워주고,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또 자유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동일시하고, 그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하고 동원합니다.



한나 선교회

한나선교회는 한나2호라는 배를 타고 바다를 가르며 선교지로 나아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의 복음과 구제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역을 담당하는 한나선교회는 국제 의료복음선 한나2호를 통하여 복음, 전도, 교회개척, 의료와 구제 그리고 선교훈련과 현지 목회자 양성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한나호는 인도와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교육이념으로 1980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다. 합신에는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철학박사(Ph.D.), 신학박사(Th.D.) 과정에 각각 특화된 선교전공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히 전문인 선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문학석사(M.A. in Intercultural Studies)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인 원우회에 선교부를 두어 북한 중국 이슬람권 선교, 성경번역 선교, 이주노동자 선교 등의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선교 단체의 대표로 섬기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15% 정도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로서 증인된 삶을 감당하고 있다.

제2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2014년 7월 7일~11일, 햇불선교센터, 잠실실내체육관



이형자 이사장
제2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대회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명한 음성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시 40:1)" 하시면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1. 해외동포들과 국내 연고지가 없는 동포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자매결연 시켜주고 위로해 주라.
2. 선교지에서 태어나 그곳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풍습과 습관에도 이미 익숙하여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 2, 3, 4세를 불러서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현지의 선교사로 삼으라.
3.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어 민족의 정체성을 깨워주어라. 이것이 반복되면 너희 민족이 튼튼해지고 그들 해외동포들이 자기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현재 750여만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전세계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130여개국에 퍼져사는 중국인이나 100여개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세계 곳곳에 더 넓게 퍼져 살고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 하십니다. 한류열풍을 비롯, 높아가는 한국의 위상, 그리고 전세계에서 준비된 디아스포라 2, 3, 4세들과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이 시대에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한민족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모두는 한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제2회 햇불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통해 디아스포라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신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이 한국교회와 형제, 자매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기가 낳고 자란 곳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자리에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2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대회장
이형자 이사장



이재훈 목사 / 온누리교회 담임
제2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공동 대표대회장

선교는 교회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지역에 선교의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한국교회와 단체가 파송하는 선교사의 양적 증가는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열정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이 지속되기 위해 이제는 다음 세대의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1년 개최된 제1회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선교에 기여한 대회였습니다. 먼저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우는 한편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선교사로 부르신 선교적 정체성을 일깨운 대회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디아스포라 선교사역의 문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를 실제적인 선교자원화해 선교전략의 다변화에 기여했습니다.

제2회 햇불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는 다음 세대와 디아스포라라는 미래 선교 전략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두 요소를 아우르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제2회 햇불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가 교회에 주어진 세계복음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미래선교대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에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기도와 후원이 선교한국의 미래를 밝혀 줄 것입니다.



김승욱 목사 / 할렐루야교회 담임
제2회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공동 대표대회장

지난 2011년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북한과 전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넘어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 개 교회나 단체의 숫자적 성장이 중심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연합과 깊은 성숙으로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완성을 위해 큰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할 때입니다.

금년에 개최될 2014 햇불 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나누고 바라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하심이 가득케 되길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주강사



이형자 이사장



김상복 목사



이동원 목사



최순영 장로



이재훈 목사



김승욱 목사



진재혁 목사



정성진 목사



이영한 목사



이천수 목사



로렌 커닝햄 목사



김춘근 교수



루이스 부시 목사



마이클 오 목사



정인수 목사



임현수 목사



김종필 목사



루리코보만 부부



다니엘 박 선교사 부부



● 프로그램

	7/7 (월)	7/8 (화)	7/9 (수)	7/10 (목)	7/11 (금)
09:30 ~ 12:30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루이스 부시 목사 (4/14운동 대표)	정인수 목사 (아름다운연합장로교회)
		정성진 목사 (거북한빛광성교회)	김종필 목사 (필리핀 선교사)	임현수 목사 (캐나다 큰빛교회)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01:30 ~ 05:30		점심식사			폐회식
		최순영 장로 간증 (할렘루야교회)	다니엘 박 부부 간증 (순회선교사)	루리코 보만 부부 간증 (일본 WOGA 대표)	이찬수 목사 (분당우리교회)
		포럼 및 워크샵1 (150')	포럼 및 워크샵2 (150')		수료식
					폐회사 (이행자 이사장)
07:00 ~ 10:00	개회식	저녁식사			
	대회사 (이행자 이사장)			잠실 실내체육관 (6:30~9:30)	
				마이클 오 목사 (국제로잔운동)	
				로렌 커닝햄 목사 (열방대학 총장)	
	기조연설 (김상복 목사)	김승욱 목사 (할렘루야교회)	김춘근 교수 (JAMA 대표)	통역: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 "한인디아스포라, 복음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뜻 따라 흩어진 것" [기독일보]



▲ 1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 한민족연합집회에 참석한 한인디아스포라

햇불한민족디아스포라선교대회 한민족연합집회 열려

2014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폐회식을 하루 앞둔 10일 저녁 잠실실내체육관에서는 1천여 명의 한인디아스포라와 2만여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한 대규모 한민족연합집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선교햇불재단 이사장이자 대회장인 이형자 권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인디아스포라를 세계 각지로 보낸 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한인디아스포라로서 민족적, 신앙적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사는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태어나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와 습관에도 익숙하며 현지 선교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디아스포라 2, 3, 4세를 훈련해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셨다"며 "또 하나님은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면 민족이 튼튼해지고 해외동포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세계 각국에서 오신 한인디아스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그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갖고 태어난 곳에서 선교사로 살뿐 아니라, 말씀, 기도, 성령의 햇불을 높이 들고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 이형자 이사장(기독교선교해볼재단)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마이클 오 국제로잔운동 총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로 자라난 개인 간증과 지난 12년간 일본 선교사로 사역한 이유 등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마이클 오 총재는 "나는 필라델피아에서 자라난 한인디아스포라로, 미국인이었으면 했을 때가 있었고 오씨 성도 창피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내 성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일본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국인이 일본인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며 "이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본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 총재는 이어 "일본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나라에 살고 있다"며 "지금도 8백만이 넘는 우상을 섬기고 개신교는 0.2% 밖에 안 되며 이단만 18만3천 개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인들은 성적으로 타락한 국가에 살고 있다"며 태국 방문객 중 상당수가 성매매를 위해 온 일본인 남성이며, 일본의 가정 파괴로 인해 여자 고등학생 9% 이상이 원조교제, 여자 중학생의 4% 이상이 성매매에 참여한 연구 결과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래서인지 하나님은 저와 가족, 팀을 일본인을 사랑하기 위해 그곳에 보내셨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 총재는 이어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며 "주님은 지금도 잘 훈련되고 교육받은, 경건하고 유능하며 은사가 많지만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가진 한가지 희망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제가 섬기는 로잔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 총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서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좋은 집과 차, 명예로운 자리 등 아메리카 드림을 목표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고, 세계선교에 헌신할 영적 군사로 헌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그의 신앙과 삶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책 수익금을 세계선교에 기부 하고, 자신의 가족이 100만 달러 이상을 세계선교를 위해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마이클 오 국제로잔운동 총재(좌)가 말씀을 전하고 이웅조 갈보리교회 목사(우)가 통역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YWAM 창시자인 로렌 커닝햄 열방대학 총장은 '거대한 파도를 잡은 한인디아스포라'라는 주제로 한국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대해 강의했다.

커닝햄 총장은 "우리가 흠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것"이라며 "하나님은 복음을 온 민족에게 나누기 위해 한국 사람과 한인디아스포라를 부르셨다"며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어나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다. [기독일보 이지희 기자]

● 제2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를 마치고 [크리스찬리뷰]



▲ 햇불선교센터에서 열린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개막식에서 참가국들의 기수단과 개회 선언하는 대회장 이형자 이사장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 한인 디아스포라

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사장 이형자 권사)이 주최한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동 햇불선교센터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성황이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 축제

이번 선교 대회의 주제는 '성령을 받으라!'였으며 금번 선교대회에는 콜롬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캐나다, 미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일본, 요르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터키, 베트남, 가나, 케냐, 탄자니아,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약 1천여 명의 한인디아스포라들과 햇불회 회원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처음으로 참여한 대양주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50여 명이였다.

4박 5일 동안 펼쳐진 대회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주 강사와 워크숍 강사에 의해 햇불회관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빼곡한 일정이 참여자들의 진을 뺏지만 세계에서 달려온 디아스포라들은 지칠 줄 모르고 은혜의 강수에 몸을 적셨다.

이번 선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0일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 온누리뮤지컬찬양팀이 참가국 국기를 들고 찬양하고 있다.

펼쳐진 1천여 명의 디아스포라들과 한국교회 성도 2만여 명이 모인 대형 집회였다. 특별히 1만 성가대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합창과 호주 교민 성악가 김재호 테너의 열창은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볼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명소를 탐방하고 DMZ,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의 체험 일정도 진행했다. 또한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프로그램도 준비돼,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줬다. 대회 후에는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들이 팀을 이뤄 지방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햇불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 햇불회 소속 교회를 섬긴 이 프로그램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디아스포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연합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뜻 깊은 시작이 되었다.

폐회식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형자 이사장은 “지난 4박 5일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간 감동의 시간이었다”며 “성령을 받으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를 통해 여기 모인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파송식을 가진 후 한인 디아스포라 해외 선교사로의 삶을 결단했다.

이제 모두의 가슴을 벅차게 했던 선교대회를 뒤로 하고 각자의 나라로 모두 돌아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 세상의 땅 끝에서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의 현장을 향해 길을 나설 차비로 또 다른 출발을 위해 다시 경기장에 선다.

2015년 7월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대양주 대회, 시드니 개최 예정

특히 대양주의 참가자들은 2015년 디아스포라세계선교대회를 대양주에서 할 것을 본부측에 정식으로 요청하였고, 햇불선교회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본격적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발견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계승 발전시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 최종 주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본다.

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각 지역별 대표들인 공동대표들의 모임에서 몇 가지가 논의되었다.

1,2차 대회를 마친 세계 선교 대회는 차후로는 각 대륙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개념만 해도 중앙 아시아나 일본의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미주와 대양주,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상이하여 그 접근 방식도 특성화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했다.

즉, 세계 선교의 차세대 주자로서 구체적인 준비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인 정체성에 대한 집중 조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잠실대회의 카자흐스탄 참가자들

또한 세대별 적합성을 살펴 양육하고 준비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도전으로 남았다. 차세대라 함은 이제는 50-60대가 아닌 20-30대와 그리고 3-40대를 향한 복음적 접근과 무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을 전문인 사역자로 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창의적인 복음의 역군이 되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로 차세대 불러 일으켜야

이번 집회에서 복음주의자들의 UN이라 할 수 있는 세계 로잔운동 총재로서 한인 디아스포라인 마이클 오가 주강사로 참여해 그 활약의 눈부심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곳곳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열방의 청년 일꾼들을 세우고 파송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지구촌을 섬길 하나님의 일꾼들, 특별히 차세대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과 자질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세계의 크리스찬들을 감동시킬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양주의 일꾼들이 내년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하겠다.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남태평양의 젊은이들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의 구석구석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종족들과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거룩한 파도를 일으켜야 한다.

이번 대회 기간 중에 만난 디아스포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들 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복음화를 위한 세계 동향을 함께 나눔으로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제는 세계 한인 교회들의 영적인 소통과 선교정보와 자원의 공유와 교환을 통하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간의 협력사역과 공동사역을 추진할 그룹 다이내믹을 이뤄내야 한다.



▲ 개회예배를 마친 후 호주 참가자들이 대회장 이형자 권사와 기념 촬영을 했다

또한 각 대륙별로 갖고 있는 특별한 복음적 사명들을 모아 그 목표점을 향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구체적인 방안들이 연구 토론되어야 한다. 2015년에 있을 대양주 대회도 본 대회와 마찬가지로 컨퍼런스를 마치고 대양주 각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다.



▲ 각 지역별 공동대표 간담회에서 각 대륙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세계선교의 도구가 되도록 접근 방식을 특성화하자고 논의했다.

금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뚜렷이 확인한 것은 세계 170여개 국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의 꼭지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더욱 더 2015년 대양주로부터 시작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거센 파도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 파도를 타고 열방을 향해 일어날 차세대들을 꿈꿔본다. ☺

글/주정오열린문교회 담임목사,
2014 제2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오세아니아 공동대회장
사진/권순형(크리스찬리뷰 발행인)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

The 5th Korean American Mission Health Conference, 2014.6.20-21, 나성영락교회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

The 5th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nference hosted by KAMHC

일시 : 2014년 6월 20일(금)-21일(토)

장소 : 나성영락교회

주제 : "Total Healing, Jesus Healing"

성구 : "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23)

협력기관 : 베델교회, 은혜한인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나성영락교회, HPM, WCNF, KPM, MOM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 주제강연 강사



데이빗 탐슨 박사 David Thompson, M.D.

데이빗 탐슨 박사는 캄보디아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성장하였고 제네바대학 의예과 재학 중인 1968년 부모가 베트남에서 순교하였다. 이후 피츠버그대 의과대학 재학 중에 역시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순교했던 MK인 레베카 미첼을 만나 결혼하였다. 부부는 C&MA에 속해 아프리카 가봉에서 30년간 사역하였고 본골로 병원을 설립하여 지난 20년간 2만명 이상의 결신자가 나왔고 범아프리카 기독교외과의사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현재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수지 박사 Dr. Susie Kim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학교의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박사는 한국 최초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보스톤대, 1978년) 이후 최초로 한국에 커뮤니티형 정신요양원을 세웠고 이후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미국간호아카데미 회원이며 2001년 ICN 나이팅게일 국제파운데이션의 국제공로상과 2007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메달을 수여하였다. 러시아 펜자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안신기 박사 Dr. Shinki An

연세대를 나온 심장전공의인 안신기 박사는 고든컨웰신학교를 나와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기도 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200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역하였고 이후 한국에 돌아와 선교동원에 힘쓰고 있다. 현재 연세대 의료시스템의 의료선교센터의 디렉터로 있으면서 한국기독교병원협회 사무총장, 한국의료선교협회 이사, 기독교선교 NGO인 WELL의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김춘근 박사 Dr. John C. Kim

미국 영적각성을 위한 JAMA운동의 창설자이며 회장인 김춘근 박사는 현재 몬트레이 베이의 캘리포니아주립대 국제 비즈니스/경영 명예교수로 있으며 페퍼다인대학, 알래스카대학 등에서 40년간 가르친 경력을 갖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영적각성을 위한 운동을 펼치며 강연해 오고 있다.

● 워크샵 강사

Bob Shim MD / Chi Chung, MD / Chong Seung Kwon, Rev. / David Thompson, MD / Eun Sang Jeon, OMD
Jamie K, Jody Collinge, MD / John Hong, MD / Raymond Choi, DDS / Joon Bum Park, MD / Kim Yong Jae, MD,
OMD, Rev. / Mike Soderling MD / Peter Chung, MD / Sam Molind, DMS / Scott Lee, MD /
Sherry O'Donnell, DO Shinki An, MD / Stan Rowland, Rev. / Stephen Y. Sung Ho Bae, MD
Susie Kim RN, DNSc, EdD / Young Chang Kang, MD



● 강연/워크샵 스케줄

주강연 Plenary Session			
June 20, 2014	3:00-4:00 p.m.	Session I	김수지 박사 Susie Kim, DNSc, EdD, RN
June 20, 2014	8:30-9:30 p.m.	Session II	안신기 박사 Shinki An, MD
June 21, 2014	9:15-10:15 a.m.	Session III	데이빗 탐슨 박사 David Thompson, MD
June 21, 2014	7:00-8:00 p.m.	Session IV	김춘근 박사 John Kim, PhD

선교보고 Missionary Reoprt			
June 20, 2014	7:30-8:15 p.m.	태국 Thailand	Bob Shim, MD
June 21, 2014	2:00-2:30 p.m.	에티오피아 Ethiopia	Chi Chung, MD

Workshop 1 (6/20/2014, 4:15-5:00PM)		Workshop 3 (2014.6.21, 2:45-3:30 PM)	
1. Africa	David Thompson, MD	1. Forum, Muslim	Joon Bum Park, MD
2. Islamic worldview of medicine	Joon Bum Park, MD	2. Forum, Education	Shinki An, MD
3. Haiti	Kim Yong Jae, MD	3. Forum, N Korea	Scott Lee, MD
4. Domestic mission	John Hong, MD	4. Oriental medicine	Eun Sang Jeon, OMD
5. Total healing, Principles	Sung Ho Bae, MD	5. Urban CHE	Stan Rowland, Rev
6. N. Korea	Jamie K	6. Student Track	Chi Chung, MD & Bob Shim, MD
7. Student Track	Scott Lee, MD, MPH	7. Student Track - "Biblical Foundation of Mission"	Pastor Yana
8. Student Track	Mike Soderling, MD		
Workshop 2 (6/21/2014, 10:30-11:15AM)		Workshop 4 (6/21/2014, 3:45-4:30PM)	
1. Dental	Raymond Choi, DDS	1. Nursing	Susie Kim, RN, PhD
2. CHE	Jody Collinge, MD	2. Total healing, practicum	Sherry O'Donnell, DO
3. Short term	Scott Lee, MD	3. Medical resources	Young Chang Kang, MD
4. Water	Chong Seung Kwon, Rev	4. Global Health Outreach	Sam Molind, DDS
5. N. Korea	Stephen Y	5. N. Korea	Peter Chung, MD
6. Student Track	Sam Molind, DMS	6. Student Track	Burton Lee, MD
7. Student Track	Susie Kim RN, DNSc, EdD	7. Student Track	Stephen Y
		8. Student Track	Various Exhibitors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HOW TO REGISTER

INDIVIDUAL REGISTRATION

To register, go to www.kamhc.org and click on the link for "KAMHC 2014 conference"

Registration Fees:	
MD/DDS	\$100
Other medical professionals	\$50
Missionary/Students	\$20
All Others	\$30

EXHIBITOR REGISTRATION

To register for Exhibitor Registration, go to www.kamhc.org and click on the link for "KAMHC 2014 Conference/Exhibitor's Area"

Exhibitor Registration Fee:\$300
Booth Representative Fee:\$35 (up to two)

For more information about Exhibitor Registration, Email us at exhibit@kamhc.org



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Tel: 714)444-3032
Fax: 949)419-2515
Email: kamhc2014@kamhc.org
Website: www.kamhc.org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anta Ana, CA
Permit No. 20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P.O. BOX 4825
Irvine, CA 92616



Empower • Develop • Uprise

"To Mobilize and Equip Healthcare Professionals to be Global Missionaries"



제5차 한미의료선교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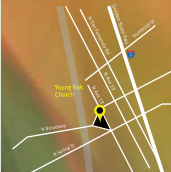
KAMHC 2014
Healthcare Missions Conference

Register Online at www.kamhc.org

Jesus healing, Total healing
1 Thessalonians 5:23

Date
June.20-21, 2014

Place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of Los Angeles
나성영막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Plenary Session Speakers
Shinki An, MD, Rev
John C. Kim, PhD
Susie Kim, RN, DNSc, EdD
David Thompson, MD



Co-hosting Churches and missions organization
*Bethel Korean Church *Grace Korean Church *Se-Rang Community Church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KPK, WCFE, GDA, KPW, MOW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COME AND HEAR !
OUR SPECIAL GUEST SPEAKERS
FOR OUR PLENARY SESSIONS

- David Thompson, M.D.
- Susie Kim, RN, DNSc, EdD
- Shinki An, MD, Rev
- John C. Kim, PhD (JAMA President)



WHAT IS KAMHC?

Korean 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KAMHC) exists to inform, motivate, mobilize and train mission-minded healthcare professionals through national regional conferences and other training opportunities. It also strives to provide effective networking among them and with other mission organizations and local churches.

WHAT IS KOREAN-AMERICAN HEALTH MISSIONS CONFERENCE?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nference is a gathering of medical professionals, students, churches, and different organizations dedicated to healthcare missions. This biennial two day conference features plenary session, workshops, exhibitions, student track and more! It's a great opportunity to learn, connect, and build relationships that help advance the Kingdom through medical missions.

WORKSHOP TOPICS

- Africa
- Community Health Evangelism
- Dental
- Domestic Mission
- Eye glasses
- Forums (Muslim, Education, N. Korea)
- Global Health Outreach
- Haiti
- Islamic Worldview of Medicine
- N. Korea
- Nursing
- Oriental Medicine
- Short term medical missions
- Short Term mission
- Student track
- Total healing, Principles & practicum
- Water ministry



STUDENT TRACK

The Student Track option is available for students, which will introduce current college students, graduate students, and anyone who is interested in a health career to the impact of medical missions and also provide guidance on how to realize their vision as healthcare professional in God.

**CO-HOSTING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 MEDICAL MISSIONS
ORAGANIZATIONS**

- Bethel Korean Church
- Grace Korean Church
- Sa-Rang Community Church
- Youngnak Presbyterian Church
- HPM, WCNF, GDA, KPM,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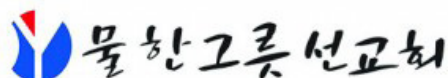
KAMHC invites everyone who has the heart in this commission, whether you are in western medicine, oriental medicine, dentistry, pharmacology, nursing, non-medical person, or in school.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everyone, everywhere." (Mark 16:15) is the great commission by Him that applies to every believer in Jesus.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 전시단체



물한그릇선교회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Our purpose is to go to the ends of the world sharing God's love and using the provision of clean water to open people's hearts to listen to the gospel.



Africa Inland Mission Africa Inland Mission (AIM) is an evangelical Christian mission agency dedic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hrist-centered churches among all African peoples. With a priority for bring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African people groups who have never heard, we engage in a broad range of ministries that help meet practical needs while opening doors for presenting the Gospel and discipling believers.



Africa Future Foundation

Africa Future Foundation Africa Future Foundation is a non profi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established on July 6th, 2007 registered und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Republic of

Korea. AFF is committed to serve Africa to alleviate poverty and life-threatening diseases by providing advance healthcare services and education. Our mission is to achieve lasting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in Africa.



Bethel Gift of Vision What we provide: Education and optical training of overseas missionary staffs in 15 different countries. Establish, manage, and help set up Optical Labs in local Hospitals in overseas missionary sites. Currently, very actively support in local Hospital, Chiaperanco in Guatemala, and Hebron hospital in Cambodia. At least more than 10 medical mission trips and vision mission trips a year. Help set up Education and Optical Trainings for other churches in US who are interested. We provide at least 1500 prescription glasses and 4000 reading glasses a year.



Blessings International Blessings International exists to heal the hurting globally and locally by providing life-saving pharmaceuticals, vitamins and medical supplies to medical mission teams, clinics and hospitals; to build healthy communities by treating the poor and victims of endemic medical problems, outbreaks of disease or overwhelming disasters; to

transform lives by actively demonstrating the love and compassion of Jesus Christ.



Baptist Medical and Dental International (BMDMI) BMDMI meets the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of the poor living in Honduras, Nicaragua and Nepal, primarily through short-term medical and evangelical mission volunteers from all across the U.S. These teams may also participate in construction and food distribution projects. In addition, surgical teams travel to the BMDMI Baptist Hospital in Honduras to perform various surgeries each year. You can make a difference by serving on a team!



Chapman University School of Pharmacy Located on the Chapman University Health Science Campus in Irvine, California, the School of Pharmacy (CUSP) will engage student pharmacists in science-based, personalized, interdisciplinary education and training. The CUSP program will help students focus on the lifelong pursuit of answers to the

grand challenges in human health around the world and their role in compassionate delivery of those solutions, starting with engagement in the local Orange County community. CUSP will confer the professional degree Doctor of Pharmacy (Pharm.D.) upon those individuals who successfully complete the didactic and experiential educational components of the program. Responsibility for the use of medication and the health outcomes associated with such use is at the core of the pharmacist's role in advancing health.



Christian Friends of Korea Christian Friends of Korea has been working in North Korea for 19 years supporting tuberculosis, hepatitis and pediatric health care centers. This consists of food, medicine, agricultural support (greenhouses, tractors and seeds), facility renovations (windows, doors, roofing), operating suite renovations and clean water projects (water system installations, water filter systems).



The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C&MA) The 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 (C&MA) is a Jesus-centered, light-bearing missions and church-planting movement with the deeper life at its heart. Rather than just a denomination intent on building its own kingdom, we're a people who "go." The C&MA has over 780 global staff members serving in over 80 countries.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s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Frontiers, which started with the advent of the 1994 war in Rwanda, is active in Rwanda, Congo, Burundi, Tanzania, and Uganda as an international NGO organization. Specially built as a hospital vessel (named Salim) at Victoria Lake, our medical ministry serves one thousand island villages on the Lake and 35 million people that live around the Lake. Our ship Salim has its own 9 ports and a health center which collaborate with the government hospital. Victoria Lake is about 2/3rds of the South Korean land and has shores in the three countries of Kenya, Uganda, and Tanzania.



Christian Journal for Global Health The Christian Journal for Global Health will disseminate evidence-based best practices, improve understanding of intercultural work in the context of health, and increase world-wide exposure to the innovations,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global health

workers. The CJGH will therefore publish articles on global health that are open-access, scholarly, with a diverse intercultural and inter-denominational Christian perspective. Integrative articles will draw upon multiple disciplines in health and theology. Increased understanding of health and healing is missional and will stimulate a new level of conversation.



Collaborative for Neighborhood Transformation Neighborhood Transformation (NT) arose from Community Health Evangelism (CHE) strategy, which is a wholistic, transformational, empowering ministry. CHE is being used in 120 nations, by 500 teams of many mission agencies and denominations, in over 5000 villages and neighborhoods of the world. What God was doing overseas in individual and community transformation was modified to work in under-served urban neighborhoods in the USA. The Collaborative for Neighborhood Transformation is made up of churches and agencies in a given city trying to implement Neighborhood Transformation in their selected neighborhoods. These churches and neighborhoods are networked into a city Collaborative and then the city collaborative is networked into the Collaborative for Transformational Ministry.



The Cross Mission The Cross Mission is a 501(c)(3) tax-exempt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7. Since its foundation, the Cross Mission has conducted many projects to spread the gospel and save spirits through medical healing and assist people who live in desperate and needy areas. Our mission fields include North Korea, the boundary area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other needy area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Korean Studies Program in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offers four degrees: MA, Th.M, D.Min, and D.Miss. Approximately 300 active students who come from 34 countries and speak 32 languages are sharing diverse cultural heritage. Our students are missionaries, local church pastors, and lay leaders who are influential in mission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 fields.



Global Dental Alliance Global Dental Alliance (GDA) was founded in 1995 by a group of dentists seeking to utilize their profession for God's glory by serving those both at home and abroad. GDA strives to create a new paradigm in dental missions where members contribute through their God given gifts and roles.



Global Partners USA Inc. Global Partners is an interdenominational mission agency that focuses on raising native leaders for Christ. In 13 short years, God has blessed us with 332 missionaries in 34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We share the Gospel of Jesus for hope of eternal life. In addition, we have partnership with national leaders in training, equipping, and sending nationals to the work of God's mission around the world. iGP is a part of GP family. We partner with local churches to equip and train people for God's mission locally and abroad. iGP partners with pastors and churches for more effective ministries of transforming lives for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Global Recordings Network GRN is a leading provider of Christian evangelistic and discipleship audio visual materials to the least reached language groups of the world. Our passion is to work where there are no translated Scriptures and no viable local church, or where a written Scripture or portion is available but where there are few if any who can read it or make sense of it.



Grace Mission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is a distinguished and forerunning evangelical institute with unwavering commitment in Jesus Christ to equip future ministry leaders. GMU is committed in academic excellence founded on Biblical Theology and focuses on student's development of character and spiritual maturity. To prepare the arising new generation of Korean-American ministerial leaders, GMU launched a new English Track Program where all courses are taught in English. The benefit of this cutting edge pioneering English program is that it exclusively addresses both text, the Bible and theology and context in the Korean-American church and/or ministry setting. We confidently invite all English speaking prospective students to GMU.



Good Samaritan Medical Dental Mission The Good Samaritan Medical Dental Ministry's (GSMDM) mission is to reach out to the people of Vietnam through the healing ministry of the church by providing state of the art medical-dental care through annual missions, education and in-country healthcare facilities. The ministry was a vision 21 years in the making and it started in the year 2000 with a small team of 1 physician and 4 college student volunteers. Today, it is the biggest and most comprehensive medical-dental mission in Vietnam. Annually, the team treats 4,000 patients in just 2 weeks and performs 100 major surgeries. The Ministry also aims to improve healthcare for all people by assisting the country with 1) the development of an Emergency Medicine program where the first EM residency was established in 2011 and the EM Society in 2013 and 2) training primary care physicians in the most remote province of Northern Vietnam.



Haiti Health Ministries The purpose of Haiti Health Ministries is to show the love of Christ to the lost and to strengthen the body of Christ in Haiti. Thus we endeavor to present the Gospel and subsequently follow up with discipleship training as an outgrowth of the medical ministry and outpatient medical clinics in Haiti. Patient education, community health education and screening, training and encouraging national medical workers, as well as caring for indigent patients are a part of that ministry and used to strengthen and encourage Haitian believers and witness Christ's love to non-believers. Our outpatient clinic includes laboratory, sonography/echocardiography, pharmacy, digital radiography, pediatric malnutrition management, and small surgical procedures.



HPM (Health Professionals Ministry) Healthcare Professionals Ministry (HPM) is a network of Christian healthcare professionals formed to reach out both locally and globally in sharing God's love through healthcare while growing spiritually together as a body of Christ. We meet regularly for small group bible studies, serve locally through our skid row health clinic, serve globally through short-term missions, as well as network with one another through various fellowship activities. For more information, email us at HPM@ynccla.org or find us on Facebook.



iHPM (Internet-based Health Professionals Ministry) iHPM is a division of HPM (Healthcare Professionals Ministry) which is internet-based. Objectives of iHPM are: (1) provide internet-based healthcare consulting for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missionaries (2) provide a forum where iHPM subscribers can ask health related questions regarding their family members, friends, church members, etc. (3) message board which can post healthcare-related ministry opportunities (4) prayer support for subscribers' practice, patients' needs (physical and spiritual), etc. (4) praise report of what God has done in iHPM subscribers' medical practice and health ministry (answered prayer, healing of patients, salvation of patients, etc). Currently this is being achieved via email communication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HPM@ynccla.org



Healing Together Korea Council of Healing Mission was established in 1969. Our mission is to spread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World,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isolated and going through hardships. K.C.H.M. collaborates with 79 organizations, focusing on enabling and mobilizing medical missionaries.



Hope Imaging Hope Imaging is dedicated to providing medical professionals' training in ultrasound technology, so that they may use their skills to further the life-affirming mission of medical organizations,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e provide approximately one week of didactic and hands on ultrasound training to in country doctors or other medical professionals on their specific, patient population needs. We return within six months to review, refresh and build upon the initial skills developed in the first week. Our medical missionaries and volunteers cover their own airfare, insurance and immunizations. The hosting mission organization provides safe transfer from airport to location and room and board for up to four missionaries from Hope Imaging. Our mission partners also help to sponsor future trips through a donation of \$1,000 to the programs of Hope Imaging.



Inheritance Magazine INHERITANCE magazine is a publication that tells the everyday stories of how our Christian faith intersects with Asian and American culture.



International NGO Hebron Medical Center Hebron Medical Center i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located in Phnom Penh, Cambodia. Our center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007 by medical

missionary doctors. Our center was built with the help of financial and prayer supporters from South Korea, USA, Canada, Australia, Cambodia and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Our goal is to provide affordable medical treatments to Cambodian people who cannot pay for the medical expenses and heal the broken hearted people with God's love. Yearly, we have provided medical services to 50,000 patients and have operated 700 to 800 patients. One of our main operations was providing heart surgery by our partners in South Korea to children with congenital heart malformation to 90 children. We are excited to open the Cardiac Center in Hebron Medical Center in July 2014. Also, we are planning to open the Nursing College by the end of 2014 to educate and bring up local medical professionals, accomplish a Center for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 and carry out Women's Cancer Screen Center. Hebron Medical Center is planning to become self-sustainable. We request your prayer for unity among the doctors and hospital staffs, opening of Cardiac Center and Nursing College, and financial support.



Interserve USA We are Christian professionals proclaiming the gospel where Christ is least known. We serve the needs of people in the Arab world and Asia. We are the oldest interdenominational mission sending agency in the US, with 159 years of effective ministry - and an effective strategy to reach these difficult places in the 21st century.



Kingsway Charities Inc. Kingsway Charities Inc. is a faith-based, Christian charity headquartered in Bristol, Virginia. Our primary focus is International Medical Missions, a ministry which warehouses medications and medical supplies donated from pharmaceutical companies. These donations are then shipped to qualified medical mission teams serving the poor in third-world and developing countries. Since 1994 Kingsway Charities has distributed

in excess of 2 billion dollars worth of medicine and medical supplies to medical teams serving the poor throughout the world.



Los Angeles Christian Health Centers (LACHC) Los Angeles Christian Health Centers (LACHC) is a non-profit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serving homeless and low-income individuals and families in Los

Angeles' Skid Row and East Los Angeles communities since 1995. LACHC continues to meet the increasing medical needs and challenges of our most vulnerable populations with 2 full-time clinic sites, 12 part-time satellite sites, and a street medical outreach team. Over 90 employees and dozens of volunteers now serve close to 10,000 men, women and children annually. With its extensive presence throughout Los Angeles County, LACHC is able to deliver a comprehensive array of medical and social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its patient population. LACHC is proud to partner with a number of community-based and faith-based organizations that share our mission of serving those in greatest need. Through this network of collaborations, we create comprehensive healthcare access points at shelters, drop-in centers, supportive housing sites, churches, and mental health facilities - reaching those who would otherwise go without care.



Manna U.S.A. Manna U.S.A. is a Christian non-profit 501(c)(3) organization established in 2003 to bring hope to the people of Far East Asia. Founded in 1997 by a South Korean Christian Elder Shin, Manna U.S.A. is committed to help the people in China and North Korea with relief, health care and education.



Medical Ambassadors International Medical Ambassadors International is a Christian organization which developed the strategy of Community Health Evangelism. Along with training like-minded organization, we teach communities/individuals how to know God, prevent disease, purify water, increase food production, develop microenterprise projects, and move a culture of despair to one of hope.



MedSend MedSend is a Christ-centered global healthcare ministry. Our part in God's plan of salvation is making educational loan payments for those Christian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decide to serve the underserved full-tim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re it not for MedSend, many would have to stay in the U.S. and take higher paying jobs to pay their loans. Since 1992, we have taken over the loan repayments for almost 500 Christian healthcare professionals serving full-time in over 80 countries and 13 U.S. cities. Over 150 are presently serving and include physicians, dentists, nurses, veterinarians, physicians' assistants, etc. 75 missions sending agencies such as SIM, Interserve, Pioneers, World Vision, etc. depend on MedSend for grants to enable the service of their healthcare missionaries.



MegaVoice Our mission at Mega Voice is to assist the Church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by providing rugged solar powered ministry focused digital audio devices that can break the silence for thousands who have never heard the Good News. Mega Voice is carrying His message around the globe in over 4,600 languages and your ministry can use these effective players to share His message of hope and healing along with humanitarian messages and training.



Mexican Medical Ministries MMM is a medical mission agency with ministry sites, clinics and sister hospitals located primarily in Baja California, Mexico. Our ministries include meeting the medical and spiritual needs of those with limited access to health care in developing communities, migrant camps, and isolated ranches. Our outreaches include community health education; health screenings; dental, medical and vision consultations; and surgical teams. We work alongside local churches in helping them to fulfill their ministry vision. Our goal is to share the Gospel with everyone who comes to see us for medical assistance. We have short- and long- term mission opportunities for medical as well as non-medical volunteers.



The Mission Society The Mission Society, founded in 1984, is a full-service missionary sending agency. We send missionaries with various talents to over 30 countries for lengths of service ranging from one month to multiple years. In addition, we help to equip and mobilize local churches both here in the U.S. and abroad.



MissionTripsInsurance.com MissionTripsInsurance.com serves those who serve Him; specifically by ensuring that those called to missions around the globe are not derailed by lack of insurance coverage. As a Christian, family owned business, MTI offers over 30 years of experience, insuring over 100,000 short and long term missionaries worldwide.



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MCM Teaching Hospital was founded by the MyungSung Presbyterian Church of South Korea in order to provide advanced and quality healthcare to Ethiopians and to train Ethiopian medical professionals. MCM has both Ethiopian and foreign medical professionals who are motivated and committed to taking care of the medical needs of patients who are admitted to the hospital. As the first state-of-the-art hospital in Addis Ababa, this hospital offers high-quality personal as well as professional healthcare service to all. MCM also reaches out to rural areas of the country through mobile clinics.



OMF International The mission of OMF International is the urgent evangelization of East Asia's Peoples. Our vision for medical ministry is to see God glorified by the provision of strategic, compassionate medical care that meets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and enables and enhances our vision for indigenous biblical church movements.



Oceania Medical Missions Association (OMMA) OMMA is a missional network association that aims to promote and provide medical missions for missionaries and mission groups in Oceania. OMMA has been initiated by local churches and medical persons in Australia in 2011 with the help of the Medical Missions Association Korea. OMMA is endeavoring at the moment to reach out to areas like Cambodia and its surrounding countries, and more recently Vanuatu. Its membership consists of many medical/non-medical persons, local churches, students, health-related practitioners such as chiropractors, physiotherapists, pharmacists, traditional medicine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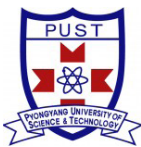
Partners in Hope (PIH) Partners in Hope (PIH) is a Malawian non-profit organizatio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country's healthcare infrastruc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high-quality Medical Center, and providing assistance and training to 5 mission hospitals and over 40 health centers throughout Malawi. With a special focus on HIV/AIDS, PIH is improving physical infrastructures, laboratory capacity, referral mechanisms and the clinical skills of health workers. Founded in 2001, PIH has become one of the most dynamic healthcare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offering a 'holistic approach' to HIV/AIDS. The Partners in Hope Medical Center is staffed by international and national clinical personnel, and is equipped with two clinics, a counseling center, laboratory, pharmacy, x-ray/ultrasound and an inpatient facility.



Pioneers Pioneers is a missionary sending organization based in Orlando, FL. Our mission statement is to mobilize teams to glorify God among unreached peoples by initiating church-planting movements in partnership with local churches. With over 2700 members, Pioneers is working through 280 teams in 101 countries among 187 unreached people groups. There are a wide variety of short-term and long-term opportunities to serve among Muslim, Hindu, Buddhist, tribal, and secular groups. From medical ministry to teaching English to outreach using media, the heart of Pioneers is to be innovative and flexible as we pursue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through church-planting movements.



Pneuma Foundation Inc. Pneuma Foundation is a non-profit mission organization incorporated by lay Christian professionals to support missionaries and mission organizations. One of the main functions of Pneuma ministries is to participate in short and long term mission work. The primary mission of the Pneuma Foundation is spreading of the word of God throughout the world. Our goal has been to reach the underprivileged people of the third world nations with a small token of the comfort of life through the Good News of God.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 is the first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DPRK founded and operated by international faculty to cultivate a generation of global leaders. The goal of PUST Medical Sciences (PUMS) is to train compassionate healthcare professionals at international standards to best serve the real needs of the people of the DPRK.



SEED International The vision of SEED International is "Church does mission." The Great Commission was given to churches and thus, we have to remember that the church is the principle agent to fulfill the calling of world mission. Jesus commanded u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Matthew 28:18-20), and to

be His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No one individual or organization can fulfill this grand command alone. Only the church of Christ can do it.



SEND International SEND International mobilizes God's people, engages the unreached, and establishes reproducing churches through global partnership in fulfilling the Great Commission. Through careful screening, specialized training, Spirit-guided planning, and quality support services, SEND endeavors to be a platform for local churches to go global. SEND began in 1945 as the Far Eastern Gospel Crusade (FEGC), and was renamed SEND International in 1981.



Simply The Story & The God's Story Project Simply The Story (STS) combines discussion-style teaching with oral storytelling, going deeply into the Word. STS has been used for counseling and natural Biblical witnessing. The film, God's Story: From Creation to Eternity, an 80-minute, storytelling chronological overview of the Bible, is useful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Talbot School of Theology Talbot School of Theology is a theologically conservative, evangelical seminary in Southern California near Los Angeles. With over a 60-year heritage of biblical fidelity, the seminary couples solid evangelical scholarship with intentional character development to prepare students for a lifetime of relevant, effective ministry.

The seminary's six master's degree programs and three doctoral degree programs are led by a faculty of nationally renowned, widely-published and actively engaged ministry leaders.



Vision Care As God commands us to love our neighbors, and serve them with the heart of His love and compassion, we go every where in the world to help those who are suffering, especially from vision disabilities, so that they will be able to see with healthy eyes, minds and souls.



The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World Christian Nursing Foundation (WCNF) was established in Los Angeles, USA, in 1998 in order to realize the dream of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hroughout the world through Nursing. The mission and purpose of WCNF is to obey the words of the Bible, based on Christian principles, and use the God-given gifts and resources of Christian nurses as tools in evangelizing, educating, and serving the society regionally,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World Medical Mission World Medical Mission was established in 1977 to assist general surgeons who wanted to volunteer for short-term mission trips. Today, we place volunteer Christian physicians, dentists, and other medical personnel in mission hospitals and clinics around the world. We

also staff a biomedical department and warehouse that provides critically needed medical equipment and supplies to medical mission facilities.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WEC) WEC's church-planting teams work among 130 person groups in Africa, Europe, the Middle East, Asia, Central Asia, the South Pacific, and Latin America. Of the world's 16 person group affinity blocks, our teams serve among 13. We are present in nearly two-thirds of the countries within the 10/40 Window and over half of our church planters reach out to Muslims. The primary focus of our work is to establish multiplying churches among unreached people groups through multi-cultural teams. This endeavor encompasses a variety of ministries such as: Accounting, Administration, Agriculture, Bible Teaching, Bible Translation, Children in Crisis, Church Planting, Construction, Dental, Medical, Medical work and training, HIV/AIDS clinics, Dorm Parents, Drug Rehabilitation, Engineering, Evangelism, Information Technology, Literacy, Mechanics, Media, Missions Mobilization, Missions Training, Nursing, School Teaching, Secretarial, TEFL, Tent making, Tutoring, Youth work, and more.



● “의료선교 목적은 ‘돈’ 아닌 ‘복음” [기독일보]

베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은혜교회, 나성영락교회 공동으로 주최, 50여 선교단체 참여해 의료선교의 비전 나누며 협력해



▲ 제5차 한미의료선교 대회가 나성영락교회에서 6월 20일, 21일 양일간 진행됐다.

제5차 한미의료선교대회(Korean-American Mission Health Council Conference, KAMHC)가 "예수를 통한 온전한 치유(Total Healing, Jesus Healing)"를 주제로 6월 20일(금), 21일(토)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진행됐다.

한미의료선교협의회는 의료선교의 사명을 지닌 전문가, 학생, 의료선교 단체와 치유 및 의료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를 네트워킹하고, 의료선교를 장려하고, 의료선교 및 치유사역에 중사하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들을 안내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 안에서 효율적이며 유능한 치유자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는 베델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은혜교회, 나성영락교회가 KAMHC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의료선교에 비전과 소명을 지닌 여러 교회, 선교단체, 기독의료인들이 참석해 대화하며 협력하고, 의료선교의 분명한 목적 '세계복음화'를 되새겼다.

한기홍 목사는 "이 대회를 통해 여러 의료선교기관들이 서로 각자의 활동을 소개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말하며 "급변하는 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교전략과 전술이 개발되어야 하는 동시에 모든 사명자들 내면에 선교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KCMEA) 양유식 회장은 "젊은이들이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 남미, 유럽, 아프리카에도 한인 의료선교회가 결성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첫째 날에는 1978년 보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국내 간호학 박사1호), 2001년 국제간호대상을 수여했으며, 한국 호스피스협회 이사장을 거쳐,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2007년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제41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記章)' 수여했으며, 2011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총장으로 의료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김수지 박사를 비롯해 오지에서 의료봉사를 한 안신기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 소장이 전체 강의를 이끌었다.

워크샵에서는 데이비드 톰슨(David Thomson)박사가 아프리카에 관해, 한국인터서브선교회 대표 박준범 선교사가 이슬람의 의학에 관한 관점을, JAMA 치유와 건강사역 디렉터 배성호 박사가 전인치유에 관해, 제이미 K가 북한에 관해 논의했다. 또, 에반젤리컬커버넌트교회(Evangelical Covenant Church)의 선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 아시아에서 6년간 봉사했으며 현재 태국에서 의료선교를 하는 밥심(Bob Shim) 박사 선교 보고했다.



▲ 둘째날 데이비드 톰슨 박사가 전체강연을 이끌었다.

둘째 날에는 데이비드 톰슨 박사와 자마(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 All Nation, JAMA)대표 김춘근 박사가 전체 강연을 이끌었다.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죽음 목격 후 의료선교 사명 품어

선교사인 부모님과 여행을 하던 중 현지인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은 장면을 본 14세 때, 의료선교의 사명을 품게 됐다고 고백한 톰슨 박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성장했다. 1968년 그가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제네바 컬리지(Geneva College)에서 의학부 예과 과정을 밟던 당시 그의 부모는 북베트남 게릴라들의 신년 공세(Tet offensive)로 목숨을 잃었다. 예과 졸업 후 피츠버그대 의대(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Medicine)에 입학했고, 베트남 게릴라들에게 아버지를 잃고 백키 미첼과 1971년 결혼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료선교를 계획하고 있던 아내와 1977년 새로운 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프리카 가봉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봉골로병원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며 간호학교를 열었고, 마침내 봉골로 병원을 종합병원이자 의료 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켰다.

1996년 아프리카 의료선교사 12명과 함께 의료선교기관 '크리스천 외과의 팬아프리카아카데미(Pan African Academy of Christian Surgeons, PAACS)'를 설립했으며, PAACS는 현재 가봉, 카메룬, 니제르, 에티오피아, 케냐에서 외과의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날 연단에 오른 톰슨 박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지구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과 열왕기하 5장의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을 전하며 의료선교사라는 '소명'을 강조하며 의료사역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재확인했다.

"나아만 장군은 영적인 회복과 치유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문둥병의 치유만 원했다. 그러나 그에겐 현명한 종이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쳤다. 나아만이 치유 받은 과정을 보면, 먼저 나아만은 유대인 종인 소녀의 간증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 그가 아람 왕에게 이를 알리자 왕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개, 의복 열 벌과 함께 편지를 써서 그를 이스라엘 보내줬다. 그는 이스라엘 즉 적의 영토로 긴 길을 걸어갔다. 엘리사는 그를 만나러 오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생각과 달리 엘리사가 오지 않자 그는 화를 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하라는 종의 조언에 결국 요단강물에 일곱 번 씻어 병이 치유됐다."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

"문둥병 치유를 통해 나아만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 안에 감사가 생기고 육체적 치유를 통해 정서적, 영적인 치유를 경험했다. 그가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려 하나 엘리사는 받기를 거절했다. 이사야 55장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는 "그러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버는 기회로 바꾸려 했다. 그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돈을 받지 않자 나아만을 뒤쫓아 가 엘리사가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받으라 했다고 거짓말을 해 은과 옷을 받았다"며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 물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은 변명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내버려두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사역과 기관의 목적이 잃어버린 자들, 고통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있음을 망각한다면, 이 사역의 결과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라며

아프리카에서 의료선교를 하던 당시 바쁘다는 이유로 피그미족 여성을 치료해주지 못했던 경험을 전하며 가슴아파했다.

또한 그는 같은 종교 내 분쟁이 북아프리카, 중동에 발생하는 많은 폭력 사태, 분쟁, 전쟁의 원인이 된다고 하며, 의료 선교 현장에서 환자를 개종시키기에 앞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함"을 즉 "그들을 돕는 것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거룩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 겸손하며 성령의 인도 받아야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실패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사람의 지시가 아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치유자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 후에는 레이먼드 최 박사가 치과치료에 관해, 스캇 리 박사가 단기 선교에 관해, 미전도 종족에 마실 물을 공급해 주며, 복음을 전하는 물한그릇선교회의 권종승 목사가 물에 관해, 박준범 선교사가 무슬림에 관해, 안신기 박사가 교육에 관해 워크숍을 진행했고 이 외에도 의료 전문인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Student Track을 이끌었다.

의료선교대회가 진행된 이틀 동안 나성영락교회 체육관과 교회 야외에 SEED선교회(Serving Local Churches, Equipping Missionaries, Evangelizing Nations, Discipling Nations, '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를 양성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현지지도자를 양성하다'의 약자), 지역사회 보건선교를 전략으로 세운 의료대사선교회(Medical Ambassadors International), 우즈베키스탄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새소망재활재단(New Hope Rehabilitation Foundation), 우물을 통해 미전도종족을 선교하는 물한그릇선교회,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고엽제 피해자 치료를 돕는 롱안세계로 병원, 헤브론캄보디아의료선교병원,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선교, 구제, 의료, 교육사역을 펼치고 있는 만나선교회(MannaUSA) 등 50개 선교단체가 부스를 설치해 사역을 홍보하며 동역의 기회를 제공했다.

기독일보 주디한 ja@christianitydaily.com

로잔 비즈니스선교 글로벌 콩그레스

Global Congress on Business as Mission / 태국 치앙마이, 2013년 4월 25일-28일



로잔 비즈니스선교 글로벌 콩그레스(The Global Congress on Business as Mission)는 전세계 40개국에서 530여명의 BAM(비즈니스선교, Business As Mission)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전례없는 대회였다. 함께 모여 네트워킹을 하고 베테랑 BAM 리더와 연구자들의 발표를 듣고, 주제별 세션과 그룹토의, 패널토의, 질의응답 등과 함께 수많은 사례와 간증을 접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4/25/2013 (THU)



매츠 튜헤그 Mats Tunehag
"BAM 비즈니스선교운동 (BAM The Movement)"

매츠 튜헤그는 로잔운동과 WEA(세계복음주의연합)에서 비즈니스선교분과 중책을 맡고 있으며 비즈니스선교에 대한 강사와 저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로잔 비즈니스선교 싱크탱크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역했다.

4/26/2013 (FRI)



데니스 통고이 Dennis Tongoi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본 비즈니스선교 (BAM: A Perspective from Africa)"

나이로비의 CMS(Church Mission Society) 아프리카의 실행디렉터인 데니스 통고이는 20년간 케냐에서 네비게이터 사역을 하였고 이후 CFJS(Christians for a Just Society Kenya), 평화선교연합, FARST의 창립 의장으로 있었다. 탁월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드와이트 노드스트롬 Dwight Nordstrom
"중국의 혁신적 비즈니스 이야기 (Transformational Business Stories: China)"

웨스턴 컴퍼니의 중국/아시아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드와이트 노드스트롬은 Hughes Tools Company, GE, Three-Five Systems, Pacific Resources International 등에서 근무하였고 텍사스 크리스천대학(B.A.), 플레처 법대, 휴스턴대학(M.B.A.)에서 수학했다.

- [이슈나눔] **비즈니스선교와 교회개척 (BAM and Church Planting)**
- [이슈나눔] **효과를 측정하기 (Measuring Impact)**
- [이슈나눔] **가까운 곳에서의 비즈니스선교 (BAM in Near Places)**
- [이슈나눔] **발굴, 훈련, 개발 (Recruiting, Training & Development)**
- [이슈나눔] **적대적 환경에서의 비즈니스선교 (BAM in Hostile Environment)**
- [이슈나눔] **비즈니스선교의 성경적 기초 (Biblical Foundations for BAM)**

4/27/2013 (SAT)



마크 옥스브로우 Mark Oxbrow
"경건회 (Devotional)"

Faith2Share 네트워크의 국제 코디네이터인 마크 옥스브로우 목사는 CMS(Church Mission Society)의 부 사무총장으로 20년간 사역하면서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의 교회들과 선교적 관계를 쌓아 가는 일을 했었다.



스티브 런들 Steve Rundle
"비즈니스선교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Maximizing the Impact of BAM)"

크로웰비즈니스스쿨의 경제학 교수이며 바이올라대학의 비즈니스와 신앙 융합센터의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스티브 런들 박사는 <대사명 회사: 비즈니스선교의 부상>을 공저했으며 <플랫월드의 경제 정의: 세계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편집자다.



미셸 맥도날드 프라이드 Michelle McDonald Pride
"비즈니스, 정의, 인권 (Business, Justice & Human Dignity)"

Transformational Ventures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선교 사역을 개발하고 연계하고 있는 미셸 맥도날드 프라이드는 윗튼대학에서 신학과 기독교교육을 전공했고 지난 5년간 난민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천을 재활용하는 사업등을 비롯하여 3개의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호아오 모르도모 Joao Mordomo
"비즈니스와 대사명 (Business and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기업가로 불리는 호아오 모르도모는 20년간 목회와 교회개척과 세계적인 선교운동단체들을 창설하고 운영해 왔다. 크로스오버-브라질(CCI-Brasil)의 회장이며 크로스오버의 국제리더십팀의 부 회장으로 사역하며 로잔 비즈니스선교 이슈그룹에 속하여 COMIBAM의 BAM 코디네이터로 있다.



매츠 튜해그 Mats Tunehag
"비즈니스와 창조적 케어 (Business and Creation Care)"

매츠 튜해그는 로잔운동과 WEA(세계복음주의연합)에서 비즈니스선교분과 중책을 맡고 있으며 비즈니스선교에 대한 강사와 저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로잔 비즈니스선교 싱크탱크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역했다.

- [이슈나눔] 비즈니스선교의 틀 (BAM in a Box)
- [이슈나눔] 비즈니스선교와 재정후원 (Funding)
- [이슈나눔] 비즈니스선교 변론과 동원 (Advocacy & Mobilization)
- [이슈나눔] 비즈니스를 통한 혁신적 변화 (Transformational Impact through BAM)



샘 조 Sam Cho
"한국의 비즈니스선교 이야기 (Korean BAM Stories)"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선교재정후원과 컨설팅을 위한 실행멤버로 있는 샘 조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교수와 컨설턴트로 사역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비즈니스선교모임의 코디네이터로 사역하고 있다.

4/28/2013 (SUN)



빌 J Bill J
"경건회 : 기초를 세우라 (Devotional : Foundations)"

노스 캐롤리나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신학과를 창설하고 학장으로 있는 빌 J 박사는 교회사와 종교학 교수이며 침례교 목사다.



조 플럼머 Jo Plummer
"비즈니스선교 생태계 (The BAM Ecosystem)"

10여년 넘게 비즈니스선교를 위한 글과 개발사역을 해오고 있는 조 플럼머는 2004년에 www.businessasmission.com을 열었고 BAM e.zine의 편집장으로 있으며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로잔포럼의 비즈니스선교 싱크탱크의 초기 창설자 중 하나로 사역했다.



매츠 튜해그 Mats Tunehag
"미래를 바라보며 (Looking Forward)"

매츠 튜해그는 로잔운동과 WEA(세계복음주의연합)에서 비즈니스선교분과 중책을 맡고 있으며 비즈니스선교에 대한 강사와 저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로잔 비즈니스선교 싱크탱크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역했다.

한국 자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NCOWE VI 기초발제 / 조명순 선교사, 한국형선교개발원장, NCOWE VI 광범위 리서치팀



조명순 선교사
한국형선교개발원장, NCOWE VI 광범위 리서치팀

서문

NCOWE VI의 주제는 ‘한국 자선학과 자선교학’이다. 이러한 주제가 선정된 것은 2000년부터 전략적 관점의 주제를 발표하고 자리매김하게 된 NCOWE가 방향성을 갖고 연관성 있는 주제가 발견되어진 결과로서, 금번 주제는 한국 선교가 진일보하여 세계 선교계에 보다 효과적으로 섬겨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복음을 받은 국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바뀌면서 선교사 파송 2위까지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온 ‘한국’만이 갖는 특별한 환경이 있었다. 이번 주제가 ‘한국’이라는 특별한 환경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정리해야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그 흐름이 25,745명(KWMA, 2014)이 나가서 활동하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재해석되어 그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독특함에 바르게 담겨지는 ‘복음’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설문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한국 자선학과 자선교학의 바른 정립과 방향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과 밑그림을 그려보고, 두드러진 한국 자선학과 자선교학의 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2) 조사 방법

문헌 연구와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들은 지역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 현장 선교사 및 총무급 이상의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로서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3) 조사 대상

유효 표본은 총 106명으로 지역교회 목사 25명 신학교 교수 19명, 현장 선교사 31명, 선교단체 사역자 31명이었다.

4) 조사 기간

2014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문지 배포와 회수, 그리고 분석까지 포함하여 40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5) 조사 내용

한국 자신학, 자선교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어떤 내용이 과연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 한국 선교의 발전을 위한 현상 파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설문의 구성은 객관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묻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6) 조사 결과 기대

설문을 통해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개념 정의와 앞으로 한국 선교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주제가 공론화되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Part I. 한국 자신학(自神學)

1. 문헌 연구

자신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각 나라가 그 처한 환경에서 해석해 내는 ‘그들의 신학’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이 의식하고 해석을 하든 아니든,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선교지에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신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전제에는 많은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안에는 각각 그 나라가 독자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신학이 존재했다.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은 성경에 기초하면서 복음적인 ‘한국 자신학’ 정립이 필요한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학자들이 문헌들을 통해 자신학의 필요성이나 개념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다.

선교학 사전은 아프리카 신학, 유럽 신학, 인도 신학, 일본 신학, 중국 신학, 필리핀 신학, 한국 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남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칼 뮐러, 테오 순더마이어, 2003) 데이비드 보쉬는 서구신학은 오늘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도전 받고 있으며, 제 3세계 신학들, 즉 해방신학, 흑인신학, 상황신학, 민중 신학, 아프리카 신학, 아시아 신학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데이비드 보쉬, 2000). 이러한 주제들이 그 나라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지는 않았다 해도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학 개발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주류로는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된 다양한 이유가 거론되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위 자유주의 진영에서 시도되었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안점식, 2013).

한국 교회에서의 자신학화의 작업은 주로 1960-70년대 이후 감리교신학교대학교 중심으로 토착화 신학과 한국신학대학교 중심의 민중신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주로 자유주의 진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 운동의 진행과 함께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자신학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폴 히버트(Palu Hiebert)는 전통적으로 토착교회 원리로 간주되어 온 3자(三自)에 자신학화(Self-theologizing)를 네 번째 원리로 추가하고 있다. 히버트는 한 교회가 순수하게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자신학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히버트, 1996).

이문장은 한국적 신학과 관련하여 발표한 다양한 글에서 그동안 한국 내에서도 한국적 신학을 시도하였지만 뿌리내리지 못한 것은 종래의 시도된 한국 신학의 틀은 서구의 신학적 의제를 따르거나 반동적 측면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신학은 한국 교회의 정서와 한국인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이문장, 2000).

아시아 선교학자 화융은 기독교의 중심 이동은 비서구 세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서구 교회에 의해 정의된 정체성 대신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비서구 세계교회는 서구 신학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다양한 현장에 있는 아시아 교회들이 그들만의 문화와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깨달은 다음, 그 메시지를 교회가 직면한 영적, 육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화융, 2006).

변진석은 자신학화와 관련된 본인의 박사 논문에서 자신학화는 토착화나 상황화 만큼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선교학자들(Hibert 1985; Bosch 1991; Tienou 1993; Nunez 1996; Hwa 1997; Moon-Jang Lee 2004; Newberry 2005; Netland 2006; Tennent 2007)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개념은 '토착적 교회'에 대한 확장된 토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적 선교의 근본적인 목표라고 말한다. 그는 히버트가 강조하는 초문화 신학(metatheology)을 추구해야 하는 3 가지 이유를 거론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학을 형성해야 함을 지적한다.(변진석, 2014)

히버트(Hiebert)에 의하면 우리가 메타 신학을 추구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1) 신자들의 세계적인 친교를 형성하기 위해서, 2)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한 교회의 선교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3) 우리가 우리들의 신학을 무비판적으로 상황화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해.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 '자신의 신학'을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 문맥의 특별한 상황 내에서 그들의 선교에 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위해 자신학화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점식은 자신학화는 신학의 상황화(contextualization of theology)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학을 논의한다면 상황화의 연장선에서 고민하고 논의할 것을 강조한다. 이미 그의 다양한 글과 책에서 복음과 문화, 세계관과 연결하되,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자신학을 연구하는 것도 복음을 더욱 잘 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 한국 자신학 관련 설문 분석

자신학과 관련된 설문은 이것을 통해 한국 선교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 파악과 무엇을 자신학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초적인 설문이 작성되었다. 조사 항목은 자신학 개념 인지 정도, 자신학 개념에 대한 의견, 자신학 정립 필요성, 한국 교회사 속의 자신학 모델 여부, 한국 자신학으로서의 특유 콘텐츠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자신학 콘텐츠가 없다면 그 이유 등이다.

1) 한국 자신학에 대한 인지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신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는데, 다른 그룹에 비해 현장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꽤 나타났다. 년차가 낮을수록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국내사역자(지역교회 목사, 신학교, 선교단체)는 90% 이상으로 인지 비율이 나타났고, 현장 선교사들은 인지 비율이 70% 정도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들어 본 적 없다	들어 본 적 있다	약간 알고 있다	잘 이해하고 있다
지역교회목사	8.0	44.0	32.8	16.0
선교학교수	5.3	10.5	15.8	68.4
단체사역자	3.2	32.3	32.3	32.3
현장선교사	25.8	41.9	19.4	9.7

(표 1: 자신학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표/ 단위 %)

자신학 개념에 대해 '알거나 들어 본 적 있는' 인지 응답이 87% 이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들어 본 적 없다'는 11% 정도로 나타나서 대부분 자신학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응답 내용	응답비율(%)	
잘 이해하고 있다	28.3	87.8
약간 알고 있다	25.5	
들어본 적 있다	34.0	
들어본 적 없다	11.3	11.3

(무응답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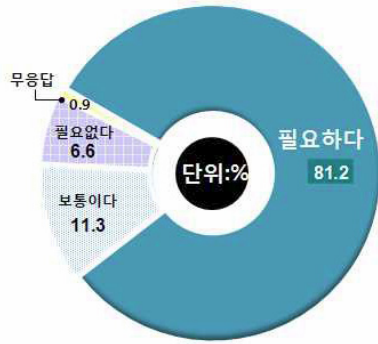
2) 한국 선교의 발전을 위한 한국 자신학의 정립의 필요성

설문에 응한 그룹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혀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2.8	3.8	11.3	30.2	51.0
지역교회목사	0	0	12.0	32.0	56.9
신학교교수	0	0	15.8	21.1	63.2
단체사역자	3.2	0.6	5	38.7	51.6
현장선교사	6.5	12.9	12.9	25.8	38.7

(표 2: 자신학 정립 필요성에 대한 응답, 단위 %)

한국 선교의 발전을 위해 자신학 정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필요 없다'에 대한 응답은 6.6% 정도로 나타났는데, 국내 사역자(지역교회 목사, 신학교, 선교단체)의 필요 비율은 84-90%로서 높게 나왔지만, 현장 선교사들의 응답은 65% 정도로 다소 낮게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학 정립의 필요성(2)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 내용	응답비율(%)
매우 필요하다	51.0 81.2
대체로 필요하다	30.2
보통이다	11.3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3.8 6.6
전혀 필요없다	2.8

(무응답 : 0.9%) 5점척도 평균 4.24점

도표 2: 자신학 정립의 필요성

3) 인식하고 있는 자신학 개념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120여개의 '자신학'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서술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나 개념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학에 포함된 단어들	빈도수
성경, 복음, 본질, 성경해석	60
한국, 우리들	45
문화, 역사, 사회	39
신학작업, 신학화, 신학정립, 신학체제	32
상황화, 토착화	14
적용	8
구별, 특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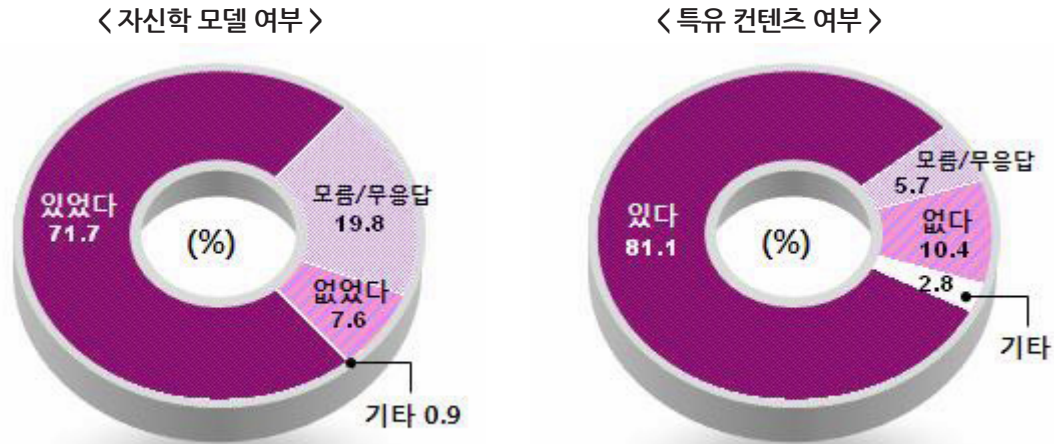
개념에 대한 응답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확한 정의'와 포함되는 내용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는 불필요의 견해도 언급하였고, 서양적인 것의 무조건적인 배제, 한국적인 것만으로 자신학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술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자신학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해석되어지는, 또는 해석할 수 있는 한국 또는 한국인의 환경(문화, 역사, 사회 등)에서 나타나는 독특함(구별됨)을 신학화 과정을 통해서 자리매

김하는 것'으로 작업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 글에서도 이러한 작업 정의를 기반으로 자신학을 다루고 있다.

4) 한국 자신학이 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한국 자신학에 들어 갈 수 있는 한국 특유의 내용(contents)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질문은 앞으로 한국 자신학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 대부분이 한국 교회사 속에 이미 우리의 자신학 모델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만의 독특한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도표 3참조)



(도표 3 : 자신학 모델 여부 와 한국 특유의 콘텐츠 여부)

새벽기도, 심방, 효 사상, 삼자원리, 성경공부, 가난극복, 성령사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에는 고난, 한 등이 거론되었다.

(중복응답)	새벽기도	심방	효 사상	삼자원리	성경공부	가난극복
전체	73.3	55.8	53.5	25.6	20.9	20.9
지역교회목사	72.7	50.0	50.0	27.3	9.1	4.5
신학교교수	46.7	60.0	53.3	40.0	26.7	40.0
단체사역자	72.7	68.2	45.5	18.2	13.6	22.7
현장선교사	88.9	48.1	63.0	22.2	33.3	22.2

(표 3 : 자신학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내용/단위 %)

눈여겨 볼 사항은 지역교회 목회자 그룹, 신학교 교수, 단체 리더, 현장 선교사가 응답한 내용의 순위가 조금씩 다른 점이다. 목회자들은 새벽기도, 심방, 효사상, 삼자원리의 순으로 신학교 교수들은 심방, 효 사상, 새벽기도, 삼자원리와 가난 극복, 선교단체 사역자들은 새벽기도, 심방, 효사상, 가난극복, 현장 선교사는 새벽기도, 효사상, 심방, 삼자원리의 순으로 거론하였다. 목회자, 선교사(단체 사역자, 현장 선교사)들이 새벽기도를 분명한 한국 자신학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신학교 교수 그룹은 오히려 심방을 더 한국 자신학의 내용으로 뽑은 것이 흥미롭다.

(1)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매우 독특한 한국적 기도운동이나 '한국적 기도 신학'의 매우 중요한 근간을 갖고 있다(NCOWE V 광범위 리서치팀, 2010). 새벽 기도회는 한국적 문화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독특한 집회 형태와 신앙 형태를 담은 것이기에 서양은 물론 다른 기독교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안사무엘, 2012). 서정민은 서구 가톨릭이나 성공회, 수도원의 전통 속에서도 '아침 기도회' 등이 있으나 그 시간과 예배 구조 등에서 한국의 새벽기도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서정민, 2003). 보수계 신학자 박아론은 '새벽기도의 신학'을 주창하였으며 한국 교회 새벽기도회가 지

닌 신앙의 요소를 '신비(mystery), '고요'(tranquility), '생기'(vitality) 로 규정하고 이 세 가지 요소는 한국 기독교인의 개인적 신앙 훈련이나 교회 성장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제시하였다(박아론, 1974). 유교, 불교, 도교 및 무속 신앙 등 한국 토착 종교 안에 이미 새벽이 갖는 의미가 있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한국 특유의 기도 시간, 형태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미 백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새벽기도 신학'은 한국 자신학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방

교수 그룹이 가장 많이 거론한 심방에 대한 연구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매년 연례행사로 심방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가 심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은 '심방 목회'를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교회사적으로 특수심방-환자 심방과 죄수심방을 정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의 심방은 이 두 영역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이며 정기적인 주요 사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3) 효(孝)

효는 한국 특유의 독특한 문화이다. 한국에 뿌려진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한국 토양 속에 뿌리내릴 때 그 땅의 문화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효는 한국의 오래된 중요한 전통이면서도 중요한 가치이다. 효 문화의 토착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고 연구자들이 있어 '효(孝) 신학'이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자신학의 변두리에 있는 것처럼 '효(孝) 신학'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효(孝)가 유교적 가치라고 해도 성경적 가치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충분히 한국 특유의 신학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제이다(안점식:2013).

3. 어떻게 한국 자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교회사 속에서 한국 자신학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이 거론 된 것이 민중신학이었다. 그 외 새벽기도, 효 신학, 한의 신학, 구역예배, 영산신학, 삼박자 신학, 풍류신학, 사경회 등이 거론되었다. 민중 신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민중 신학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특유의 독특함이 내재된 주제들이 '한국 자신학'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선교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보다 더 깊은 의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학과 자선교학은 같은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다.

(1) 한국 자신학 정립을 위한 방향성

안점식은 자신학을 신학의 상황화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상황화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상황화가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면 문화의 세 가지 층인 행동, 가치, 세계관의 차원과 관련해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2010년 NCOWE V에서 한국형, 한국적 선교의 방향을 성경적이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 그리고 종합화하자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설문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자신학의 개념을 종합하여 '한국 자신학' 정립과 방향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

① '한국, 또는 한국인의 환경'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으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 속에 접목된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다(서정민, 2006). 개신교 토착화 신학자는 평가가 나뉘는 최병헌의 유교적 기독교, 한 명의 학자가 주장하여 실용적 전개나 기독교계에 수용되

지 못하고 '신학자의 담론'으로 국한된 1960년대의 윤성범의 誠의 신학, 유동식의 풍류신학을 중심으로 한 토착화 신학에 대한 노력도 이러한 한국의 환경에 접목된 기독교를 나름대로 신학적 명제를 갖고 발전시켜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성범은 '기독교와 한국사상'(1964년), 유동식은 '한국 종교와 기독교'라는 논문집을 내어 한국 토착화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한다(서정민, 2006). 한국 자신학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한국의 독특한 환경과 연결된 연구가 이른바 보수진영에서도 심도있게 시도하는 것이 '자기 성찰'에 해당되는 작업이 될 것이다.

㉔ 복음을 수용하고 난 이후의 한국 교회사 속에 나타난 '내용(contents)'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동반한다. 세계 선교가 한국이라는 토양에 심어주고 성장 발전시킨 것들을 성경적 가치와 신학적 관점에서의 재조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한국 자신학'의 주제들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이 자신학의 주제로서 지적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가난 극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이라는 고난을 통과하여 축복(Blessing)의 통로가 되어 최대 빈민국에서 어떻게 '선교하는 국가'로서 복음과 물질을 나누게 되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난 극복'이라는 주제를 '한국 자신학'으로서 연구해 가는 과정은 충분히 한국 선교계가 세계 선교계에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무엇을 한국 자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 자신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당연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문제점이나 위기를 거론하였는데, 이 주제는 NCOWE V에서 '위기와 변혁의 모델 나누기'로서의 한국 경험 나누기'와 연결성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만한 주제로서 제시해 본다.

1) 한국 자신학으로서의 '위기 속의 변혁 신학'

'위기 속의 변혁 신학'이 한국 자신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93명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공통적으로 '위기 속의 변혁신학'을 한국 자신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환점이 된 국가 위기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교회의 반응과 변혁을 분석하는 것, 위기와 고난 앞에서의 한국적 영성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 사회, 전통 신앙, 문화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장의 근간이 되었던 '영적 자산'들에 대한 재조명이 선행적으로 연구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위기와 변혁'이라는 주제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질문으로, '한국 교회의 신자수가 정체된 이유'를 응답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46.2%)는 지적이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두 번째가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24.5%)로 이어진다. 기타 응답 가운데 높게 나타난 의견은 복음의 본질 상실, 말씀 부족 등이 제시되었다.

필자는 한국 자신학의 내용들이 '한국, 한국인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위기'는 한 민족의 중요한 코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5000년 역사 속에서 한국은 1000여회의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다(백석기, 2007). 복음이 전래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국가적 위기를 겪은 나라이다. 이러한 위기를 통과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되었다면 '위기를 통과한 경험'은 한국 자신학의 주제로서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위기가 갖고 있는 속

응답내용 (중복응답)	비율(%)
교회가 시대적 변화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	46.2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24.5
말씀에 대한 한국적 해석이 없었다	9.4
기타	43.4
무응답	1.9

성은 '어떤 단절'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단절은 새로운 것으로의 전환이며 또 다른 의미로서는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칼바르트가 처음으로 소개한 '위기의 신학'도 혼란스러웠던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 전통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새로운 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것이다(데이비드 보쉬, 2000).

① 성경에 나타난 위기

성경에서도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에서 인간을 통해 일하셨고, 위기의 상황을 선한 목적으로 이루셨으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다. 따라서 인간의 위기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다.(박준서, 1998) 성경에도 수많은 위기가 개인에게, 이스라엘 국가 전체에 있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종래에는 축복으로 그리고 변혁을 이루어 가는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창세기의 요셉의 고난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다. 출애굽의 전체적인 흐름도 위기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이스라엘의 견고한 신앙 확립이라는 축복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기이며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지만 종래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 그 위대한 순종은 부활의 축복을 인류에게 주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었다.

신약 시대의 초대 교회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행8:1)은 예루살렘 교회가 뿌리채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였지만, 흩어짐으로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시작점이 되었다. 역설적이지만 '교회의 위기'는 축복(Good News)을 나누어 주게 되고, 복음의 들어가는 곳의 변혁을 가져오는데 까지 이어진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속에서도 많은 위기가 있었다. 생명의 위협이라는 위기를 수십 번 만났던 고백이 바울 사도의 간증에서 나온다. 선교 여행이 막힌 것 같은 위기 상황(행16:7)에서 마케도니아가 열림으로서 유럽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결국 위기는 또 다른 '복의 나눔'을 가능케 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을 받은 사람, 또는 지역에 '변혁'이 일어나는데 까지 이어지게 된다.

② 한국 역사에 나타난 위기

NCOWE V는 한국 선교 전래 125년에 나타난 한국 선교의 특징들을 찾아내고 한국형 선교로서 모델화 될 수 있는 것을 5개로 압축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의 흐름을 '위기와 변혁의 모델로서 경험나누기'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다.(NCOWE V 광범위 리서치팀, 2010)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식민지, 민족 간의 전쟁, 그리고 가난, 민주화를 위한 투쟁, 국가 부도와 맞먹는 재정 위기가 이어진 지난 130년 동안 교회는 굳건하게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성장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혁을 보이는 듯 아닌 듯 이끌어 온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많은 사례들을 역사 속에서 뽑아낼 수 있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이끌어 온 '영웅'같은 주인공들이 현존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개인에게 찾아 온 고난, 공동체에 임한 고난을 슬기롭게 인내하면서 말씀으로 극복하여 민족에게 비전을 심어 준 130년간의 영적 선배들의 족적 속에서도 한국 신학으로서의 '위기 속의 변혁 신학'을 찾아 낼 수 있다.

③ 변혁의 단초로서의 위기

식민지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민족 복음화를 꿈꾸게 한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제, 고난을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 축복으로 바꾸어 간 조용기 목사, 개인의 삶의 패턴 변화를 바꾸어 가난을 극복하면서 사회 변혁까지 이끌어 낸 가나안 농군학교, 민족의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를 향해 도전한 김준곤 목사, 이미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지만 받은

복음을 들고 나간 산동성 선교 등 한국 교회는 고난으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도 고난을 뛰어 넘어 개인적 변혁, 사회의 변혁을 추구해 온 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교회성장 학자 맥가브란이 제시한 교회 성장의 수용성 원리는 사회적으로 혼란기, 격변기에 가치관이 흔들리고 민심이 동요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수용성 원리는 한국의 교회의 상황에도 유효한 것 같다. 개신교가 한반도에 들어온 이후 한국 사회가 처한 역사적 상황은 사회적 불안, 생존의 위기, 정치적 좌절, 경제적 시련, 가치관의 혼미 등 위기 상황의 연속이었다. 한국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백종구, 2003). 이러한 성장은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선교를 통해, 선교사들을 파송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 복을 나누어 주는데 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위기 속의 변혁 신학'은 한국 자신학의 큰 주제로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한국 교회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 소망, 긍정적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완만하게 성장해 왔다. 한국교회 성장과 신앙 양태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24.9%가 교회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한다(김중기 외, 1982).

위기는 안정되지 않은 상황(unstable condition)을 의미한다. 지난 한국 교회사에서 위기가 주로 교회의 외부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위기였고, 그것을 잘 극복해 왔다면, 압축 성장으로 집약되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교회는 내부적 위기를 더 실감하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졌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은 수위가 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강한 공격을 받고 있다. 거기에 교인들 간의 법적 싸움, 부도덕한 목회자들의 고발 사건, 사회를 향한 영향력 상실, 전도가 안되는 상황, 이단들의 난립, 줄어드는 주일학교, 교인수 등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는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가장 큰 위기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과거처럼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정치와 경제적 여건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이원규, 1992).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unstable condition)이 지속된다해도 미래 지향적으로 한국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면서, '선교'를 통한 복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위기 속의 변혁 신학'을 한국 자신학으로 정립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

5. 소결

자신학이 주어진 환경(국가의 문화, 사회를 포함한 전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것이 성경의 말씀으로 조명되는 것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이래 여전히 위기와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선교에 열정을 갖고 달려 온 특별히 지난 30년의 열매는 일종의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위기 속에서 성장한 한국 교회가 '선교'를 통해 복을 나누는, 축복의 국가가 되었다. 한국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비서구권 국가들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식민지를 경험하였고, 가난을 경험하고 있고, 같은 국가 안에서 종족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에게 좋은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한국교회가 달려온 130년 속에 세계 선교계에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한국 자신학으로 '위기 속의 변혁'이라는 주제가 금번 NCOWE VI를 통해 제시되고 확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Part II. 한국 자선교학(自宣敎學)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선교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양적 성장에 따른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었다. NCOWE는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한국 선교사 전략회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전략적 선교라는 관점에서 자선교학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 세계 선교의 중심이 2/3세계로 이동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한국 선교에 요구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서구적 선교 모델을 탈피한 2/3세계 선교를 위한 비서구적이면서도 성경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안점식, 2007). 이 주제는 2010년 NCOWE V가 다룬 한국선교모델 만들기를 통해 한국 선교계에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 되었다. 금번 주제인 '한국 자선교학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춘 주제이다. 세계선교 동향 역시 '자선교학'의 필요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문헌 연구

1999년 WEA 복음주의 선교학 세계회의 이과수 모임의 목적은 1)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세계선교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함께 숙고한다 2) 특별히 1974년 로잔이후 20세기 복음주의 선교학과 선교적 실천의 여러 흐름들을 재검토 한다 3)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진정한 성경적 선교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계속한다로 발표되었다(조동진, 2007). 안점식은 특별히 세 번째의 목적을 주목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선교학'이라는 표현은 비서구적 신학과 선교학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안점식, 2014)

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는 이과수 대회 결산 논문집(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을 통해 토착화의 원리로서 삼자(三自)의 개념에 두 가지를 더해서 자신학화(self-theologizing)와 자선교학화(self-missilogizing)를 언급하였다. 이 두 가지 자립의 원리는 신학적, 선교학적 범주들과 방법론에서 기존에 정립된 이론들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 하였다(테일러, 2000).

이태웅 박사는 한국 자선교학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 하면서, 한국 자선교학의 정립은 한국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을 피력하고 있다(이태웅, 2004).

선교적 교회론이 정립되었을 때 교회는 있는 곳에서 선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목회자는 선교사로 불려지지 않지만 선교사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 밖의 문화를 선교적인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선교사가 현지에 가서 문화인류학적인 고찰과 타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등 선교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사역을 하듯이 이제는 지역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방법론을 채택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북한 선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문화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적인 목회적 방법론으로는 부족할 것이면 선교학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교신학이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선교신학이 정립되고 선교에 임할 때 그만큼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될 것이다.

2005년에 36명의 선교사, 선교단체 대표, 목회자, 신학교수가 모였던 설악 포럼에서도 자선교학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제 1회 설악포럼 자료집에 명시된 결의문을 보면 비서구 선교 신학의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선교가 세계 교회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갖는 선교가 되고 그 과정과 결과가 2/3세계 선교 운동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 한국 선교의 국제화, 자문화중심주의의 극복, 국제 지도력의 개발, 비서구 선교신학의 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서구 선교신학의 하나인 한국 선교신학 개발을 위해 선행적으로 한국 선교사들이 누구인지를 연구한 발제문들이 발표되었다.

2010년에 NCOWE V에서 한국적 또는 한국형 선교학의 필요성이 설명되었다. 김상근의 '한국은 더 이상 유럽과 미국 교회의 신학을 제 3 세계에 소개하는 신학적 중간 거래상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지적, 이문장의 '외래 신학으로서 서구 신학이 장기간 유입됨에 따라 자체 신학이 미흡'하다는 지적, 안점식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사역 돌파를 하였음에도 학문적 지원을 받지 못해 확산 부족'이라는 지적은 한국 자선교학의 정립의 시급성을 말해 준다. 한국 선교가 25,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선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자선교학'의 정립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2012년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관하고 복음주의선교신학회와 한국선교신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자선교신학으로 한국선교신학이란 무엇인가?'로 열렸다. 김영동은 '한국선교신학의 회고'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선교신학의 개발 사례를 4가지를 들면서, 한국 선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의 진리를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의 존재와 경험 현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가 지적한 한국 선교신학의 4가지 개발 사례로 이문장, 조명순, 박영환, 김중성의 주장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한국 선교 신학은 보편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서구적인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선교 현지의 문화적 상황(context)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한국적 특성을 살리는 선교신학의 모색을 제기하였다(2012, 김영동).

이문장은 성경 해석의 세 지평(과거, 현재, 하나님의 세계인 영적 지평)을 고려하면서 한국적 성경읽기를 통해 한국적 선교 신학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는 '복음과 한국 문화의 교섭을 통해 형성되어진 한국적 신학과 그 경험을 나누는 차원의 사역'이 한국적 선교라고 정의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고 체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현한 영적 고수들이 등장하여 한국 백성들의 정신 세계를 주도하게 될 때 참된 한국적 선교의 시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2005, 이문장) 또한 한국적 선교신학의 배경과 필요성을 선교 대상 및 선교지 현실의 변화, 선교사의 변화, 시대적 상황과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필자는 한국 선교의 경험을 살려서 서구형의 약점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지형 선교 모델이 창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형 선교(Korean Aspect Mission)는 '한국인의 기질, 문화 배경을 가진 한국인 선교사들 안에서 나타나는 선교적 특징'으로 작업 정의를 내리고, 한국형 선교 모델의 주요 원천을 한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에 두고 있다 (2010, 조명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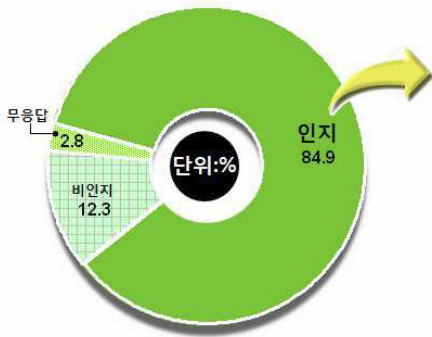
한국은 한국 특유의 문화를 갖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자라 한국인의 기질과 문화가 몸에 배어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즉 한국이라는 '그릇'에 담긴 복음에 반응하여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서 전하는 것은 '말씀'이지만 한국 선교사들만 갖는 특별함과 공통적인 형태들이 있다. 이것이 자신학과 관련성을 갖고 '한국 자선교학'으로 정리된다면 한국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보다 심도있는 사역의 영향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자선교학'의 개념 정립과 또 내용 발굴, 방향성 제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한국 자선교학을 고민하고 정립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면서도 동시에 한국 선교계에 요구되는 '성숙된 한국 선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교적 작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2. 한국 자선교학과 관련된 설문 분석

자선교학과 관련된 설문은 이것을 통해 자선교학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 파악과 무엇을 자신학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기초적인 설문이 작성되었다. 응답자 가운데는 자신학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졌어도 자선교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조사 항목은 자선교학 개념 인지 정도, 자선교학 개념에 대한 의견, 자선교학 정립의 필요성, 한국 자선교학으로서의 특유의 콘텐츠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자선교학 콘텐츠가 없다면 그 이유 무엇인가 등이다.

1) 한국 자선교학에 대한 인지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학에 대해서는 들어보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해하는 정도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인지도가 84.9%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 내용	응답비율(%)
잘 이해하고 있다	19.8 84.9
약간 알고 있다	28.3
들어본 적 있다	36.8
들어본 적 없다	12.3 12.3

(무응답 : 2.8%)

(도표 4: 한국 자선교학에 대한 인지도)

	들어 본 적 없다	들어 본 적이 있다	약간 알고 있다	잘 이해하고 있다	무응답
전체	12.3	36.8	28.3	19.8	2.8
목사	8.0	44.0	48.0	0	0
교수	5.3	15.8	10.5	68.4	0
단체사역자	3.2	41.9	29.0	19.4	6.5
현장선교사	29.0	38.7	22.6	6.5	3.2

(표 4 : 자선교학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표/ 단위 %)

2) 선교 현장 관점에서 한국 자선교학의 정립의 필요성

상대적으로 선교사 그룹이 평균보다 낮게 나왔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을 자선교학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필요없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무응답
전체	2.8	5.7	7.5	35.8	42.5	5.7
목사	0	0	12.0	36.0	52.0	0.0
신학교교수	0	0	5.3	36.8	57.9	0.0
단체사역자	0	3.2	3.2	51.6	35.5	6.5
현장선교사	9.7	16.1	9.7	19.4	32.3	12.9

(표 5: 자선교학 정립의 필요성, 단위 %)

개체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교회 목사, 신학교 교수, 선교단체 리더 그룹들의 자선교학 필요성 비율이 87-94% 정도인 것에 비해 현장 선교사들은 51.6% 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응답 내용	응답비율(%)
매우 필요하다	42.5 78.3
대체로 필요하다	35.8
보통이다	7.5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5.7 8.5
전혀 필요없다	2.8

(무응답 : 5.7%) 5점척도 평균 4.16점

(도표 6: 자선교학 정립의 필요성 비율, 단위 %)

3) 인식하고 있는 자선교학 개념

자선교학 개념은 응답자 모두가 다 다르게 정리하였는데, 그 만큼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나 개념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선교학에 개념에 포함된 단어들	빈도수
한국, 한국적, 한국 선교사	45
적용	29
체계화, 학	28
성경, 복음, 복음 재해석	18
독특함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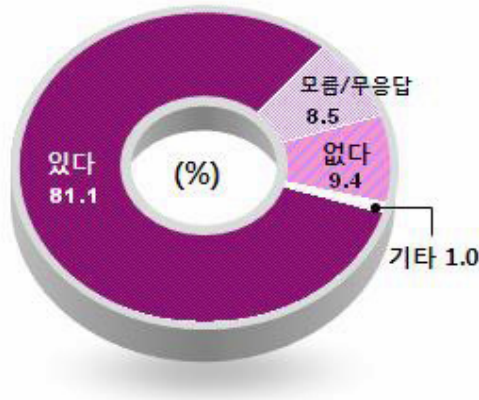
개념에 대한 응답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확한 정의'와 포함되는 내용들을 선교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서술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자선교학을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한 한국 선교사들이 갖는 독특함을 현지에서의 적용을 위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학문화하는 것'으로 자선교학의 작업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한국 자선교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한국 특유의 내용 가운데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에 빈도수가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자선교학'의 중심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0년 NCOWE V가 제시한 역사 속에서 찾아 낸 모델들과 전략은 한국 자선교학 정립과 방향성에 좋은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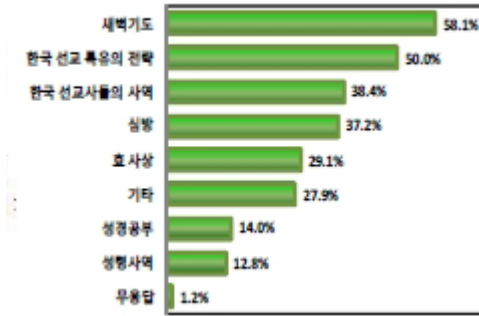
3. 역사 속에 나타난 한국 자선교학 주제

81%의 응답자가 한국 자선교학에 포함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내용들이 있다고 하였다. 전체 평균에 비해 교수와 현장 선교사 그룹이 평균보다 낮게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내용들이 있음으로 공감하고 있다. 어떤 것이 한국 특유의 자선교학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복수 선택에서 새벽 기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 그리고 심방, 호, 성경 공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유 콘텐츠 여부〉



〈자선교학 포함 가능 한국 특유 콘텐츠 내용(Base=86명)〉



(도표 7: 자선교학 특유 콘텐츠 유무)

(도표 8: 자선교학 포함 가능 콘텐츠 단위 % / 중복응답)

4. 개발해 나가야 할 한국 자선교학의 주요 주제들

자선교학은 복음을 소화한 '그 민족'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이나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서구적 선교학은 기본적으로 서구적 시각에 의해서 서구 선교사들의 체질에 맞게 형성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서구 선교사들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형성된 것이다(데이비드 보쉬, 2000). NCOWE V는 한국이 배우고 한국 나름대로 정리된 전략들을 이미 발표하였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정리된 한국적 전략이라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압축 성장으로 표현되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분석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더불어 한국 선교사들이 급속히 나가기 시작한 한국 사회의 30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평가를 하는 것도 한국 자선교학 정립에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한국 자선교학은 은혜로 성장한 한국 선교계가 서둘러 정리해 나가야 하는 작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수아는 한국 자선교학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들을 7가지 즉, 한국선교 영웅에 대한 연구,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교회 성장 및 교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리, 현장에서의 한국 선교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 교회의 선교적 은사에 대한 신학적 연구, 전후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에 대한 제도적이고 상황적인 연구, 한국 선교의 미래에 대한 연구로 제시하였다 (한수아, 2014).

한국 자선교학에 포함 가능한 특유의 콘텐츠에 새벽기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것은 한국 자신학의 내용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한다. 두 번째로 많이 높게 나온 '한국 선교 특유의 전략(50%)'과 '한국 선교사들의 사역(38.4%)'을 고려하여 '한국 자선교학의 하나로 담아 낼 수 있는 주제(Theme)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본다.

1) 한국 선교사 특유의 '한국형 교회개혁'

교회 개혁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선교 전략을 포함한 모든 노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일 것이다. 그래서 국적 불문하고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현지인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별히 교회 개혁은 한국선교사들의 가장 특징적이며 두드러진 사역 중의 하나이다(조명순, 2014). 설문에 응답한 현장 선교사들에게 본인의 주 사역을 우선순위별로 3개를 적어달라는 질문에서 나타난 결과는 교회개혁, 제자훈련, 신학교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KWMA가 조사하는 한국 선교사 통계 조사 역시,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역에는 교회개혁, 제자훈련, 신학교 사역이 상위에 있다. 목회자 배경의 선교사들이 많은 것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목회자 배경을 가진 선교사들이 많은 것과 목회자 배경 선교사들의 사역을 한국 자선교학의 하나의 주제로서 잡을 수 있다. 특히 선교지의 교회 개혁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학(學) 또는 론(論)'으로 정립된다면 많은 통찰력을 줄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자선교학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 개혁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시형, 건물 중심, 숫자 중심 등 외형적인 것에 집중한 약점이나 비난이 많다. 한국의 압축 성장과 함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성장 논리'에 빠진 것에 대한 날카로운 자성적 목소리일 것이다. '성장'을 경험하고 나간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현장에서도 시도했던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비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 개혁은 놀라운 열매로 이어진 것이 많다. 한국 선교사들의 '저돌적인 교회 개혁'은 실패도 많을 수 있지만 열매가 큰 것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교회개혁 방법, 과정, 그리고 열매는 충분히 '이론'화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있다.

2) 한국 선교사 특유의 '한국형 리더십'

한수아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 선교 영웅들을 생각해 본다. 한국적 선교가 몸에 밴 한국 선교사들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한다. 사례를 많이 모아 갈 때 이것은 가능할 것이다. 한국형선교개발원이 한국 선교사들의 좋고 나쁜 사례들을 찾아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은 '1인 체제'에 강하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을 지적한다(홍영기, 2001).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만, 대형교회라고 명명되는 교회들을 보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가 중앙에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1인의 리더십으로 사역하면서 다중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도 이러한 본국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모습이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정립하여 오히려 건강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국형 리더십 자선교학'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카리스마 성향의 리더십의 영향으로 양적 성장을 한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수가 많은 것이 전부라 아니라 성숙도나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양적 팽창이 마치 한국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한 원인처럼 여긴다. 부분적

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이 많아서 한국교회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보다는 양적 성장과 함께 이 현상을 뒷받침하고 해석하면서 교정해 나갈 준비, 즉 자선교학이 정립되지 않은 결과라고 본다. 대형 교회만 문제가 많고 소형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중앙에 있는 '리더=사람'이 더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선교 현장에서 입지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 그들 안에 카리스마적 성향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필자의 선교지인 일본에서 '사역을 크게'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래서 문제도 발생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비판만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비판과 함께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선교학 주제로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더 발전적일 것이다.

한국형 리더십이 학적으로 정리된다면 한국형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선교 현장과 한국형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가 어려운 선교 현장에 대한 차별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선교현장을 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서 한국 선교사의 적합한 역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조명순, 2011).

3) 한국의 자생 파송 선교단체와 사역

이문장은 토종(indigenous/national) 선교단체들이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소속된 선교사들이나 선교에 대한 개념, 선교의 조직 및 선교 방식에 있어서 서구식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않다고 지적한다(이문장, 2004). 그럼에도 한국 자생적인 파송선교단체 안에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들이 존재한다. 매뉴얼이 없어도 영성으로 풀어나가는 보이지 않은 구심력, 믿음이 강조되는 무모함 등이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은혜'로 풀어나가는 등 한국 자생 단체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한국의 자생 파송 단체는 바울선교회, 온누리 팀선교회, 인터콥, GP, GO, MVP 등을 뽑을 수 있다. 자생적인 토종 선교단체들의 역사와 성장은 대부분 압축으로 성장해 온 30년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 토종 단체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며, 거기서 한국 특유의 자선교학이 발견되어지고 정립될 수 있다. 이 주제가 중요한 것은 한국 단체들의 국제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3세계 사람들이 상기의 단체의 소속 선교사로 허입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들은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 특별히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국가들에게 아시아적 선교단체 설립에 통찰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5. 소결

자선교학은 자신학과 연결된다. 이태웅 박사는 한국 선교는 미래적으로 한국 선교 신학이 정립되어야 하고, 거기에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선교에 임할 때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제 한국 선교계는 한국 교회를 선교적 관점에서 섬겨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점에서도 한국 자선교학 정립은 시대적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한국 교회가 파송한 한국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한국 교회의 성장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라도 한국 자선교학은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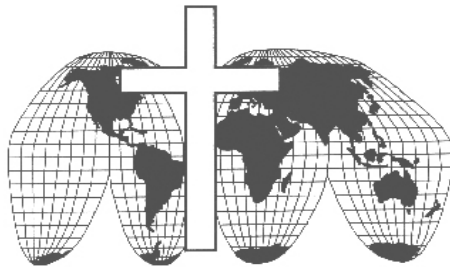
설문과 문헌 연구를 통해서 한국 선교계에서의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개념 이해, 그리고 정립의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무엇을 한국 자신학, 한국 자선교학의 주제로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해 보았다.

지난 130년간 한국 교회의 성장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독특하게 기억되는 현상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유례없는 성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세계 선교계에 후발 주자로 동참하면서 이루어낸 선교 열매 역시 놀랄만한 결과 중의 하나이다. 공식적으로 한국 파송 선교사가 기록된 1979년 이후부터 NCOWE III 가 열렸던 2000년까지의 한국 선교는 '선 성장, 후 점검'의 모양으로 파송 선교사의 양적 팽창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리고 새로운 21세기가 열리면서 급격히 변화되는 선교 환경은 한국 선교가 양적으로 성장해 오던 길에서 '무언가'에 한방 맞은 것 같이 주춤하게 하였다. 성장이 둔화되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선교는 '양적 성장'이 가져 온 폐해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 선교의 업그레이드된 행보가 시작된 것이 2000년부터 열린 NCOWE III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국 선교는 일정한 방향을 갖고 흘러가고 있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NCOWE가 갖는 의미는 세계 선교계와 한국 교회를 위해 '한국 선교/선교사의 바른 역할'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다. 이번의 주제는 바로 그 여정의 거의 끝 부분의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양적 성장의 뒀안길에서 쏟아져 나온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숙'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견고한 토대 위에 세우기 위한 일이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추구가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성급하면 안 될 것이다. 설문의 말문에 자신학과 자선교학의 발전과 방향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였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정확히 알고, 서로 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연구되면서 편협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균형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2012년 산동성 선교 100주년 기념 포럼에서 한국 선교계의 어른이신 방지일 목사는 '받은 복음', '주는 복음'을 강조하는 통찰력 있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130년 전에 복음을 주러 온 선교사들이 있어서 복음을 받게 되었고, 이제 받은 복음을 주는 자가 된 한국은 기독교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는 이 시대에 '체대로 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선교계에 점점 증가하는 많은 비서구권 사역자들과 여전히 많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 서구 사역자들 사이에서 미들맨으로서 그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정리하여야 하는가? 라는 자문을 해보자.

이번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 결집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작이었던 한다. 그래서 한국의 토양에서 찾아 낸 다듬어지지 않은 '주제'들을 '학'으로 만들어 가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한국 자신학, 자선교학을 제시했으면 한다. 책임이 상실된 시대라 더 위기 속의 한국을 말하지만, 한국교회는 그러한 위기들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면서, 변혁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에 복을 나누어 주는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기를 소망하며, 25,000여명의 한국 사역자들에게 통찰력을 주는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이 결집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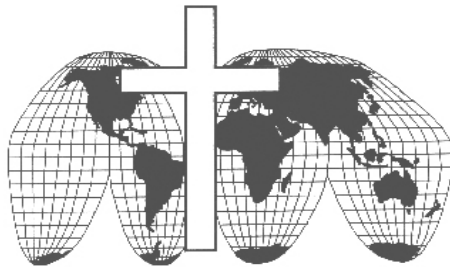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16 Elliots Alley, Valley Cottage NY 10989

T 845-267-4159 / **F** 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16 Elliots Alley, Valley Cottage NY 10989

T 845-267-4159 / **F** 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